朝鮮日報
夕刊 三日(月)
◆本社刊行新年號◆ 『光明』(月刊雜誌) 『女性』 一月號 『少年』 一月號

社說 新年과 我等의 主張 (二)
中小産業問題

一

朝鮮産業은 再昨年의 朝鮮産業經濟調査會, 昨年의 支那事變을 契機로 劃時期的인 轉換을 보이게되엿다『産調』以前을 自然成長期라고본다면 그以後를 計畫産業期라고할수잇고 自然成長期의그것은 分散的인 小規模의 中小産業이엇든것이『産調』以後에는 大資本을 擁한 大規模的인 企業形態로 進展되고 事變으로因한 戰時體制確立以後에는 다시 一步前進하야 非常時突破를爲한 重要資源開發을 目標로한 國家中心的全體主義로 一括된 新形態로 進展되엿다. 이를 一言으로 要約하면『産調』를契機로 準戰體制로 移行되엿든朝鮮의産業은 다시 戰時體制에로 飛躍된것이다. 이것이 朝鮮産業의 現階段이다.

二

産業의 戰時體制에로의 再編成은 非常時克服을爲하야 全産業을 國策的方向으로 統制하는것이니 戰時産業計畫에따라 朝鮮産業도 同一方向으로 指導되는것은 또한 當然한 順序로이에伴하는 部分的犧牲 例컨대國防産業의 優先的地位認定과 平和産業의 第二位的退却等도 또한 不得已한일이나 朝鮮은 上述과가티 自然成長期로부터 急轉飛躍되엇기 때문에 一元的指導原理下에 計畫化되어 散漫無組織狀態에서 脫却은되엿스되 이와同時에 自然之勢로 誘致된大資本進出에依한 大企業獨占化傾向은 企業의 거의全部가 中小企業形態인 朝鮮産業에 不少한影響을 밋게되엇고 다음으론 戰時體制를 契機로 農業朝鮮으로부터 鑛工朝鮮으로 轉換되려는 現局面이라 産業行政도 農漁村中心으로부터 鑛工中心으로의 自然的推移를 보일것이 아닌가 豫想되고잇는데 國策本位의 大企業勃興如否에 不拘코 中小産業은 中堅産業層으로서 産業朝鮮의 圓滿健全한 發達을爲해서는 決코等閑視할것이 못되는것이며 鑛工業殷盛如何에 不拘코 朝鮮産業의 基本은아직도 農業이니 이點에잇서서 農村中心의 産業行政이 鈍化되는일이 잇서서는 안될것이다. 이意味에서吾人은 朝鮮産業의 現階段의要求로서

(一) 中小産業의 積極的保護助成策을 講究할것
(二) 農漁村中心政策을 끗까지 堅持하고 現行制度一部의 改善擴充을 圖할것
(三) 産業에 잇서서의 機會均等政策의徹底化
等을 極力主張한다.

三

中小産業問題는 先進諸國에서도 重大問題化하고 잇는것이라 朝鮮에 局限된 問題도 아니나 最近 中小産業이不況時의 耐久力과 獨創的製品 産出의 二大特徵으로서 特히 重視되고 産業中堅層으로서 그堅實한 發達이 極히 必要하다는것이 再認識되는것은日本內地에서 中小商工金融을 爲하야 商工組合中央金庫를 設立한 事實等과아울러 注目할일인데 企業의거의全部가 中小企業인 朝鮮에잇서서 中小業者問題가 輕視되고잇는것은 實로 重大한問題다. 어제, 大資本에依한 大企業이 新興하여감에따라 影響은 二重, 三重으로 오는것이나 大企業과의 競爭에 ...도이 不可能한것도 아닐것이오 社會의 均衡된 經濟를 爲해서는 緊急을要하는것以外에는 大資本進出을 某程度는抑制하여서라도 中小産業의 助成에 努力하여야할것이다. 이것을爲한 對策으로서는 (一) 中小業者金融의 疏通을 圖할 方策을 講究할것 (二) 中小産業의 合同策을 取하지말고 大資本에 不適當하고 中小資本에適當한 部門을擇하야 大資本과의 對立을 避하게할것 (三) 各地方 特産物의 同業者亂立의 弊端等 中小業者自體의 統制等이 가장 緊切한 問題이다.

四

다음 朝鮮의 産業行政은 農漁村에 끗까지 農漁村中心政策을 堅持하여야할것인데 이에 對해서는 따로히 論할機會가잇거니와 이제 産業行政組織에잇서서 行政官廳과 그圈外인 産業自治團體와의 連絡調和의缺如, 或은 團體의 不統一을 往往히 보게되고 農會, 金組, 産組等 自治團體의 對立等도 正面으로 活動에 오는게 되는것은 産業行政의 飛躍에 强化하지못한 탓이라 할수잇스니 이方面의 改善도 勿論 必要하며 正租, 棉花, 繭으로부터 組織販制度의 缺陷은 問題가잇슬때마다 吾人이 指摘하든바와가티 纖商賣買業, 生産者販賣가共販의 根本目標에도 不拘하고 도로혀 그獨占은 生産者의 不利를 將來하는 傾向도 不少하니 그制度의 不備를 除하는 것은 이때에 이는 亦是 그制度의 缺陷을 是正하야 이러한 모든 制度의 改善擴充을 主張하며 마즈막으로 産業全般의 均衡的發達을 爲해서는 朝鮮企業化의 意識을 新産業의 開發, 硏究, 計畫, 經營等에잇서서 朝鮮人도 이에 參與할機會를 더한層 히주고 産業의 特殊利權이 特定한 人에게도 만히 附與하는 眞正한 意味의 機會均等政策의 徹底化하기를 主張하야마지안는다.

友石 黃宗河氏 畵

第二段抗戰目標로 國民政府機構改組
中央常務委員會에서

【上海二日發同盟】中央執行委員會常務委員會第六十二次會議에서 決定된國民政府機構改組는 近來에업는 大規模의것으로 對日抗戰第二段階의 行政機構整備를 指目하고 左와如히 이를決定하엿다

一、海軍部를撤廢하고 其事務를 海軍總司令部에歸屬케함
一、實業部를經濟部로 改稱하고 建設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 全國水利委員會 軍事委員會는第三部第四部經濟에 歸屬함
一、鐵道部及全國經濟委員會의公路部를 交通部로 歸屬케함
一、衛生署를 財政部로 歸屬케하고 全國經濟委員會의 衛生部를 衛生署로 歸屬케하엿다

國民政府改組 正式으로決定

【上海二日發同盟】對日抗戰의 第二段階에 對處하기爲하야 國民政府의 改組는 最高統帥者蔣介石을 中心으로하야 中央政治委員會及各省領袖를 網羅하야 열린 重要會議에依하야 審議內定中이든바 廣東에열린 中央常務會議에서改組斷行을 正式으로 決定하고 蔣介石의 行政院長辭任을 爲始하야 各部長의更迭을發表하엿다

行政院各部를 七部로減少決定

【上海二日發同盟】日支紛爭新事態에順應하기爲하야 行한行政院各部의根本的改革에依하야 從來의行政院各部는 內政部 外交部 軍政部 財政部 經濟部 敎育部 交通部의 七部로 減少되여 左記三部長의 更迭新任이잇섯다

一、交通部長 張公權
一、敎育部長 陳立夫
一、經濟部長 翁文灝

泰安攻略한 福榮部隊

【泰安一日發同盟】濟南에第一번 先入城한 榮譽빗나는 福榮部隊는 濟南入城後 休息할사이도업시 三十一日夜 秘密히蔣家河部落을 突破하고 별이총총한 暗夜를 南下하여 部落마다 蠢動하는殘敵을 掃蕩하면서 徹夜强行軍을 繼續하야 早曉泰安首善突破하엿는데 此時 昭和十三年春의 曙光은左手에 毅然히 솟은 靈峰泰山을 붉게물드려 極히 壯嚴하야 我將士는 初日出에 向하야 日章旗를 흔들때 高聲으로 聖壽萬歲를 三唱하엿다 泰山은 支那五大靈山의 隨一

共産黨領袖를 無任所部長任命

【上海二日發同盟】國民黨部로부터 人材를 求하야 國政에 參與시킨다는 見地로부터 十五名의 無任所部長을 任命하야 行政委員會議에 列席시키기로 되엿는데 周恩來 毛澤東等 共産黨領袖가 無任所部長으로 任命되엿다 右는 共産黨의 國政參與하다 國共妥協의 具體的第一步로 解釋되여 多大한 關心을 가게한다

戰時最高會議 委員增員

【上海二日發同盟】上海戰勃發後 조직되엇다가 昨年八月二十一日成立된 最高諮詢機關인 戰時最高政治會議委員은 從來三十名으로 制限되엿든바 一日을期하야 委員數를 七十五名으로 增員할것을 發表하고 五院及各省市政府代表를 參加시키기로決定하엿다

殷同氏北上 臨時政府要職에就任

【天津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前北寧鐵路局長 殷同氏는 二十八日에 大連丸으로 秘密히上海로부터 來津하엿다 一泊한後陸路로北京에 나아갈豫定인데 同氏는中華民國臨時政府의 要職에就任할豫定이다

濟南治安維持會

【濟南一日發同盟】一九三〇年以來 七年間 韓復榘의 桎梏下에잇든 濟南市民은 皇軍이入城하자 歡呼로써 歡迎하고 舊國民黨政府의 羈絆에서 離脫하려고 各界有力者間에 治安維持會結成準備가 進行되고잇섯는데 結局會長 馬良, 副會長 李伯成兩氏以下二三委員의決定을보앗스므로 마친내 元日의佳節을期하야 濟南治安維持會發會式을 擧行하엿다 右發會式은 實業界、宗敎界、學界其他各界代表者 約三百名이出席하야 午前十一時에 開會하고 馬會長의就任人事가잇슨다음 治安維持會結成의 宣言을한後 祝宴에移하야 午後一時에 散會하엿다

日華、內外綿을 陸戰隊에서警備

【上海二日發同盟】上海戰開始以來 外國兵의 警備區域으로되어 잇든 邦人經營의 日華紡、內外綿의紡績工場의 警備는 二日從前과가티 陸戰隊의 警備에回復하엿스므로 陸戰隊는 二日朝○○名의兵士가 南京路를行進 五個月만에 同工場에드러갓다

唐生智는罷免
訓練總監에白을任命

【上海二日發同盟】行政院機構改革에 伴한 海軍部의 軍事部併合以外에 軍事的部門의 重要關係의 하나로서 訓練總監 唐生智는罷免되고 白崇禧가 그後任으로드러가 國民政府의 軍事的抗日作戰에 參劃하게되엿다

日本漁船米官憲抑留

【로스안젤스三十日發同盟】最近太平洋沿岸에서 日本人所有의漁船이 不法漁撈의嫌疑로 頻繁히逮捕되는데 三十日도 로스안젤스港에서 日本漁船드리ー스타ー號가 聯邦政府官憲에抑留되엿다

行政院長辭任코 蔣、軍事指揮에專念

【上海二日發同盟】行政院長을辭任한 蔣介石은 對日抗戰의 軍事指揮에 專念하기로되엿다 (寫眞은 蔣介石)

青島市長逃走

【上海一日發同盟】青島의 形勢가 危殆에 瀕하야 市長沈鴻烈及 警備司令謝剛哲은 三十日警察署 같은것이 判明되고 軍隊及巡警도 어데론지 撤退한 模樣인데 그後青島의治安維持는 支那人有力者二十五名으로 組織된臨時市政府에依하야 維持되여잇다 臨時市政府는 外國領事團의 主張에 依하야 誕生되여 前記役員外에 外人義勇隊二百이 參加하야 支那商工會議所에 本部를두고 三十一日부터執務를 開始하엿다 어제警은 支那工安隊員一部百卅名은 어데로부터 나타나 臨時政府麾下에드러가 同日夕刻以來 日本人絹織物工場의 火災消化에 努力하고잇는等 새로운 治安維持機關에 協力하고잇다

總領事官邸前에 爆發彈을裝置
工部局警察이發見處置

【上海二日發同盟至急報】連續하는테로事件으로 上海全市가 恐怖에 싸여잇는 此際二日午後零時三十分頃 巡邏하고잇든 租界工部局警官이 威海衛路와 西摩路의 交叉點에잇는 我總領事官邸의 門前에裝置한 爆彈을發見하고이를 處分하는同時에 總領事館警察과 協力하야 附近一帶의 警戒에 任하고嚴重犯人搜査에當하여잇다 그리고右爆彈은煙草空罐에硫黃과가튼 集合及硝子의破片을 充塡한것으로 爆破力은그리 크지안흔것으로 認定되나 我外交公館에 對한 惡黨의 犯行에 當局者는 極히 激憤하고善後策을 考究하는中이다 그리고 同爆彈은 二十七日 上海市民協會委員同盟一의 門前에 投한爆彈과 大略同樣하다

莫府아파ー트增築

莫斯科에서는 今年第四四年期間에 百棟의 大아파ー트의 新築落成을 豫定인데 其中若干은 이미開設되엿고 年末에는 다시 八十棟을完成할豫定이라 此等新아파ー트의大多數는 莫府諸工場勞働者 技術家及 科學者等을 收容하기로 되엿다

今日本紙新年號合十六面

汪精衛의年頭辭
失地回復을强調

【漢口一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汪精衛는 民國二十七年元旦에際하야 如左한 年頭辭를 發表하엿다

現下未曾有의 非常時에 處하는 我等同志는 最大한責任과 工作으로써 失地回復에 努力하야 할것이다 土地의保全뿐만아니라 我等同志는 土地回復에도 最大한責任을 가질것이다 萬若我等同志가 土地回復을 못하면 國家는 반드시 滅亡할것이다 ... 中國의 各地를 占領한 敵은 傀儡政府를 樹立하야 ... 我等은 持久抗戰에 必要가잇는 同時에 敵軍이 占領한 地方에 잇서서 工作이 容易치 안호니 ... 我等同志는 決心을 새로이하야 ... 되지안흐면아니된다

八面錄

◇屠蘇酒 어릿한 가운데 어느듯 三日을 經過.
◇新年이 되면 모든 시원한 노릇이 잇슬가 조케 생각하는것이 사람의 心理.
◇歲月에 속아 산다는 말은 이것을 意味하거니와.
◇實로 人生百年이란 어런것 같으야 늘어가서야 바로소 一生의 價値를 늬우치고 갓버함일.
◇생각하면 朝鮮의 靑春들 計劃이 잇는가, 希望이 잇는가.
◇어거든 억지로라도 맨들고 힘써보자.
◇新年의 誓願이라면 그것뿐.

人事·集會

◆申榮雨氏(本社東京支局長)二日午後二時半東京市麴町區麴町一八에서 轉居
◆金容來氏(本社大阪支局長)二日午後六時五十分東京驛着上京
◆崔炳默氏(醫學博士)新義州府서 來社

(カタログ呈)
大阪市南區日本橋四ノ五四
紅屋樂器店
振替大阪一〇四七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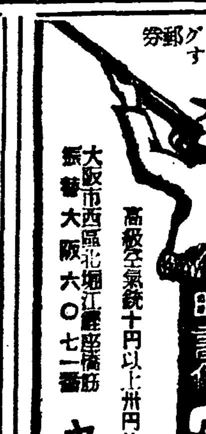
紳士婦人子供服用
ボタン
バックル
品質優良·柄行嶄新
大阪市南區谷町二丁目
中川卸店
電話東五一二三番
振替大阪三五六三番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絹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一二三號
商報發呈 見本은五十錢要(切手)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三八參三番

謹賀新年
舊年中の御引立を謝し
本年も倍舊の厚情を希ふ
昭和十三年元旦
ワイシャツ
折襟シャツ
卸問屋 野井集商店
大阪順慶町四

謹賀新年
舊年中は格別の御引立を蒙り難有奉深謝候
尚ほ本年も不相變御愛顧の程偏に奉希上候
昭和十三年元旦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株式會社 日本興國洋裝社
(熱心잇고善良한外交員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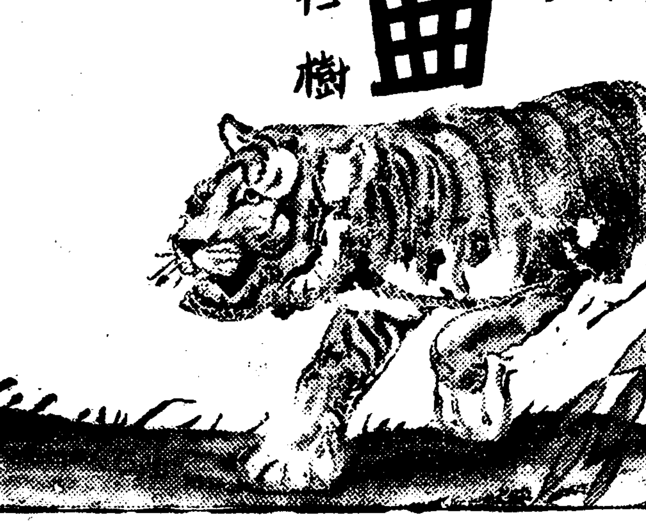
謹賀新年
舊年中は格別の御愛顧を蒙り奉拜謝候
尚本年も不相變御引立の程希上候
昭和十三年一月元旦
大阪市東區南區八町
學生服
作業服
新型ズボン
各種上衣
卸商
合資會社 二葉屋商店
振替 大阪 四三六三一番
電話 東 七九八五番
工場 電話 南 七八五五番


カタログ郵送 三錢要す
無料進呈 說明書付
空氣銃
高級空氣銃十円以上卅円位 少年用貳円以上
大阪市西區北堀江鏡座橋筋
振替大阪六〇七二番
ヤマト商會

今

新興からし
소면·우동
豆腐其他여러
지반찬에고
초가루
밀국수·
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
찬의 고초가루
新興番椒粉
とうがらし粉

釜山 今山西商店
京城 阿部本店
〃 辻本商店
平壤 吉川商店
〃 桑田商店
鎭南浦 江口商店
新義州 山七商會
日滿物産株式會社
元山 重枝商店
〃 小野本店
仁川 中村商店
咸興 德元商店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コショ 製造本舖



正月新譜傑作盤
哀愁의小夜曲 南仁樹
戀愛三色旗 金貞九·李蘭影
蒼白한물결 金貞九
지는夕陽어이하리 黃錦子
馬車의방울소리 高福壽
눈물의자장가 李蘭影

月刊
農業朝鮮 創刊號
新年一日出來

發行의趣旨
朝鮮은 農業國이다。總人口의 約八割이農民이오 農業은 朝鮮産業의 中樞가 되어잇다。이와같은 朝鮮農業의 重大性에鑑하야 今般弊社에서는 昭和十三年一月一日付로『農業朝鮮』이라는 大衆的農業月刊誌를 刊行하기로 되엿다。本誌는 農業知識의 普及과農民文化의向上을主目標로하고 其他農政解說、農業뉴ー스、副業知識、趣味等에亘하야 各其이方面의權威의論文을滿載하야 朝鮮農民의唯一한벗이되려고한다。

創刊號重要內容
生業第一 ……… 李鍾萬
農民道 ……… 李勳求
朝鮮肥料配給統制令公布를보고 ……… 辛泰嶽
敬愛하는農民에게 ……… 李晟煥
朝鮮稻作秘訣 ……… 朴善日
農地問題와三七制의再吟味 ……… 許憲
農村副業의諸問題 ……… 鄭求興
農業保險法과知識 ……… 張仁甲
農村生活의革新 ……… 鄭顯模
農村問題解決의試案 ……… 李長庚
農村婦女敎育問題 ……… 姜辰國
短篇小說 過歲 ……… 韓仁澤
野史 鑒井耕圃 ……… 朴光烈
奇談 江原道로당이 ……… 車相讚
朝鮮棉作에對하야 ……… 秦元俊
其他滋味있는記事滿載
【懸賞論文募集規定創刊에揭載】
◎支社大募集! 規定要求次第付送!
購讀料一部 二十錢(送料共)
注文要先金

發行所 株式會社 大同出版社
京城府鍾路三丁目七四ノ一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電話光化門二一九一番

東洋音樂의最大偉業 世宗朝때에中興!

凋落危機에價起한李王職雅樂部員들의功績

世襲四代·樂師長咸和鎭氏

雅樂篇 A

현재우리조선에 남어잇는 아악(雅樂)은 악기가 륙십종 악곡(樂曲)이 이백팔십사곡 가(歌)가사십종 무(舞)가 오십이종으로서동양을 통하야 제일 완전한것이다 동양음악의 정화(精華)를 차즈려면 먼저 우리아악을 연구하여야하게큼 우리의아악은 귀한존재로서 이귀한 존재라는 의미를떠나서 이아악은 우리의입에 김치, 깍두기가 맛도이 우리의 귀에는 제일잘맛는다 아모리 『째쓰』와 『오케스트라』의 곡조와선률이조코 또 현재만히 류행된다하더라도 우리의귀에는 너머나 시끄럽고떠들석하야 거슬리는때가만라 아악의 그청아한곡조! 고상한음률! 심원한여음(餘音)! 이것이야말로 우리의귀에 제일잘흘어오고 들어서 또마음이 가러안즈며 평화스러워저서 참으로 우리의 정서(情緒)를 잘붓돋어준다고 말할수잇다 이런점에 아악이한때 아조이저버려지려하다가 다시 재인식되야 압날의발전을 기대하게되는 원인이숨어잇지나 안흔가생각하며 아악의 유래와 상래의 발전성을 살펴보려한다

×

아악은 궁중의 제례(祭禮)와 연례(宴禮)의 소용으로 전하여온것으로 조선에서도 리왕가(李王家)에남어잇슬뿐이다 조선의 음악은 그기원이 오래서 거금수천년전에발생되엿다 고대의음악은불교악(佛敎)과 속악(俗樂)으로 토속적이엿지마는당의(唐)시대로후러 수양(隋煬)이후에 이르기까지 피차의 음악이 서로 교류되야 발달되여왓는데 고구려시대에 일으러는 재상 왕산악(王山岳)가 현금(玄琴)을 만들어내이나서 고가야국(伽倻國)의 우륵(于勒)은 처가는이는 가야금(伽倻琴)을 처음발명하야 조선악기중의 상벽을 일웟스며 그들은 또 새악곡을 만히 창작하야 제자들에게 가르첫다고하는데 이악곡은 오랜동안에 전부산실되고 하나도 전하여오지 못하엿다 고기(古記)를 상고하여보면 아악은 송(宋)조때에 전하엿다고 기록되여잇지마는 실상이것은 그보다 전인 주(周)나라 시대부터 전한것으로 리조(李朝)에들어와서는 세종조(世宗朝)때에 악곡을 창작하고 악기를고처만들고 새로만들어 정리하야 궁중의례악을 혁신함에따라 그기초가완정되엿다 세종대왕의 분부에조차 이중임을 마터붓이는, 전기한왕산악 우륵두분과아울러 조선의 삼대악성(樂聖)이라고 일컷는란계박연(蘭溪朴堧)선생으로 아악이그에게힘입은바가 여간큰것이아니다 그후세조조(世祖朝)에 악보(樂譜)를간행하고 성종조(成宗)조에 ... 아악이 정히발전되고 또 그정회를나라내게된것으로 이저작이야말로 동양음악사상의 최대위업이라하야 대서특필할사이어 러대의당조에서도 이예악을준수시하야 례조조에는 악인의수가 팔백여명에 달하엿고 최근리왕광무(光武)년간까지에도 칠백여명가량이 잇섯스나 그후시세의변천에따리 점점줄어저서대정 오륙년에는 겨우 륙십여명밧게 남지 안케되엿는데 그들은 의원도흥수하기놀을 가진이다。 로 몰리가고하야 후계자가업서서 그대로두면 전통적에서 오직조선에만 남어잇는아악도 조흔립위기에 당도하엿섯다 어떠에이아악을유지보존하며 발전시키자는 악원들의여원과 일반의여론이리왕직에 용납되야 대정팔년부터 리왕직에서는 직원우대의방편을강구하는한편에 아악부의화생을모집하야 후계자양성에힘쓰게된이래 작년도까지에 제사회졸업생을내엿는데 현재아악부원오십여명중 그구할은 그꼿출언생들이라고한다 본래 악원은전부세습제(世襲制)이든것을 시세의변천에딸아 부득이 공모케된것으로 현재 아악부의사장으로게시면서 아악의유지와 민진홍책에 심혈을경주하고잇는 함화진(咸和鎭)(五一)씨도 그까지 사대채의 봉사로서 그는열일곱살부터 시작하야 지금까지 삼십구년간 아악에 종사하엿다하니 씨가 금일아악계의중진으로 명성이 혁혁함도 우연한소치가아니라할을 이에엿볼수잇다

(사진은 함화진씨)

父子相傳

安岳安新普校에 幸運의十萬圓

故金庸震先生嗣子 元亮氏

正初에던진巨彈!

【安岳】안악에 는 방금안악고 보섬린을 보게되는 섬사물이두고 또다시 눈을부시게하는 교육계의 뉴쓰로서 커다란 센세이숀을 던지는 //히트//가잇다 그행운의복명이는 방금년말방학으로문을 굳게잡그고 쉬이는 안악사립안신보통학교(私立安新普通學校)에 떠러젓다 그 통쾌하고 꿋꾀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제는 애석하게도 고인이된 갈봉 김용진선생(葛峯金庸震先生)의 서거한지도이미 십개월이나 되엿거니와 갈봉은 생전에 교육계며일반 사회사업에 물질과 정신으로 만흔 노력을 하엿는데 특히선생의 임종에가서는 공의 사업을 위하야 삼십만원(三十萬圓)을 히사할것을 선언하엿섯든바이것은 그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엿섯다。

그런데 인명은 이력으로 좌우할수업섯든지 선생은조흔뜻을 세상에 남기대로사업의꽃핌을 춤겨볼틈도업시 세상을떠나고말엇다。

이에그장자되는 김원량(金元亮)씨는 고인의 유언을 충실히실행하고자 칙척지우와서로협의하야 신중히 그 거대한 돈의 용도를 연구고려하고 잇든중 드디어 경성의 경신학교 인계를결정하엿섯스나 그것이 선교회측에서 분쇄되자 다시안악에잇는 고인과연고가기픈 사립안신보통학교에 우선제일단으로 십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 정식으로 통고하는동시에 그 실행방법을 고려하는중인바 안신학교리사회로서는 이거륵한괘거에 감격되여 기부자측에 치사하는동시에 금후 기부의바더드리는방법을 현금으로할른지 혹은토지로 달라고할른지? 협의하기로 되엿다。

이리하여 년말을당해서 모도것이 청산기에잇는 조선교육계에 또하나 거탄을던지고잇다

情婦와"愛慾逃避"

大金詐欺코 元城津殖銀支店次席

【城津】당지식산은행(殖産銀行)지점에 차석(次席)으로잇는것을 기회로 일류재산가와 실업가의 향응(饗應)을받고 공평치못한금전대부(金錢貸付)를감행한후 묘정게집과사리러에빠저 모유력자들에게서 약일만원의 대금을사취하여가지고 정부와손을마조잡고 연애의 도피행을하엿다가 결국은 범방에걸린사건이잇다。

성진경찰서에서는년말경계에분주한 수일전부터 번본(播本)검사지휘하에 맹활동을 개시하야 박(朴)사법계주임은 산구(山口)형사를 대동하고 동경(東京)에 출장하야 원성진식은지점(元城津殖銀支店)차석 비전관일(飛田貫一假名)(三七)과 그의 정부이오 원성지모음의 예기 소랑(小浪)을 명 파기요(關キヨ)를 인치하여다가 목하취사국에서 추궁취조가 진행되는바 탈로한바에의하면 전기비전(飛田)은 소화십년 식은성진지점에 취임이때자기가 차석이란지위에 잇는것을 기회로 차보가 실업가들에게서 금천대보를 조건으로 사복을채운이외 모유력한 재산가를 감언이설로 꾀여 모지에 시설된는 모회사의 신주(新株)를 소개한다고 사칭하며 근만원을 취하여 매일가티 료정에 출입하며 유흥에 소비하고 또한일즉보러 기픈 사련에 빠저잇든 정부 소랑(小浪)을 이천삼백원으로 몸을빼여 그곳된 애욕도피행을하게되매 궁여지책으로 각과해자에게대하야 금년설날에는 사직하겟다는것을 구실로 퇴직수당금 적립금(積立金)으로 변제하겟다고 위임장(委任狀)을 작성하여 수교하고 섯진을떠난후 곳퇴직하야 위로금 륙천원을바더가지고 자기본서에게는 복지나 가서 일화천금하여가지고 돌아오겟다는 망도시우품정(廣島市宇品町)에가서 ... 하다가 동경(東京)에잠복중 수배에의하야 경시청(警視廳)에 검거된것이라한다

金使用制限으로 街頭에戰時旋風

鍾路通貴金屬商의活路는?

裝身界空前의異變

거리를 휩쓰는 가지가지의 전시선풍(戰時旋風)은 무인(武人)새해를 마지하야서도 점점강하야갈뿐이다 여러가지 이변(異變)가운데 새해를 당하자 첫번눈에 띄우는것이잇스니 그것은 지금 국책(國策)으로 강행(强行)하고잇는 산금장려(産金獎勵)와는 딴판인 용금제한(用金制限)이라는 기이한 현상이다

얼마전 대장성(大藏省)에서는 장래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위하야 금을 민간에서 사용하는것을 제한하기로하고 금사용규측(金使用規則)을 제정하야 금품의전부의삼백집칠분즉구금(九金)이상의 제품제조와 표장(表裝)제은(製銀)인쇄(印刷)광고(廣告)표지(標識)등에 금을쓰는것을 금지하엿고 이어또 상공성(商工省)에서는 금사용을 제한하면 백금(白金)사용이 철신하리가서는 소기의목적을 달할수업다는 견지에서 백금사용제한 규측(白金使用制限規則)을공포하야 장식품(裝飾品)장신구(裝身具)문방구(文房具)또는 기구에 백금을쓰는것도 금지하야 버렷다 조선에서도 일본내지의 이것을본보기로삼어 혹、백금 사용제한을 조만간부령(府令)으로공포하기로 되여잇슴으로 이것이발포되는날에는 금비지 금비나 금귀이개 금시계등은팔할것도업거니와 전잔은초대장에 금선(金線)을두르는것이라든가 책뚜겅에 금문자(金文字)를쓰는것에이르기까지 새로운 금빗은 하나도볼수가 업게될것임으로 이미잇는 금제품의 광채는 더욱번쩍일것이며 현대녀성들의갈망하는 최고장신품인 백금반지 백금시계도구경할수업게되는것은 가난한사람에게는 일대복음(福音)이라고하겟스나 금운을걸고차우는 쳐재도업을투다안은곳에 기생들은구경할수잇스며 그러타고 구리반지구리비나도 길수업는 현대모—던녀성을 위하야서는 미안천만한일이다

또는조선도록에술비한 귀금속상들에게는 방금에판케되는 대사건으로 그들의활로(活路)를차저이르킬 장신계(裝身界)의 //이변//도 이번이번에못지안은//눈의이변//이될것으로 ... 지금부터 흥미를끄은다

全南運動者協議會事件

全被告執行猶豫

木浦支廳判決言渡

【木浦】전남운동자협의회(全南運動者協議會)사건이 발생후 그 뒤를이어 전남강진、장흥(康津長興)을 중심으로한 결사사건은 이미보도한바와가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예심계(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豫審係)에서 그동안 예심을맛치고 다음과가튼 피고다섯사람이 공판에회부되야 지난십이월십일부터 동법원지청 제일호법정에서 궁정(宮井)검사립회하에 굴모(堀部)재판장 주심으로 공판이 속행되엿섯는데 지난이십칠일에 다음과가튼 구형과 판결언도가잇서 이십칠일마침내 전부 사년간 집행유예로 목포형무소에서 석방되얏다한다

被告住所		氏名	求刑	言渡
羅州郡榮山面榮山里	店員	尹璟德(三一)	二年六個月	二年
康津郡大口面水洞里	農	尹小鉉(二一)	一年六個月	一年
長興郡冠山面竹橋里	農	丁鍾浩(二一)	一年	八個月
康津郡大口面水洞里	農	尹在鉉(二〇)	一年	六個月
康津郡大口面水洞里		尹庚得(二〇)	一年	八個月

(但執行猶豫四年間)

異例의始務式

狀況을全朝鮮에放送

四日

일월사일 총독부시무식(始務式)은 현하비상시국에 대처하기위하야 특히 금년에 전례를깨트려서 총독부직원만아니라 경성제일치소속관서 직원전부를 총독부에 초집하야 다음과가튼 순서로 식을거행하기로 변경되엿다 그리고 또 이상황을 //라디오//로 전조선에 방송할터이오 경성이외의 지방에서는 총독의 훈시가 끗나기를기다려 각관서장으로부터 훈시를하기로되엿다

◇順序

一、午前十一時開式
二、國旗揭揚
三、國歌合唱
四、皇居遙拜
五、總督訓示
六、皇國臣民의誓詞齊唱
七、閉式

活動寫眞館崩壞

死傷百三十名

新潟縣中魚沼郡에變禍

【新潟電話同盟】 일일오후 칠시 사십오분경 신석현중어소군시정(新潟縣中魚沼郡十日町)에서 활동사진을 영사중 집풍가온대 사십명가량이의 관객의 적설(積雪)에 못견대어 문어저서 마츰정초라하야 만히 드러왓든 칠백여명의 입장자는 깜작놀래자마자 그래빗이 깔려서대혼란을 어루엇다 현재판명된 피해자로는 즉사자가 삼십구명 중상자 이십팔명 경상자사십여명에달하엿다 그런데 사건이발생하자 곳경찰단청년단 소방조동이 출동하야 필사적 구조작업에 분망중이다

綠丸顚覆沈沒

十一名死亡

【廣島電話同盟】 이일오후네시사십분경에 강전도(江田島)기선 『미도리』환은 신년손님륙십명을실리고 우품(宇品)에서 강전도(江田島)로가는도중 우품에서일천『메돌』의 바다에서 강풍으로인하야 전복되엿다 구조선이 급파되여 구조하고잇스나 사십명은 겨우구조되고 나머지는 행방불명으로 방금계속수사중이다

二圓火災

삼일오후세시사밤경 부내마장정(馬場町)오백이십륙번지 곽득종(郭得宗)의집에 조금한 화재가잇섯다 원인은 실화로 손해는 이원이다

氷上의序幕戰

明日로迫頭

優秀選手總登場

氷上시—즌의 序幕을장식할 朝鮮氷上競技聯盟主催의 朝鮮神宮氷上大會兼 全日本스피—드競技選手權大會 朝鮮豫選은 明四日午前九時半부터 漢源里링크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이날의 出場選手는 男子部四十四名 女子部六十四名으로 總數百八名에 達하는 盛況을 이루고잇는데 出場選手의 顔觸에잇서서는 例年에 보지못하든 優秀選手가 動員하기로되엿다 五百米第十一組외 金正淵과 李聖德兩君의 對戰는興味이끌고 잇스며 千五百米엔 第八組金基瀾(義州)과 金健會(新義州)君의 接戰이豫想된다 그리고 三千米 第二組인 李仁源(平壤)、李聖德君은 近來稀有의 好記錄을 樹立할것으로 期待된다 最終으로 五千米 第三組에 金正淵、金基瀾、李仁源、尹明深 金健會等 諸選手의 레—스는 壯壯한接戰을 演할것으로 人氣는 沸騰하야잇다 女子部에는 金炳烈(女高)李貞淑(安州)崔容(龍小)東田(龍谷)等諸選手가 有望하며 孫仁實(梨專)은 寶籍不足으로 出場키에는 出場치안키로되엿다한다

養正럭비ー

天理와對時

南甲子園에서열린 第廿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ー大會第一日에 福岡中學(九州代表)을 十四對零으로 一蹴한 養正高普는 抽籤의 結果 今三日午後一時半부터 强敵天理中學(大阪近畿代表)과 第二回戰에 對時케되엿다 그리고 第一回戰은 今三日午後一時부터 早高와第一回戰을 行하기로되엿다

早大籠球大勝

【마닐라廿九日發】早稻田大學遠征軍과 比律賓陸軍士官學校와의 籠球戰은 二十九日『마닐라』에서 擧行한바 四十七對二十三으로 早大軍이 遠征第一戰에 大勝하엿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定北西의 風이며 개이고 明日도 北西의 風이며 개엿다가흐리고 京畿全道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零度九
同最低	零下十二度
今朝最低	零下十三度
今日正午	零下十度七

ラシヤオーバー大奉仕

オーバー寸法 片前 二尺八寸・二尺九寸 兩前 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裏付 紺色と黑色あり
二六號 片前型 一着 金八圓十五錢
兩前型 一着 金八圓六十錢

高級ラクダオーバー 紺と黑色あり
二八號 片前型 一着 金十四圓八十錢
兩前型 一着 金十五圓五十錢

紳士用兩前オーバー
色合は 茶・黑色 青中年向
二二號 兩前型兩オーバー 一着 金十三圓九十錢

朝鮮オーバー大見切品 紺色に限る 二尺九寸・三尺
二五號 特製ベロアー 十二圓五十錢賣を特に 一着 金八圓五十錢

ウーステッド三ツ揃背廣服
寸法は大・中・小型あり 特大型一割高
色合 茶紺・青中年向 柄は斜線又は縞柄
一〇號 三ツ揃 一着 金十三圓八十錢

一五號 特製本毛セル三ツ揃背廣服
本毛の强いセル服地=色は黑と紺あり
仕立は最高入念、洋朱子總裏付なり
三ツ揃 一着 金十四圓六十錢

紳士スポーテックス三ツ揃背廣服
色は 茶・黑・紺色あり 萬人向の無地柄
二二號 三ツ揃 一着 金二十圓五十錢

特製黑セル詰衿上下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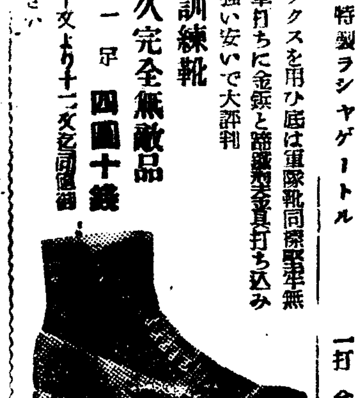
十九號 詰衿上下組 仕立入念裏付の金ボタン付なり 一着 金六圓
廿二號 詰衿上下 一着 金八圓五十錢

青年團服特賣
正しき青年團は正しき團服を 廉價と强靭と仕立入念は弊所の誇り

折衿 タルブ衿
大産大阪奉仕超特價値段
各衿型=大、中、小型=同値=上下一着=付
特製極厚國防色團服 金二圓五十錢
特大型は各一着に付十五錢高

上等スレン戰鬪帽 一個 金四十三錢
高級ラシヤ戰鬪帽 一個 金八十錢
徽章燬型靑字入 一個 金五錢
同 星型靑字入 一個 金三錢
卷ゲートル綿絨特製ゲートル 一打 金三圓五十錢
同 綿ラシヤ國防色ゲートル 一打 金七圓二十錢
同 特製ラシヤゲートル 一打 金十二圓

特製訓練靴
耐久完全無敵品 一足 四圓十錢
優良黑ボックスを用ひ底は軍隊靴同樣堅牢無比革底牛革打ちに金鋲と諸鐵類を真打ち込み 耐久無比强い安いで大評判
文數は十文より十二文迄同價格 指定下さい



名古屋千種區 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注文は葉書にて、發料は無賀主拂 振替名古屋二八九番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藥劑師試驗の要法
藥學物學講義
薬劑師試驗(薬事法規、調劑學、藥品學、藥局法)藥店免許、藥種商、販賣其他一切再版出來
全一冊 定價二五〇 送料三十錢
京城府旭町 壽星堂

謹賀新年

空中劇場
獨乙トービス社超特作 阿光映畵株式會社提供
TRUXA
一條の綱に命を託し華やかな人生の舞台に秘められた愛憎の戀物語
監督 ハンスHツアレット
主演 ラ・ヤーナ
共演 ハンネス・シュツツァー フリーツ・フユルベーター ラール・コディ・エル ホルツス
スリルと絢爛の大交響樂

良き何故何なき娘から
大船新春感覺明朗篇
颯爽たるスタイルで近代娘と豪快青年が皮肉戰術微笑ましき人生がある!
主演 佐野周二 高杉早苗 坂本武 東山光子 河村黎吉 吉川滿子

特別興行につき 大人 八〇錢 大學生 小人 五〇錢
京日・朝日・讀賣 特報ニュース
御家族連れで 明治座
開場午前十時開演午前十時四十分

第一劇場
時代劇 富士に立つ退屈男
主演 市川右太衛門
松竹京都超特作全發聲
電光一七五五番

桃花劇場
一月一日早一日까지 晝夜三回興行
時代活劇 長者息子
◇松竹キネマ社超特作全發聲版!!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青春萬歲曆
◇ユナイテット社超全發聲日本版
暗黑街의彈痕
電話一三三三

新富座
一月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空のギャング
ダイナマイト
プラーグの大學生
突破百萬哩
スパイ戰線を衝く
京城新富町 電話(本)五六七七番

團成社
空の特ダネ
小さな親分
强者의戀
支那事變特報
電光九九五番

平壤府電殞命!

情들었든制服一齊히버서버리고 歷史기픈"公營"의看板도떼버러

1.1.A.M.0時

【平壤】전조선유일의 공영전기(公營電氣)로 십일개년동안 남기어노흔 평양부전한 조선에 전기통제라는 선풍에 휩쓸리워 서선합동전기(西鮮合同電氣)에 몸값을 백삼십만원에 팔리게되여 가양도계약서(假讓渡契約書)에 부전과서전측대표의 가조인까지끗나 발서사실상 평양부전은 기능을일허버렷든터이나 일일오전령시를기하여 간판(看板)까지 박구어달기로되엿고 가조인도 정식조인으로 박구기로되엿다 즉십이년십이월삼십일일밤중 평양부청부윤실에서 부전측에서는 시야(矢野)부윤 귀산(龜山)전기과장 전기과각계장이 서전측에서는 금정(今井)사장 횡전(橫田)중역이 출석 제야(除夜)의 종소래가 울기시작하는 신년오전령시에 정식조인이 끄나는동시에 큰정(柳町)부전기과 현관에달리엇든 「평양부전기과」의간판은 거더치우고 「서선 합동전기」라는 새간판이 박구어달리엇고 가두에는 서전의「마ー크」가 뚜렷한 전차와 「뻐스」가 실주하기시작햇다 그리고 장관은 삼십일일밤에 전차차장은 가방을뭇석메고나아왓다 일일오전령시가 되면서 부러는 부전의차표를없새버리고 서전의 차표를팔기시작햇다는것이다

西電서電料引下

一月一日부터實施

【平壤】서선합동전기에서는 평양부전을 합병한후 일일오전령시부터 평양부사상에 획기적렴사의 한페이지를 남기재 전반의 영업을 개시햇는데 이것으로 서조선삼도의 전기공급권을 완전히 장악하게되엿다 이기회를다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기로되여 일일부터 조선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경성(京城)전기 전등 동면료금을 감하하기로 되엿는데 정액내등(定額內燈)십촉오십삼전을 오십전으로 일등(外燈)십촉 오십이전을 사십사전으로 종화등(從量燈)일키로 십오전을 십삼전으로 동력(動力)일키로 사전사리를 사전으로 전부의 료금을대감하실시햇다

元山孤兒院에

有志同情翕然

【元山】원산고아원에 유지가곤난한 일정한수입이업서서 어려움을 당하야 원산고아원에 요지옹 다음제씨로부터 동정금이 기증되여와서 그 원직원일동은 대단히 감격하고 잇다한다

▲五十圓安柄仁 ▲二十圓金鎬祐 ▲十圓式金涉亭 朴南鉉 申容禎 梁翼鎬 金永哲 ▲五圓式 崔河允 金榮吉 井上吉 東海組 川南工業會社 太田夫人 ▲三圓式 布谷國三郎 森野鐵工所 李聖翊 大元號 李昌效 ▲二圓式 深見麟三郎 金榮珉 金相兌 近藤

眞綿製造少女

옷에引火燒死

【扶餘】부여군림천면군사리(扶餘郡林川面郡司里) 리태순(李泰...)의 동정금을 어더재안일선만인국빈자에게 쌀혹은 의복을 분배하여 일시나마 기아를 면하게 하엿다고한다

四百戶貧民에게

救濟品을配給

【安東縣】안동현에 먹을것과 입을것이업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동포의 극빈자수는 안동시내만하여도 약사백여호에달하는바 조래는 청년회와 기타각자선기관에서 동절대의 형식으로 일반특지가의 희사금과 구제연극등을 개최하야 그들을위안하는일방 의복과쌀을 나노아주엇는데 금년에는 십이월말에 해산된 조선인민회에서 잔여금사천원중 일천원을 동포빈민에게 나노아주기로되여 지난달삼십일 파 삼십일일의 량일간 안동구민회사무실에서 소미(小米)사십포대를 구입하야 오백사십여호에게 가족십인이상은 두말 륙인이상은 한말다되 오인이상은한말식 분배하엿고또 수일전에는 안동사회련맹과 각기관이 일반시민의 동정을 모아 구제에 노력하엿다

咸南道의藁製品

年產九十餘萬圓

색기만도四十餘萬圓

【咸興】농가부업의 태종인집제품은 해마다 증산되고 잇는대 함남도농무과의 통계를보면 작년십일월부터 금년십일월까지일년동안의 함남도내에서 집으로 만드는 제품은 『가마니』 설(蓆)색기등을합하면 실로 구십륙만구백삼십삼원이 되는데 그중색기만 사백사십이천팔백륙십삼원어치 삼백삼십삼만사천이백매(枚)로 이삼구만 이천이백 삼십이원다 이만큼 일천일백륙십칠원이나된다 가마니의 생산은 모두사십이만이천칠백륙십원이다 태년도에는 더적극적으로장려하리라고한다

安岳高普에寄金雲集

最後段階에到達

舊曆年末內론全部收合豫定

【安岳】안악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이 전조선교육계의 대망의적이되여잇고 더욱이나 안악인사로서는 그달성에대하야 돈과열성을 한대기우려서 최후의『골·인』을하려고 서둘고잇는중에잇는것과 또당국에서도 이미그설치인가의방침을 확립하엿슴은 본보에 속보하엿거니와 이제근본이될 기부금의 수합상태는어떠한가?작이십칠일 기성회관사회에서 보고한바에의하면 김씨문중의이십만원은이미일천원식의만원대의기부자며 멧천원대 멧백원대의 각층기부자도 이와호응하여 역시십만원안으로 내일전을 말하엿스므로 다른소액의 기부도 이에따를것이며 이미소액기부금의 반분은 입금된자도 잇서 이대로순조로가면 구력년말안으로 전부의수합을 볼터로 기성회의 일년비의활동도 최후의단계에 올리서게되엿다 이보든 일반시민제씨의 활동협조와 후원으로 되는인만큼일반은오직 감격하여마지안는다

龍淵火災民에게

衣類百餘點配給

【梁山】량산군하북면룡연리산하

警官兩名殺害한

支那人兩名에死刑

新義州法院에서言渡

【新義州】지난칠월이십팔일 압록강구 신도면세도(薪島面細島)서방 일『키로』강중에서 밀어선(密漁船)을 체포하야 다리고오든중 롱암포경찰서 신도수재소 상석(上石)김상명(金尙明)등 동료(東縣桃源村)왕명전(王明田)외 두순사를살해한 안동현대안동인의창남 왕문덕(王文德)(三三)가튼왕내전(王乃全)(三三)등세명에대한 살인 공무집행방해사건은이십칠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길전(吉川)재판장주심으로열려다음과가튼 판결언도를 나리엇다

▲死刑 王明田

▲〃 王乃全

▲無期懲役 王文德

地方人事

▲宮崎範平氏(江陵稅務署長)就任人事次 本社江陵支局來訪

▲石谷昌勇氏(前江陵稅務署長)鐵原으로 轉勤人事次同上

▲金東完氏(產業技手)江陵郡轉勤着任人事次同上

▲有馬乾氏(前洪川郡內務主任)洪川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社洪川支局來訪

▲峰藤好夫氏(洪川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同上

▲張吉煥氏(江華釀造株式會社支配人)辭任人事次本社江華支局來訪

▲亥野加吉氏(平南道高等課外事係主任)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李康德氏(森信運輸株式會社庶務主任)新任人事次本社江華支局來訪

黃州의古蹟

運籌軒全燒

原因은失火!

【黃州】황해도황주읍내에잇는운주헌(運籌軒)은 이태동지황주면에서 고적으로보존하던 것인데 불에이르러 삼시간에 그만전소되여버렷다 전기건물은 거금사백여년전에지은 력사적귀중한건물로 구한국시절에 황해병사의정청이엿고황주세아문의 하나이엿섯다한다 불난원인은그곳에우거하든내지인회미(橫尾)모고 품고자던화로에불을끄지안코그대로두엇던바 그가외출한동안에 화로에서 발화된것이라하야 일반은 이귀중한 력사적유적이업서진것다하야 심히애석하여한다

▲十五圓 國泰鑛 ▲二十圓 ... 金元 鈴木芳朝 ▲十圓式 李昌元 金剛鍊 宋容 黃致三 金相佑 小泉熊三郎 中尾彌太郎 李容鎬 上田宗太郎 川合商會 ▲三圓式 洪淳燮 崔錫七 李鍾得 金鳳鎬 明井夫人 佐佐木 李基燮 ▲二圓式 金昇鍊 韓鴻勳 金致萬 金永根 相井材木店 高橋寅一 金圭弘 張錫世 ▲一圓式 李元商會 海陸商店 李東龍 ▲石炭一噸式 陳茂潤 金利鍋 ... ▲白米一斗 ... 女高校 ▲白米五升 ... (以上元山)

오디라

三日(月曜)元始祭

◇午後六時 新春放送劇 릴레이(二)『호랑이할아바지』 金福鎭

◇同 六時三〇分 講演『新年所望』(二) 朝鮮日報社長 方應謨

◇同七時三〇分 獨唱
一、歌劇『카르멘』中에서 하바네라 비제ー作曲
二、조스랭의자장歌 고다ー르作曲
三、솔베이그의노래 그리ー그作曲
四、라·스파놀라 키아라作曲
五、小夜曲 슈ー베르트作曲
六、보아라어엽분종달새 비숍作曲
伴奏 CK管絃團 指揮 洪蘭坡 朴景嬉

◇同八時 大笒獨奏
一、平調會相 二、淸聲자진한닢 金永根

◇同八時十五分 一、平壤歌 二、제비歌 三、달거리 四、사철歌 金泰運 柳開東

◇同八時四十五分 唱劇 〃春香傳中御使出道하는데〃
配役 本官使道 金世俊 雲峰營將 吳太石 谷城郡守 林鍾成 御使 金光淳 春香 丁南希 春香母 朴綠珠 香丹 李素香 房子 韓山月 朝鮮聲樂研究會員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童話劇
◇同六時三〇分(東)演劇
◇同七時三〇分(東)奏曲
◇同八時(東)琵琶
◇同八時三〇分(大)淸元
◇同八時五〇分(大)歌謠曲

四日(火曜)

◇午後零時五分(東)箏件合奏 一、哀想曲『望春』 二、長唄『七福』 三、哀想曲『夏衣曲』 野田秋岳作曲 江東家樂會 指揮 小畑

◇同六時(平)童謠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우주이야기』 大陸生物學教室 ...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感想 (三) 書成專門教授 ...

◇同八時 雅樂ー李王職雅樂部 一、動動(鄕樂) 二、水龍吟(細樂) 三、萬波停息之曲(合樂) 李王職雅樂部

◇同八時二五分 라되오드라마 "아버지는새봄" 李瑞求作 配役 아버지…朴齊行 어머니…卜惠淑 아들…宋在潤 恩淑…韓銀珍 淑…金暎玉 人夫…李軒 人生 ...

◇同九時 一、花草四巨里 二、報念 三、農夫歌 吳太石 丁南希 金顯昭 申快童 韓永根 李少香 金桃枝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和洋合奏
◇同六時(大)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講座
◇同七時三〇分(自天津)
◇同八時(城)尺八
◇同八時二〇分(東)物語
◇同時四五分(大)瑠璃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順天支局
位置 順天邑榮町
支局長 林鍾根

謹告

今般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俗厚分局
位置 北靑郡俗厚面
分局長 韓鐸浩
右新任 分局長 李興国
右依願解任
朝鮮日報社 北靑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淸溪販賣所
位置 京畿道淸溪面
販賣所主任 崔興潤
朝鮮日報社 興水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海美分局
位置 瑞山郡海美市
分局長 金鎬植
朝鮮日報社 瑞山支局 白

後橋支局
位置 後橋門內
支局長 金相瀰
右新任
支局長 林龍根
右依願解任
朝鮮日報社 白

金村支局
位置 金村驛前
支局長 鄭宗爽
右新任
支局長 申泰永
右依願解任
朝鮮日報社 白

支局長 吳永植
右依願解任

長篇小說 林巨正【17】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송악산(十六)

메로바위에 사람이 올라간다고 여기저기서 바위를 바라볼때 청석골안식구들도 죽 일어나서 바라보앗스나 바위가 대왕당에 가려서 보이지아니하야 뒤석겨서 나타나는듯 사려지고 사려지는듯 나타나서 정신도코 멍하니 서잇는데 다시 들리는 회파람소리 목생이 자기를오라고 불르는것만가려서 허둥허둥 신발을 신엇다

다들 다시 안젓는데 회파람소리가 쭉편에 드려와다 백손어머니가 홍제 깜짝 놀라면서 『그게 내동생이야』 소리를 질르고 벌떡 일어나서 마주 회파람을 불엇다 회파람소리가 오고가는동안에 백손어머니는 아득한 아이적일이 생각에 떠올랏다 아렴풋한 꿈자취와 또렷한 회포같이 한데 『어듸를 가실라고 그러세요』 『바위에 가실래요』 『아이 꼬마도시지 거긴 갈데 어하세요』 달은안식구들의 말하는것을 백손어머니는 못들은체 하다가 나가면 백손어머니가 명석자리에서 질로 나려섯다 『우리네같은 혼자가시랍수잇나 내가 따라가야지』

『어듸를 가실라고 그러세요』 하고 물엇다 『글세 좀 수상스러우나 별별 어젓지』 『남녀소리를 내는사람은 아니까요』 『에 황천왕동이의안해는 자기남편에게로 갓가이와서 나직한말로 배돌석이의안해가 말을다한뒤 도에서 저건너로 가버렷세요』 시는걸 보터니 온다간다 말로 물으라고하다가 여럿분이 오고 대답하지요 또 무슨말을 차 청석골서 오지아니햇느냐고 못쓸터디 그때 마전서 왓다 하니까 우리들의 얼굴을 돌려다 보면서 잼 어지도록 드려다 보면서 점 올에 와서 청석골 임장사가 여기왓더니 어듸갓느냐고무 섯습되다 그런사람 업다고대답 『글세 몰르겟세요 나이 한이 십남짓한 젊은사람인데요 처음에 와서 청석골 임장사가 다 『지금 여기와 섯는놈이 웬놈인가』 하고 물으니 자리에 일어섯든 안식구중에 배돌석이의 안해가 아르고 나서서 대답하얏 저 리에 왓슬때 백손어머니가 먼 랄말까지 괴상하다 생각하며자 어갓다 서림이뿐아니라 달은사 태로 나려가서 못사람들으로 로 건너편길로 가다가 비탈아 한번 돌아보며 곳 빨리거름으 하고 소리를 치니 그사내가 『이제 왓나』 각 하고 서 자기네 갈곳을 뭇는줄로생 양이라 서림이는 거처반이가와 안식구들에게 무슨 말을뭇는모 나가 자리아래 서서 남어잇는 리로 올라오는데 의관한사내하 아플서서 그네터뒤를 지나 자 서림이가 말하고 여러사람의

『고만 자리를를 가십시다』 『나는 몸추러가시우 보기엔 우수어부 될 힘들더다』 『누님 여재 오시우』 『나도 바위에 올라갈라고』 『누님은 뭔 가』 각이 나서 여러사람이 말리는 혼자따로 올라가기는 적적한생 생도 별서 바위에서 나려오든대 또 이미 오든길에 깨젓고 동 꼴을짓고 동생을 쫓차온스니 잠 손어머니는 바위를 올라가지아 니하야도 백손어머니가 눈뜨고 이까지 모두 나서 말리어서 백 림이와 길막동이와 또 김억석 말하며 손목을 잡아끌고 서 『그러시요』 『망녕이지 어듸를 올라간다고』 안해가 천왕동이 할끄레 꽐로동이의 우 『당치안호한 말구 고만두시 『어듸 내좀 올라가보만』 『나무 최팍 아주 그러시고』 하 『지금 나이 좀 만키로서니설 『내가 올라가보면 나중 홀리가』 고 의파를 다시 차리엇다 『누님 여재 오시우』 러서서 손파람에요 잇기를 로 눈치채서 천왕동이는 때 나 결을 누가서 천천히 걸어오 리는듯 발비견튼 경과하지 제 백손어머니가 필연이 엑이쫄 『지작 울걸』 라가서 의관을 벗고 올 게 아서데』 『상서까게서 의관을 벗고 올 『저이가 벌서 나려오네』 이엇다 완동이는 바위에서 나려오는동 로바위를 으면서 바라보다 천 외가던 대왕당뒤를 돌아서 메 백손어머니가 천왕동이의안해 『이렇게냐』 다 『길에도 사람이 뭘게 말 하지 하고 발길이 돌아서 나려왓

年新捷戰賀

日本ポリドール販賣株式會社 朝鮮支店

資本金參拾萬圓
三好化粧品株式會社
專務 金晉泰
京城府慶雲町一〇一
電話光③一七二七番
振替京城一五九五八

京南

京城府西氷庫町 世豐布木商店 主 朴應澤 電話龍山一六〇六番

京城府吉野町一ノ七〇 吉野釀造場 藥酒 濁酒 燒酒 主 李□德 電本一三五一番

京城府西氷庫町一五 合資會社 永興硝子工場 代表社員 朴□□ 振替京城一九一二六八

電氣用材 ロクロ細工 木型製作 鄭昌熙商店 電話本局五四七四番

京城府西氷庫町 興進精米所 主 黃熙德 李重熙 電話龍山一三八四番

京城吉野町一丁目一〇〇 文明テント商會 電話本局三九七〇番 振替口座一三七八六番

大邱

大邱德山町 百貨店 共信 電話五九四番

大邱雜貨商同友會

大邱府幸町 外科一般 皮膚科 性病科 專門 杏雲堂外科醫院 徐昇海 電話一六六九番

大邱上西町 日光旅館 電話二四二番

大邱府內 琴湖館 電話二三九〇・八二〇一番

大邱府西千代田町三九 金台原

實用百貨 新然廉賣 慶新堂

昭和證券株式會社

達城郡公山面 桐華寺

橫町九八 李柄學

大邱啓星學校

大邱府錦町二丁目 天一ゴム株式會社大邱支店 金英俊 電話一四〇八番

徐丙朝

南鮮唯一의印刷業 活版石版 洋裝文具 大同社 大邱鳳山町大通 電話一八五七

大邱府本町 金聖在商店

大邱南城町一三 日本興國洋裝社 洋裝普及社 湖鮮總支部 主任 鄭龍守 電話一六四〇 振替釜山七六二五

大邱府德山町一二七ノ二 東亞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源璣 專務取締役 金斗性 常務取締役 琴容國

道會議員 金在煥

大邱產業組合 組合長 李相岳 理事 李鍾完 職員一同

達城券番

大邱府京町一ノ八四 金完燮

大邱府新町市場 大邱海陸產委托業組合 啓星社 三一商會 大東商會 永敏商會 朴命鎬 李正實 秋復坤 昌信商店 元山商會 鄭龍伯

製麵製粉 食料品並 果物問屋 大邱□町 三星商會 電話三四七

張稷相

大邱信明女學校

大邱府內唐洞 李墣錫

慶北道廳 食堂員一同

大邱橫町 明月閣 電話五二三

東城町 朱秉煥

朝陽無盡株式會社

大邱壽町 海東園 電話六五四番

大邱德山町 朝鮮料理 大東食道園 電話長六三六番

大邱府南山町七三番 光星硝子工業株式會社 電話八八〇番 釜山振替五五九九番

大邱大鳳町 金錫培

大邱府西千代田町 具芝書

玄風邑 姜相文

大邱府外梨堂洞 鮮光副業組合 電話一六七二 支所 大邱新町一二五 電話一七二六

大邱三製絲株式會社

大邱府醫師會

大邱府內 官公立中等學校長會

大邱西部金融組合長 鄭海鵬

慶北佛教協會

大邱府外新岩洞 太陽金庫工業株式會社

大邱 朝陽無盡株式會社 社長 徐昌圭

堅町四〇 張德均

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大安堂藥局 電話一四〇二番

大邱理髮組合

大邱壽町三一 成升鎬

大邱鳳山町 裵鼎基

大邱東雲町 辯護士 孫致殷

大邱米穀取引所

大邱府內 公立普通學校 公立商業實修學校 職員一同

玄風面中洞 金江嵐

京町二丁目八五 朴海克

大邱買鑛所 金在洙

大邱京町三九 秦喜墩

朝鐵自動車興業株式會社大邱出張所

杉原合資會社長 杉原長太郎

大邱府東城町三丁目四〇番地 藥種賣藥 有名賣藥 一山藥房 主 崔翰周 電話長一七五二番

大邱京町二丁目 度量衡器 金物商 大原商會 電話三七三番

大邱商工社 秋秉鉽

大邱 丸吉精米所 申春吉

大邱 金昌錄商店

大邱府元町二丁目五三 壽昌商會 電話長一七〇番

大邱金曜會

大邱院垈 永進精米所 吳宗煥 電話一五二一 長電話八九二番

大邱錦町二丁目二〇 大本精米所 秋秉和 電話五七五

大邱大和町七〇 大邱米穀取引所會員 Ⓜ 慶北商會 電一八七

內科 小兒科 順天堂醫院 金省局

大邱朝鮮酒 酒造組合

蘇鎭武

東亞堂樂器店

東亞堂藥房

大邱府西城町一ノ九五 鄭寅奎

大邱府新町 海陸物產 委托販賣 三益商會 康仁燁

玄風下洞 金潤奎

大邱 不二洋服商會朝鮮支店 支店長 許武烈

大邱南山町一九〇 土木請負 雙興號

京町一丁目 百合

大邱府市場町一五番地 三和護謨株式會社大邱出張所 主任 金禮俊

達城郡玉浦面龍淵町 金龍鶴

大邱元町一丁目三八 土肥發動機大邱販賣店 電話長一六一三

大邱南山町三九五 朝鮮煉炭株式會社大邱支店 梁潋洙 振替京山六八二

大邱府三笠町 慶尙北道菓商組合

大邱西城町一ノ五二 金元龍

大邱府西城町一ノ九一 藥汁煮器販賣所 徐鎭甲

大邱府京町二丁目 東亞紙物商會 禹昌亨 電話八八二

大邱料理屋組合

大邱府壽山町 德山醫院

大邱府外院垈洞一、一八八 三南ゴム工業社 長電話二五四番

大邱府明治町二丁目 桂南商店 電話一三四九番

大邱南城町 泰昌堂乾材藥局 電話八九一

大邱府市場町一五 絹布商 陸致雲 長電話七三三番

大邱北內町 和信旅館 鄭淵瑀 電六七〇六

大邱府新町一〇三 大邱オイル商會 朴在寬

西千代田四五 蔡古佛心

滿盛庵

大邱壽町三三 淸水園 韓取蘭

大邱堅町四三 金愚宗

古谷治輔商店 電話長七四

大邱府外內塘洞一〇三五ノ九 金鍾遠

大邱新町一九五 景春堂 電話九四番

大邱府京町救世醫院 李在榮

大邱實修學院

南城町一二四 復陽堂醫院 電話八六番

大邱府明治町二丁目四三 順興藥局 電話一六四七番

徐丙國

大邱布木商組合

大邱府壽山町三三六番地 德山精米所 申□和

大邱府旧町四一 康隴山

大邱壽町六八 曺圭容

王印ミクニ煉炭製造所 大邱三國商會

明治町二丁目二 東洋製絲染織工場

大邱八重垣町 明月館

司法書士 文輔元

玄風下洞 李相壽

大邱府南城町 金弄春

大邱本町一丁目六〇 東方帽子店

大邱府堅町一六一 大同紙物商會 電話九九七

大邱橫町一 銀海寺大布教所 朴雪醒

大邱 壽昌印刷所 電話一〇九八番

大邱京町一ノ二九 映畵劇場 萬鏡館 電話九八二

大邱府大和町 大邱米穀取引所會員 ㊀丸一商會 電話長一〇〇一番

大邱府三笠町 徐炳柱

辯護士 法學士 武尾禎藏 法律 特許 事務所

大邱府堅町 金星製絲所 電話長一八〇四番

大邱府德山町 李長春

大邱南城町 金弘祖 電話一五二八

慶北商工株式會社

大邱府本町二丁目二 和洋皮革 大昌皮革店 電話二〇七番

大邱府東城町三五 穀類 肥料 泰信商店 吳仲模

大邱府市場北通 金潤得

大邱東城町 靑邱洋靴店 尹炳斗

大邱府京町一丁目八三의一 長生小兒科醫院 醫學士 院長 金翔坤 電話一三一九番

坂本俊資

土木建築 請負業 李永實 電話一三〇四番

大邱府

共榮自動車株式會社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大邱支店

大邱府西城町一丁目 福來號布木部 長電九九四

市場町一八二 藥材物產 委托販賣 朝鮮商會 主 安極善

大邱無盡株式會社

達城郡

慶尙北道立 大邱醫院

大邱本町 絹綿物商 池一洪商店 電話八八八番

大邱稅務監督局 大邱稅務署 職員一同

大邱西城町 李相岳

大邱府東城町三ノ九 金相台

大邱府東城町三丁目 白十字藥房 趙鏞權 電二一八七

大邱府外壽城 秦相龍

大邱地方專賣局 職員一同

大邱郵便局 職員一同

三光醫院 金顯敬

大邱京町 好生堂醫院 院長 金鍾遠

大邱府南城町三十一番地 穀物貿易 農場經營 鮮滿產業株式會社 本社 大邱府南城町三二 電話一八〇三番 支店 新京市北安路六一八

大邱市場町 姜致雲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慶尙北道支部

東亞釀造場 電話九一七番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卸商組合

汶山

坡州郡 交友會員一同 電話四番

絹織 布木 紙物 雜貨 農具 石材 金在德商店 電話三三番

汶山驛前 永泉酒造場 主 李重淳 電話二五番

汶山驛前 相信精米所 主 金相允 電話二〇番

汶山驛前 定興商店 主 崔定鉉 電話二〇番

西南洞 鄭南熏

汶山 穀物貿易商 李熙星商店 電話三番

汶山 海産物貿易商 德盛商會 主 崔浩植

汶山驛前 廣濟藥局 沈實燮

汶山驛前 司法書士 朴忠緖 電話十六番

坡州公立普通學校 後援會

汶山驛前 司法書士 李鍾哲

汶山驛前 魚物 果物商 韓仲入

汶山驛前 穀物 雜貨 曺煥植商店

穀物 貿易商 延永南

砂糖 果物 宋八福商店

汶山驛前 ㊅運送店 黃文明

朝鮮 中國料理 汶一屋 電話一一番

汶山合資會社 社長 金德淵 電話七番

汶山驛前 韓百熙

仙遊里 雜貨商 李仁魯商店

汶山驛前 ゴム靴 金興用商店

汶山驛前 雜貨 酒類 李寬信商店

汶山驛前 司法書士 金文洙

朝鮮料理 蓬萊館 電話十八番

食料品 雜貨 專門 安榮奎商店 主 安榮奎

汶山驛前 各種菓子 麵類製造 張東玉商店

朝鮮料理 汶香館 電話二八番

汶山驛前 雜貨 賣買 李今用商店

魚物 果物商 韓仲燮

汶山驛前 明信堂時計店 主 崔斗成

汶山驛前 雜貨 麵類製造 金時駿商店

各種釀造 製造業 金完基商店

共榮精米所 主 崔浩大 電話三五番

汶山驛前 坡州醫院 電話三四番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三

時運進展에順應 膨脹하는土木豫算
水害對策으로五個年繼續事業
內務局長大竹十郎氏談

一陽이 來復에 乾坤이 維新이라 聖壽無窮하야 竹園生의 御榮이 隆昌하고 國運이 隆隆하야 日月과 다투는 昭代를 千代萬代로 奉祝함은 衷心으로 慶賀를 不堪하는바이다

때는마침 聖軍萬里、正義膺懲의出師는 中國의 野에 連戰連勝하야 皇軍의가는곳에 燦然한日章旗가 飜翻하야 春風에날림을 봄은 더욱 感激을 禁할수업는바이다。

如斯한 昭代의年頭에서서 感慨도 無量하나 가만히 國體의 淵源을생각하고 飛躍日本의 將來를생각할때 더욱 敬神崇皇의 大義를떠고 日本精神의 眞髓에 徹하야써 內로剛健한 國民精神의 根源을 養하고 外로 皇道의 世界的光被를 圖할必要가 업서서는 안되리라고생각한다

回顧컨대 昭和十一年八月에京城神社와 龍頭山神社의 御兩社를 國幣小社로 列格하압시고 繼續하야 客年五月에 大邱神社와 平壤神社의 御兩社도 同樣으로 國幣小社에 列格하압시엇음은 다 如斯한 皇道宣布의 기프신大御心에 基한것으로 拜察하고 恐懼感激을 바지게업다 就年頭를 當하야 삼가聖慮를 畏하고 [illegible] 日本의 世界的地位와 躍進朝鮮의 重要性에 鑑하야 半島의精神文化建設을 爲하야 務를邁進하야써 聖旨에奉答하는바가 업서서는 안되리라생각한다

朝鮮의 地方公共團體는 社會의 進步發展을따라 最近에 顯著한 發達을이루고 特히 昭和十二年度와가는것은 中等學校及朝鮮人初等學校의擴充、中小河川의改修及市街地計畫의 實施等 新規事業이 擴張計畫되야 從來에보지못하든 活況을呈하고 新興朝鮮의 意氣 旺盛함이 잇섯스나 支那事變이 發生한것이 잇섯스나 支那事變對策으로서의 資金調整及緊縮其他軍需資材의 使用制限의 趣旨에 順應하야 事業實施에 若干의 變更을 加하고 그一部를 不得已延期하게되엿다 그러나 朝鮮人初等敎育機關의 擴充計畫과가튼것은 同事心이 旺盛함에비치워 또朝鮮의 將來를 생각할때 더욱其進捗을 要하는 勿論이므로그施行期間을 短縮實施코저調査中이오 어에順應할 財政計畫及地方民衆의 負擔의 增加에對하야 愼重調査硏究를 거듭하고잇는바이다 또市街地計畫에잇서서도 主要都市中에 그가장急施設을必要로하는京城、羅津、淸津及城津等에 잇서서 區劃整理事業等을 實施하고 擴張하야이를他都市에 미치게할 計畫이며 時局의 關係上 資金의 調達이 可能한範圍에서 될수잇는限、進捗을圖하야 都市의 膨脹發展에 卽應케하려하고잇다

事變第二年을마저北支와 接壤의地位에 잇는朝鮮에 잇서서는 軍需資材의節約、資金의 調整에 對하야 더욱 其强化를 圖하야서 國策의 遂行上 遺憾이업게할 準備가 緊切함을 痛感하는바이므로 地方公共團體에 잇서서는 右趣旨를 充分諒解하고 新年度의新規事業은 勿論이오 既定事業이라도 此際에緊急하야 中止할수업는것외에는 極力將來로 延期하야 資金及資材의 調整을 期하는同時에 事變終熄後의 發展에 準備하는 注意가 必要하다고생각한다 一般民衆各位도 그援助協力에對하야 格別한 留意를切望하는바이다

皇后陛下께압서는 今次支那事變을 當하야 出征及應召軍人遺家族에 對하야기괴御心을 軫하압시여 昨年九月二十一日에 고마우신 御歌와하께 銃後의 援護事業에 對하야 多額의 御內帑金下賜의 御沙汰가잇셧고 다음 十一月二十日에 거듭支那事變에잇서서戰死또는 殉職의臨海軍將校以下及 [illegible] 御歌下賜의 聖旨에 拜承하야 거듭거듭 두터우신 御仁心에 奉對하야 國民이 一齊히 感泣하는바이다 本府에서는 그때마다 卽時 各道에 通牒을 發하야 어기프신 御仁慈를 奉戴하고 더욱 內鮮一體로 서로가치 銃後援護事業에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遺家族의 扶助慰藉에 萬全을 期케한바잇섯다

昨年七月七日에 支那事變이突發하자 即時通牒을發하야 入營應召軍人의 家族으로 生活이困難한者를 調査하야 그扶助對策에 遺憾이업기를 期케하얏고 同時에 時局에對處할 軍事扶助法施行細則의 發布를 急速히하야 從來府令에 依하든것을 廢止하고 새로道令으로써 各各地方의 實情에卽한 細則을 施行케하는同時에 그趣旨 內容手續等에 關하야 關係者는 勿論이오 一般國民에 對하야 周知徹底를 圖하는 措置를 講究하엿다

爾來 軍事扶助에 關하야는 恒常地方에對하야 指導督勵를加함은勿論이오 前後二回에 巨하야 直接事務擔任者를 本府에會同하고 軍事扶助法及入營者職業保護法等의 活用에關한 實務上의 研究協議를하야 事變發生以來全幅의努力을 遺家族의 扶助에 傾注하여왓는바 昨年八月以來 昨年三月까지에 軍事扶助法에 依하야 扶助를밧는者約六百이오 이에要하는 扶助費가十七萬圓에達할 豫定이다

一方 事變의 長期繼續에 對處하기 爲하야 全鮮을 合하야 一團으로하고 衆力을 合하야 秩序統制잇는 銃後의 活動을 繼續할 必要를 認定하고 昨年七月下旬에 各種愛國團體가 一齊히 蹶起하야 中央에 朝鮮軍事後援聯盟을 結成하고 繼續하야 各道府郡邑에서도 이와呼應하야 各各同樣의 結成을 보게되엿는 當時新聞紙上에 揭載된바와가티 그리고 此等各地의 聯盟에加盟한 團體數는 二千五百餘에達하야 거이 全半島民衆의 太半

事變에 際하야 內鮮一體로 熱烈한 愛國의 赤誠을 披瀝하야 銃後의 守護를 鞏固히하고있음은 眞正으로마음을 든든하게하는바이다

軍事後援聯盟의 事業으로는一般國民에對하야 軍事援護觀念의 强化徹底를 圖함을 爲始하야傷病軍人並軍人의 遺家族에對한扶助及 弔慰問、應召軍人並그家族에對한 職業上의 斡旋出征또는 應召軍人에對한 送迎接待等 대개 銃後後援에關한 各般의 事項을 實施하고잇는데 그中에도 扶助關係에 對하야는 特히 힘서公的扶助를 바들수업는者에對한 扶助는 勿論이오 扶助를밧고잇는者에 對하야도 扶助費의 補給또는 代身繼續을 爲하고잇고 現在此等의 扶助를밧는者六百四十戶요 그金額 二萬圓이다 그리고 此等의 事業費는 當場六十萬圓을 一般의 寄附를바다 이에充當하고 軍事扶助法의 疑勵과相俟하야 扶助의 完璧을期하고잇는바이다 그리고 朝鮮軍事後援聯盟은 內務局社會課에서 그事務를보고 各地方의 聯盟을 指揮統制하는 同時에 그自體로서는 벌서十餘萬圓을 支出하야 傷病軍人並軍人遺家族의 弔慰、出征應召軍人의 送迎接待、軍事援護에關한 印刷物의 刊行等 隨時로 適當한事業을 實施하야왓다 特히 九月上旬으로부터 下旬에亘하야 阿部副會長、柳生社會課長等 一行八名의 北支皇軍慰問團을 派遣하야 北支出征將兵의勞를 慰하는同時에現地의狀況을 視察하고 라디오또는新聞紙를通하야 一般으로 報告를한것은아직도한 周知하는바이다

現今 首都南京의 陷落을보게되엿다고하야도 局面의 展開와事態의緊迫은 容易히 豫斷을 不許한다 本府에서도 今後에 또한 軍事後援聯盟으로서도 今後에 또한 事業은不渝하야 더욱國民各位의 協力에 依하야 全幅의 努力을 傾注하야 銃後의大任을 完成하기를 期하고잇는바이다。

水害를 不逞하야 昨年四月中旬에는 黃海、平壤及咸南을 除한 十道에 亘하야 甚大한 風水害를입고 또 七月中旬에는 平北忠北의 二道에 局部的大水害를 입엇다 이兩次의 風水害에잇서서 死傷者七百六十餘名、家屋의 被害 四千餘戶에 達하고 道路堤防、橋梁그他交通、通信機關의 被害、耕地農作物의 被害等이 甚하고 罹災民의 窮狀은 진실로 憐憫의情을 不禁하엿다 本府에서는 即時 그善後措置에 關하야 關係道와 協力하야 各各應急對策을 講究하엿스나 多幸히 罹災民의 澎湃한 更生의 意氣에 依하야 漸次 復興을 보게된은 마음이 든든하게 느끼는바이다

惶恐하압시게도 皇室에서는 깁히 此等 罹災民의 窮狀을 御軫念하압시여 그때마다 多額의 御內帑金下賜의 恩命을 拜한것은 진실로 恐懼感激을 不堪하는바로 今後 誠意奉體하야더욱 窮民의 赤誠을 効則하야 速히 災禍에 對한 根本塞源의策을 講究하는同時에 各種社會施設의 活動을 促進하야 民衆의 生活安定에 充分한 努力을 할覺悟이다 近時各種資源의 急速한 開發에 伴하야 半島工業界는未曾有의 活況을보아 昭和十二年度에는 一般工事費 一億八千萬圓에 達하고 最盛期에 잇서서의 一日의 所要勞働者는 넘더히 三十萬을 突破하는 情勢를 呈하게되엿다 先年來 地方廳協力下에 過剩人口의緩和 勞力의 調節 西北鮮開發促進等의 見地에서 南鮮地方의 窮民을 西北鮮各種工事에 移動就勞케 하여왓는데 最近과가티 多量의 勞働調整의 遂行을 必要로함에 當하야는 勞働者의 大部分을 無經驗한 農民中에서 求할밧게업는 朝鮮에서는 一大苦心을要하는바이다

따라서本府에서는 昨年에 그對策에 留意하야 從來의 經驗을 基礎로하야 慎重한 研究와 審議한결과 [illegible] 關係官民을 本府에會同하고 [illegible] 數次 協議한 結果 三月下旬부터 [illegible] 開始하엿는데 多幸히 各係方面의 援助를 어더 [illegible] 豫定한 一萬五千人의 移動을 完了한 外에 各道에서도 各各 相當히 多數한 勞働者를 [illegible] 工事에 移動就勞케하엿스니 前途로 기뻐게생각하는바이다

그리고그就勞의 狀況을 보면 [illegible] 勞働者의自覺의 向上에 依하야 從來에업든 好成績을 收하고 잘更生의 實을 擧한 者가不少하다 特히 最後까지就勞한者는 모두七、八個月의 間에 [illegible] 百四十圓、普通五、六十圓以上의 貯金또는 郷里送金을 하고 또彼等中에는 [illegible] 二千金을醵出하야 國防獻金에 獻納한 二、三의 團體도 잇서 매우마음 든든히 하기에 足하다 本年에잇서서는 農工併進政策에 伴하는 各種工事의 勃興特히 金增産政策의 遂行上 勞働의 需給調節은 一層 重要性을 加重하는 [illegible] 從來에 類例업는 勞働調整上의 困難에 逢着하리라 豫想되는데 既往의 實績에 徵하야크게自信으로써 此非常時局의 勞働調整에 一層의 努力을 傾注하고 십다고 생각한다

以上은 過去一個年間의 社會事業關係의 主要實施事項이나現下 朝鮮의 社會情勢는 더욱社會事業振興의 急要를 促한다 罹災救助制度의 確立、勞働調整의 强化와 이에伴하는 職業紹介機關의 擴充을 爲始하야 公益質屋及方面 委員制度의 普及、兒童保護施設의 充實、社會法制의 整備等 今後 施設經營할것은 不少하며 [illegible]

[illegible] 昨年의土木事業은 [illegible] 約四千萬圓 [illegible] 右事業中에 主要한것을들면 [illegible] 一千萬圓 [illegible] 河川改修事業은 [illegible] 二百五十三河川中에 昨年 [illegible] 鮮內資源의 開發 [illegible] 仁川、多獅島、城津、淸津西湖及 [illegible] 等八港의 修築擴張 [illegible] 六十萬圓으로 漢江、萬頃江、大同江、龍興江、三陟川、東津江、榮山江及南江放水路等의 改修 [illegible] 第一期治道、國防道路、北鮮拓殖道路、風水害復舊工事及 [illegible] 하려하는것이다。

朝鮮人初等敎育

倍加計畫促進 機會均等을實現
鹽原學務局長談

坤輿一轉하야 萬象이只今새롭다 이에 皇紀二千五百九十八年 昭和十三年의 新春을 마증함을하야 삼가 聖壽의無窮을빌고 竹園生의 御彌榮을 奉祝한다

顧起컨대 昨年은 瑞雲이 비끼는 東亞를우러러 멀리 我帝國의大精神과 天業이 恢弘한 大理想을 생각할때 無限한努力과 萬難의克服에依한 我國運의 飛躍的進展어 衆多의 條備한 歷史的事實을 通하야 마치 그림에가티 眼前에 展開하고 億兆가 一心하야 代代로 그美를濟하야온 皇國日本의 眞姿를 如實히 觀取하야 御民인 我等에 眞正으로 사는 喜悅이 잇는 感激을 切實히 感하는바이다。

只今 忠烈無比한 皇軍의將兵은 支那膺懲의 聖戰에 一死報國으로 萬難을排하고 皇道의 宣揚에邁進하고 銃後의 國民도 잘 愛國의 赤誠을 捧呈하야 內鮮一體로 相需協力하야 皇軍의 [illegible]에 努力하고 我國國體의 實徵에 依하야 東洋平和의 確立과 世界光被의 聖鉞가 將次實現되려하는 것을 가까웟스니 진실로 同慶을 不堪하는 바이다。

이에 瑞氣가 漲溢한 新春의 明에잇서서 皇運隆昌의 實相에 眞할수업는 感激을 覺하는 同時에 다시 明日의 躍進에 備하기 爲하야 不退轉의 國民的 氣魄으로써 萬難을 排除하고 恒常淸新한 氣分을 維持하야 當面의 諸問題를 新角度로부터 檢討하야 그解決을 適切明快케하고 [illegible]하야그를 實踐에 具現할 必要가 痛히 切迫함을 痛感하는바이다。

대개 教育事業은 相常時勢를 大觀하고 時勢에 適應하는 同時에 時勢를 指導하는 根本原理를 明確히 把握치안흐면 안된다。我半島에 잇서서는 일즈감敎事의 刷新으로써 文運興隆의 根基를 삼고 國民精神의 啓培로써 國民敎育의 根幹를 삼아오는것으로 特히 今日과가티 國民精神總動員下에 擧國一致로 時艱의 克服에 邁進하는 이때에 一層그 涵養振作의 必要가 切實함을 感한다 本府에서는 이에보는바잇서 時勢의 趨向과 國運의 進展에 對處하야 遺憾이업기를 期하는 趣旨에 依하야 半島學制의 刷新에 關하야 精神한 檢討를 加한 結果 普通教育에 잇서서 內鮮人教育機關을 統一하야 眞正으로忠良한 皇國臣民의 育成을企圖하고 또 最著에 樹立된 朝鮮人初等教育倍加計畫을 促進하야 가까운將來에 教育의 機會均等을 實現하야 眞正으로 內鮮一體、上御一人의 大御心을 奉體하야 小異를捨하고 大同에就하고 小我를殺하고 大我에生하는『和』의 大精神에 徹底케하고 또教育의 實際에 當하야는 그勞作化를 圖하고 生徒兒童의 根本能力을 練磨하고 各種作業에 邁進하야 勤勞精神을 涵養하는 同時에 敎育의 全野에서 一心身을鍛鍊하야 忍苦持久와 堅忍不拔의 志操를 確乎케하고 强力有爲의 眞正한 日本人을 造成하야써 皇道의宣揚에 遺憾이업게하기를 日夜로 念願하고잇는바이다。

그러나 國民精神의 涵養振作은 單純한 規則上에서 이를形式化한다고 決코 成就될것이아니나 根本問題는 要컨대 敎育者 그사람에게잇슴은 더말할것이업다。

他를敎化하려하면 爲先 自己가 [illegible]라지안흐면안된다。敎師그사람이 蹶然斯道의 實行者라는 强한信念에徹하고 自己가 가르치는子弟를 태울수잇도록 實踐으로써 斯道를說하여야만 眞正한 德化薰染이되는것이다 敎育者로서 萬若 이點과 愛護를缺할때는 千百의法規制度도 決코그特色을 發揮할수업는것이다 나는年頭를 當하야 非常時突破의 根本動力을 敎養할重責을 진 半島의 全敎育者에게懇切히 自奮自勵를 希望하는것이다。

惶恐하압시게도 明治大帝께압서는 明治二十七年七月十一日에東京帝國大學의 卒業式에 行幸하압시여 親히 久保田文相을 御前으로 召하압시고 軍國多事한때라도 敎育의 事業은 綿密히 할수업다 그局에 當한 者는 잘勵精하라고 優詔를 下하압시엿다。

只今時局은 더욱重大를 加하는이때 大帝의 고마우신 叡旨를 拜하야 吾等敎育事業에 當하는者는 特히 感激을 不堪한다

저友邦獨逸이 敎育立國으로써 國是를 삼고 明日의 飛躍의 基因을 盛하고 大戰直後에잇서서 三箇의 大學을 設立한 敢然한 氣魄은 吾等이 取하야 模範하에足할것이라고 信하는바이다。

吾等은 新春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하고 時勢의 進運에 伴하야 敎育全般에 亘하야 [illegible] 加하야써 더욱 昭和 聖代의 [illegible]과 半島敎育의 興隆에 對하야 渾身의 努力을 傾倒할 覺悟를 確乎히 하는것이다。

年頭를 當하야 오로지 所懷의 一端을 述하야 迎春의 賀辭에 代하는바이다。

先進制度를模範 行刑制度刷新企圖
刑務官練習所設置는朝鮮刑政上劃期的
法務局長宮本氏談

光輝잇는 昭和十三年의 新春을 마지하야 恭遂히 聖壽無疆을 奉賀하고 國民이 一齊히 皇室의 御繁榮과 國運의 隆昌을 奉祝함은 진실로 歡喜하야 마지안는바이다。

昨夏 暴戾한 支那膺懲의 師를 進한以來 忠勇義烈한 皇軍은 着着國力을 賭하야 陸에 海에 空에 連戰連捷하야 아직半歲가 되지못하엿는데 이미 首都南京을 攻略하야 支那軍에對하야 壓倒的打擊을 與하야 正義日本의 威武를 中外에 宣揚한것은 眞實로 欣喜雀躍에 不堪하는바이다。바야흐로 東亞의天地는 我帝國과 滿洲國과 伊國二國과의 提携에 依하야 防共陣은 더욱 堅固케되고 特히 我帝國의 滿洲國에 對한 治外法權의 撤廢、伊國의 滿洲國承認、北支明朗化運動의 出現等에 依하야 漸次黎明의 曙光을 볼수잇게되엿스나 頑迷한 支那政府는 아직積年의 迷夢으로부터 覺醒치못하고 依然容共以夷制夷政策을 維持하야 抗日을 繼續할뿐아니라 英蘇外二三列强의 我帝國에對한 態度도한 歸然치못한바잇서 事態의 推移는 俄然逆睹하지못할바가잇다 如斯한情勢下에잇스므로 我國民은 年頭에際하야 더욱이 曠古未曾有의 時局을 再認識하고 上下一心和協하야 크게 皇國精神을 振起하는同時에 各其그本分에 勤勵하고 銃後의防護를 益益鞏固히하야 軍民一致不撓不屈鐵石의決意로써 時艱克服에 邁進하야支那를膺懲하고 그反省을 促하야 我帝國과 提携케하야써 我國是인 東洋永遠의 平和를確立하고 나아가 世界의 文化建設에 貢獻할 意氣와覺悟를 堅持함이最緊要하다고思한다。

이非常時局에 際하야 不肖하나마 法務局長의 重任을 拜함에 對하야는 非才이나마 半島司法의 使命이 益益重且大함에 鑑하야 一意專心粉骨碎身의 努力을 傾하야 任務遂行에 微力을다할 覺悟임으로將來一層支援과 御鞭撻을 여주기바란다。

輓近半島의 人口增加、交通機關의 發達、各種事業의 勃興、商取引의殷盛、其他社會의 複雜化에따라 民刑事事件은 逐增의 趨勢를示하야 그內容이또한 複雜하게되고 特히登記事件의 激增은 顯著하야、職員의事務負擔이 甚히 加重하야、施設의擴充과 職員增加가 必要하게되엿다 그런데昨年度에잇서 判檢事의增員을 보게되어 [illegible] 同時에 從來檢事의配置업든 原州、密陽、淳山의四支廳에 檢事를 分局에 專任檢事를配置하고 同時에 同支廳에서 登記事件을 事務케하고 또大邱地方法院金泉支廳、京城地方法院東大門出張所、同法院龍山出張所及公州地方法院 [illegible]出張所를 新設하고 昨年十一月一日부터 民刑事訴訟事務、登記事務等을 取扱하게된것은唯制裁判所及檢事局의 陣容을整備할뿐만아니라 이에 依하야 地方民의 享受하는利便이 極히大한것을 생각하매 同慶不已이다

此外 司法規改正調査委員會設立 裁判所及檢事局書記課의分離를비롯하야 釜山地方法院晋州支廳의 新築及公州地方法院의 大田邑에로의 移轉新築工事着手等도行하엿다 右中司法規改正調査委員會는 民事刑事其他司法關係法規의 改廢又는 制定에對하야 調査研究하는機關으로 昨年四月十七日設立되여 第一着手로 朝鮮人의 身分法規制定에 對하야 調査研究하기로 決定하고昨年度에 二回委員會를 開催하고、一部의 議案에對하야 審議를了하엿는데 今後에도 繼續하야調査研究할豫定이다 또 書記課의 分離에 對하야는 從來 裁判所及檢事局을 通하야 一個의 書記課를 設定함에 不適當하엿든바 裁判所와 檢事局과는 各其 [illegible] 事務內容은 勿論、그系統도 相異한 法規도 달리하야서로干犯하여서는아니될 別個官廳으로 그職員을 截然分離하야 [illegible] 八月十六日 以降裁判所와 檢事局에 各各獨立的 書記課를設置하고 또裁判所에잇서서는 同樣으로 [illegible] 書記課에 [illegible] 하기로되엿다。

다음은近年受刑者는 漸次增加하야 [illegible] 刑務官練習所 [illegible] 行刑制度를刷新 [illegible] 그리고 受刑者의 處遇에 [illegible] 同年五月 [illegible] 十一月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 [illegible] 受刑者에對하야는 [illegible] 行刑成績에 따라 [illegible] 處遇를 緩和하야 漸次 社會生活에 接近케하는同時에 刑務作業에依한職業訓練과 相俟하야 自發的으로 改悛을 促하고 [illegible] 社會에 復歸케하기를 目的하고 [illegible]

[illegible] 思想犯保護觀察制度가 創設되지 아직 日數가 얼마되지 [illegible] 被保護者中에는 全然轉向하야 今回의 事變을當하야 自進하야 神社參拜、國防獻金、軍用馬糧秣取作業의奉仕、防護團에參加、其他의愛國運動에 赤誠을물하야 熱心하는 者를 生하게되엿다。 또 刑務所에 잇는收容者도 時局에 覺醒하야 [illegible] 自己가服하는作業에 依하야 [illegible] 緊張과自戒의 態度를보이어 [illegible] 勉勵하는傾向이 顯著하게되고 더욱그作業으로因하야어든 賞與金의一部로써 國防獻金에 充當하기를 請願하야 昨年末까지의 獻金總額은 實로 一萬餘圓에 達하는 狀況으로 國家를爲하야 진실로慶賀를不堪하는바이다。

생각컨대 司法及行刑制度와司法保護事業이 完備하야 充分한 機能을 發揮하고못하는 國家의 綱紀維持는 勿論 民衆의權利의伸張 生命財産의安否에關하야 그休戚에影響하는바 極히 大하므로 半島文化의 進展에伴하야 此等施設의 擴充强化 職員의 充實增加 그待遇의 是正向上 現行法令制度의 刷新改善 事務取扱의 合理化 少年法其他의 法令의施行等 생각하야보면 將來에 할事業은 頗多數이다 國家財政과의 關係도잇서 갑작이 所期의目的을 達成하기 難한事情도 잇스므로 財政이 許하는範圍內에서 漸次로 그實現을 期하고 시프다 其他 이에附隨하는 諸位의 理解와 助力에 依함이 不少하므로 將來에 一層同情과 支援을 希望한다 特히司法保護事業에對하야는 刑事政策의 要求에 基하는 社會防衛上의 見地와 社會政策에 立脚하는 人類相愛互助의 精神에 立脚하므로 一般社會人士도 充分한 關心과 깁흔 理解로써 一層 援助를 주기를 希望한다。

最後에 臨하야 司法部職員은 時局이 더욱 重大하야지고 自己의 職責이 더욱 重하야 짐에 鑑하야 一層 一致團結을 鞏固히하고 職務精勵하야 各各 其職務에 全力을 傾注하고 他에 率先하야 銃後奉公의 赤誠을 다하기를 切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年頭를 當하야 오로지 所懷의 一端을 述하야 一般의 留意를 希望하는바이다。

002377

賀正 戊寅元旦

楊口郡 楊口郡農會

楊口酒類醸造商會 代表 崔昉爀

亥安面公普校後援會一同

楊口郡亥安面職員一同

方山面職員一同

楊口金融組合

楊口面職員一同

楊口郡 儒林一同

楊口郡南面事務所 職員一同

水入面事務所 [illegible]

北面職員一同

楊口郡水入面印壩里 有志 朴昌洙

松日里 鮮滿釀造場 主 權長福

文登里 龍興商會 主 趙龍成

楊口郡水入面文登里 金泉湧商店 主 金炳吉

文登釀造場 主 金鎭九

亥安酒類醸造場

楊口邑 內鮮旅館 主 安榮植

水入國有林保護組合聯合會職員一同

楊口邑監理教會 牧師 [illegible] 傳道師 [illegible] 媬姆 [illegible]

楊口郡北面公須里 黃義東診療所

亥安面濟世醫院 李文卿

亥安面金憲植商店

第一商會 主 金聲鍊

楊口金融組合 組合長 崔斗範

占方里區長 朴載助

長坪長泉醸造業 兼野村生命方山代理店 主 李東圭

楊口商店 鄭東洙

江原道楊口 公醫 玉慶植醫院

亥安 旅人宿營業 李春明

楊口金融組合 長坪支所

江原道楊口邑 太應善支店 主任 金實煥

楊口邑內市場 貨泉商店 主 朴萬善

廣濟醫院 院長 李康烈

芙江

清州郡芙蓉面芙江里 錦湖農場 金洛基

京釜線芙江驛前 永興園 主 張琦源

忠北清州郡芙蓉面芙江里 芙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清州郡賢都面職員一同

◉朝鮮運送株式會社 京釜線芙江驛前 芙江代行營業所 代表者 禹順弘 主任 朴東培 書記 朴憲玉 同 黃壬童 同 黃道周

清州郡芙蓉面芙江里 芙蓉面協議員 芙江公普父兄會長 金融組合評議員 全瑞鳳

京釜線芙江驛前市場 綿布 絹木 穀物 肥料 石油 商主任 禹德三

京釜線芙江驛前 有志 金哲均

京釜線芙江驛前 有志 洪元杓

清州郡賢都面竹田里 酒造株式會社 賢都工場

清州郡賢都面竹田里 吳熙元

清州郡賢都面柿木里 天昌鑛業所 吳永吉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禹榮準商店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盧載庚商店

京釜線芙江驛前 米穀商 金東煥

京釜線芙江驛前 藥種商 朴來九

京釜線芙江驛前 鄭大溶

京釜線芙江驛前 米穀商 黃龍源

京釜線芙江驛前 米穀商 方漢甲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商 李鍾寶

京釜線芙江驛前 綢緞布木商 柳根默

京釜線芙江驛前 日新理髮舘 主 林五福

泰平

東仁金山 泰興金山 鑛業事務所 金鳳炳

六寶金山鑛業所

谷泉

泰平面事務所 面長 金啓洽

平北寧邊郡泰平面舘下洞 製材薪炭商主 朴昌浩

平北寧邊郡泰平市 朝鮮料理 泰平舘 白明道

平北泰平市 和山醫院 醫師 鄭秉洙

平北泰平市 金盛商會

泰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平北泰平市 木村吾一

平北寧邊郡泰平市 李熙明商店

三光精米所

平北泰平市 [illegible]

平北泰平面舘下洞 有志 朴龍浩

信濟醫院 醫生 文英圭

泰平 有志 金龍基

泰平 有志 金燦年

李熙烈

天台

朝鮮黃海線天台驛前 殖産精米所 主 宋德仁

延白郡龍道面天台市 面長 任錫宰

黃海道延白郡龍道面天台市 天台金融組合 理事 曺日煥

黃海線天台驛前 濟生醫院 醫師 林正燮

黃海道延白郡龍道面天台市 林陽燮

延白郡龍道面天台市 朝鮮料理 明月舘 主 朴世權

黃海線天台驛前 天台材木店 主 鄭舜元

黃海線天台驛前 富士號 王宮號 自轉車 發動機 光興自轉車商店 主 林炳國

黃海線天台驛前 鮮文堂 主 崔榮燦

黃海線天台驛前 藥種商 沈鍾諾

延白郡龍道面天台市 絹織布木 張天洙

黃海線天台驛前 絹織布木 千光弼

戰時經濟的措處 中央의方針에順應

大體豫期의効果收得

水田財務局長談

故에 乾坤一擲의 戰時體制下의 昭和十三年新春을 迎하야 [illegible] 支那南北의 山野에 轉戰하야 잘 頑敵과 싸우고 缺乏에 堪耐하야 [illegible] 皇軍將兵의 勞苦를 [illegible] 昭和十二年은 [illegible] 七月七日의 盧溝橋事件에 [illegible]

[illegible] 中央의方策에 順應하야 [illegible] 豫期의効果를 收得하엿다고 [illegible]

財務行政에 關한 方面에對하야 이를 보건대 租稅에잇서서는 去春 內地에잇서서의 稅制의 整理에 關聯하야 四月一日에는 朝鮮의 稅制의 改正을 實施한 特殊事情을 斟酌하야 臨時租稅措置令의 實施、資本利子稅의 改正、法人資本稅、外貨債特別稅、揮發油稅의 創設、그他의 改正을 行하야써 內地의 稅制整理로하야금 其目的達成上 遺憾이업게하도록 協力하얏다 北支事件이 勃發하자 政府에서는 事件에 要할 財源의 一部를 補充하기爲하야 臨時的 新稅를 徵收하기로 方針을 決하고 朝鮮에 잇서서도 八月十二日에 朝鮮北支事件特別稅令을 公布하야 即日 施行되엇는바 本稅는 所謂 非常時立法의

特別稅

로 創設된것으로 稅令의 施行期間도 爲先 一個年間으로하고 또 그負擔은 一種의 戰時獻金의 意味를 가지는데 그特色이 잇섯다。그後 十月五日에는 出征將士로하야금 後顧의 憂慮가 업게하고 銃後의 其關係者의 生活安定을 圖키爲하야 支那事變 從軍軍人軍屬에 對한 租稅의 減免、徵收猶豫等에 關한 法令을 公布實施하고 出征軍人及 軍屬 又는 遺族의 人에對하야 第三種所得稅、地稅、營業稅의 減免을 한다하며 一定한 境遇에 잇서서는 徵收의 猶豫를 認하기로 한것인데 此等措置는 稅務行政上의 非常時的 諸施設로서 租稅方面의 協力과 理解下에 圓滑히 되고잇다

輸入에

經濟界의 狀況을 도라보건대 昨年中의 貿易總額은 十月까지의 實績은 對外貿易輸出九千四百萬圓 輸入一億九百萬圓을 算하야 再昨年의 同期에比較하야 輸出에잇서 五割八分 輸入에잇서 一割六分의 增加를 보이고 對內地貿易은 移出四億二千六百萬圓 移入六億四百萬圓에 達하야 亦是 昨年同期에比較하야 移出에잇서 三分 移入에잇서 一割四分의 各增加를 示하야 新記錄을 現出하얏다 現下 外國品輸入에 對하야는 臨時措置等에依한 輸出入品에對한 統制가 되고잇음에不拘하고 如斯한 盛況을보고잇는 原因은 鮮內產業의 活潑한 進展의 結果이라고 할것이나 他面 滿洲國의 健全한 發展등에 따라 鮮滿經濟關係는 드디어 緊密의 度를 加하게된 現在로 將來의 我朝鮮의 通商에 對하야 [illegible]

此等의

情勢에 對應하야 昨年中은 我國境關稅의 免稅制度의 擴張 北鮮三港利用促進을 爲한 特殊制度의 設定、鐵鋼及燃料國策에 關한 斯業의 保護等

港灣의

修築等 各種土木事業의 施行과 相俟하야 治山、治水、鐵道 [illegible]

銀行의

[illegible]

金利의

[illegible]

調整키

[illegible]

終了한

[illegible]

列國投資錯綜

北支開發上考慮點

日本

日本의 北支에對한 經濟的權益은 借款으로서 財政部關係의것約五千三百四十四萬三千元、交通部及鐵道關係의것 八千八百三十萬元 地方機關、個人、會社에關한것 一千二百四十二萬元、이에 假定利子를 加하야 約二千萬元으로 三者合計約一億二千百萬元으로된다。그리고 此外正式借款으로 利子를 包含치안흔 交付金으로 津浦鐵道約二千百萬元、平綏鐵道一千四十萬元、膠濟鐵道四千萬元(濟南鐵道一千八十五萬五千元)平綏鐵道一千萬元、計約一億二百三十萬元으로된다。또 鑛山投資로 山東、河北、山西의것을 合하야 約一千二百五十萬元이잇다 이제 이세가지를 合計하면 約二億四千萬元으로 이에 直接事業投資 一億八千萬元을 加하면 四億二千萬元으로되어 大體五、六億元程度에 達하리라고 推算되고잇다。

◀鐵道借款

北支에잇서서의 日本의 鐵道借款은 津浦、平漢鐵道에서 一部借款、平綏鐵道에의 列國과의 共同借款、膠濟鐵道에의 單獨借款、濟順未成線借款等이잇다。그러나 此中 津浦、平漢鐵道에의 借款에 對하야서는 英、佛國의 權益을 말할때도 記述하엿음으로 여기서는 略하기로한다。

平綏鐵道=이鐵道는 支那自營鐵道中 第一가는것으로 日本東亞興業會社로부터 借款을어더 完成한것이다。그借款은二千四十萬元인바 此外 英、米、獨、白의借款도잇다。

膠濟鐵道=이鐵道는 一九一四年靑島占領의際 日本管理로되엇다가 一九二三年 支那에引渡하얏는데 鐵道補償金은 一九三二年現存額元利合計 四千五十萬元이다。

濟順鐵道=未成線인바 一九二九年末 計算에依하면 日本의現存借款額은 二千八十一萬五千二百五十四圓이다。

◀鑛山權益

博山炭鑛=이炭鑛의 主要한鑛區는 二十餘인데 그中 가장有望視되는것은 黑山區로 資本金百五十萬元의 日支合辦 博東公司가 經營하고잇다。그他 이炭鑛에 投資한者로 國際關係의 日支合辦會社가잇스나 投資額은未詳하고 또 最近 三菱關係의日支合辦會社設立計劃도잇다。

坊子炭鑛=日露戰爭後 日本軍管되고잇는바 資本金二百八十三

[illegible]下에 日本人代表에게 西炭坑、中央炭坑、北炭坑、東炭坑을 貸下하야 採掘을 許可하얏는바 그後 日本軍撤退를따라 日支合辦魯大公司가 經營하게되엇다。

南定炭鑛=大倉과 廢田의 兩組의 經營에關한것으로 그投資額合計 百二十萬元인바 採掘權은 北京細目協定에 基하야 魯大公司와의 間에 南定採炭契約을 締結하야 年產十萬噸以內로 制限되엇다。

章邱炭鑛=章邱、淄川兩縣에亘하야 [illegible] 分和되어잇는바 그經營은 同益公司(日支合辦) 山東鑛業公司(日支合辦 資本金四十萬圓) 旭華鑛業公司(日支合辦、三菱出資三十萬圓) 通益公司(日支合辦) 黍信炭坑(日支合辦)等各社에서 하고잇다

淄川炭鑛=日支合辦으로 魯大公司에서 經營하고잇다

大同保晉、晉北南炭鑛=日支合辦同寶炭鑛公司에서 經營하고잇는데 資本金三百萬元中 日本側代表 興源公司의 出資는 半額이다。

萬五千元中 日本의 出資는 半額이다。

博東炭鑛=資本金百五十萬元으로 日支合辦에 依하야 經營되고잇는데 二十二萬五百元의借款을 하고잇다。

龍煙鐵鑛=資本金은 官商合辦五百萬元인데 日本側으로부터는 中日實業銀行으로부터 六萬元의 借款이잇고 또 日本은此外 [illegible] 權利이잇다。

金嶺鎭鐵鑛=魯大公司에서 經營하고잇는데 拂込資本金二百五十萬元이다。

◀事業投資

日本의 北支에對한 事業投資는 各種工商業에 亘하야 多岐多樣하므로 여기에 그工場도는商社의 일홈과 그投資額을 一一히 例擧하는 煩雜을 避하려하거니와 大體 그投資額이 一億八千萬元으로 推算되고잇음은 前述한바와갓다。

米國

◀航空事業

米國資本의 航空事業進出은 注目할만하다。一九二〇年에는 米國카ー디스飛行機會社와 國民政府間에 四百萬弗의 借款이 成立되어 飛行機八十台 [illegible] 契約에依하야 中國航空公司設立權을 獲得하얏다。同公司는 資本金一千萬元인데 그中 支那側出資는 五百五十萬元、米國側出資는 四百五十萬元이다。그航空路는 滬平線(上海—北京) 滬漢線(上海—漢口) 滬粵線(上海—廣州)으로 航空路線延長五、八四七粁에 達한다 [illegible]

◀鐵道借款

米國의 鐵道借款은 [illegible] 平綏鐵道에 若干의 投資를하얏슴에 不過하다。

米國은 陝西省에 石油採掘權을 갓고잇다。延長石油鑛는 米支合辦의 中米石油公司가 經營하고잇는것이다。또 陝西省 [illegible] 口家河等에도 探鑛權이잇서서 [illegible]

◀自動車事業

포ー드自動車會社는 十年年賦로 二百萬元어치의 自動車를 [illegible] 北京—天津間、太原—石家莊間에 [illegible]

其他國

上記諸國外 北支에 白耳義、伊太利、丁抹等의 外國資本이 投下되어잇는바 [illegible]

各農作大豊을示現

農家大衆經濟緩和에効果甚大

幾多施設改善必要

湯村農林局長談

[illegible]

土改事業

[illegible] 大要 以上과가티 [illegible]

治山治水

[illegible]

北鮮開拓

[illegible]

金增產計畫要旨

總督府鑛山課技師 金晉浩

[illegible]

蔚山郡 第四部學校長一同

彥陽 慶尙南道會議員 彦陽公醫 安孝式

彦陽面職員一同

斗西面職員一同

上北面職員一同

彦陽產業組合長 喪中欠禮 金錫漢

彦陽文廟直員 上北面長 金琛熙 金敎完 金敎洪 金敎準

蔚山郡上北面山前里 鍼術師 李晙日

佛刹大本山梁山通度寺 住持 金鏡峰

中南釀造場 朴熹源

彦陽產業株式會社 取締役 金敬玉 同 吳一泳 同 玄基奉

三南面職員一同

彦陽產業組合

彦陽金融組合

彦陽金融組合 仁甫支所

梁山自動車株式會社 彦陽營業所

上北面協議會員 金瀅漢

彦陽釀造場

彦陽市 司法書士 代書事務所 河奉潡

彦陽面西部里 崔尙鳳

彦陽市 和洋雜貨 正宗酒類 文化商店

上北面協議會員 山前 釀造場 金文煥

上北面協議會員 醫生 朴芳佑

斗西面仁甫里 代書人 鄭成鳳

彦陽面東部里 宋宣澤

三南面長 朴長集

斗東面長 黃翰運

仁甫釀造場 成石奉

石南寺 住持 金正律

彦陽和信連鎖店 布木商 盧炳轍

彦陽市 彦陽婦人商會

彦陽市 三光商店 朴末岩

彦陽郵便所 所長 高木國太郎

彦陽煙草專賣局販賣所 所長 裵根守

彦陽市 布帛商 洪雲杓

彦陽面協議會員 宋明澤

三南面[illegible]里 釀造業 辛東睦

上北面 協議會員 月桂亭釀造場 朴廷卓

斗西面仁甫里 穀物商 洪周贊

斗西面西河里 穀物商 姜再俊

中南水利組合

三南面 朴坤洙

彦陽市 布帛商 安仁贊

梁山郡下北面草山里 大濟醫院 主 李[illegible]

斗東面三政里 協議會員 李鐘一

斗西面仁甫里 釀造業 洪贊守

斗東面九秀里 釀造業 李圭亨

彦陽市 新泰號

斗西面協議會員 金通煥

三南面 西川農場

斗西面 協議會員 李圭宗

斗東面川前里 崔鉉範

三南面方基里 釀造業 朴基汶

眞池洞

合資會社 丸一荷主運輸組 運送業 穀物取扱 代表者 金柱恒 朝鮮平南順川郡眞池洞驛前 振替京城二六八七七番

平南順川眞池洞驛前 公友會一同

平南順川眞池洞驛前 醫師 李鍾晩 南山醫院

平南順川眞池洞驛前 丸田運送店 主 蔡龍勳

平南順川眞池洞驛前 合資會社 眞泉釀酒商會 代表社員 張學煒

平南順川眞池洞驛前 眞興洋服店 崔長運

平南順川眞池洞驛前 石泉醫院 院長 金柱燮

平南順川眞池洞驛前 丸二運輸組 主 朴秉燮

江西郡城岩面永平里 永泉釀酎商會 主 宋錫九

平南順川眞池洞驛前 日新理髮館 主 李漢衡

平南順川眞池洞驛前 南浦齒科醫院 眞池洞出張所 院長 [illegible]

龍岡郡陽谷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南順川眞池洞驛前 日本通運小運送 東洋商會

平南順川眞池洞驛前 醫師 李鍾晩 南山醫院

龍岡郡嶺月面事務所職員 [illegible]

江西郡城岩面職員 [illegible]

平南龍岡邑內 平安醫院 醫師 金炳濟

平南順川眞池洞驛前 大正理髮館 主 金時[illegible]

龍岡邑內 龍岡黃龍會

平南龍岡邑內 林觀鎬商店

平南順川眞池洞驛前 三井物產 大寶商會 主 金鳳漢

平南順川眞池洞驛前 金海藥房

平南順川眞池洞驛前 韓信商會 主 韓[illegible]

朝鮮旅館 [illegible]

財界人의新春觀

大陸政策의基地 젊은朝鮮의雄姿

朝鮮殖産銀行頭取 林繁藏

一 昨年來、帝國은 東亞全局의 [illegible] 特히 [illegible] 國威를 宣揚하는 同時에 [illegible] 新春을 迎하는 [illegible] 昭和十三年의 [illegible] 戰時體制에 移行하야 [illegible] 二十八億七千二百萬圓의 膨大豫算이 可決된後 數個月에 滿洲事件을 經過하야 支那의 抗日侮日政策에 對하야 徹底的膺懲을 加키爲하야 北支는 勿論 中南支의 廣大한 地域에 戰線을 擴大하기에 至하야 特別議會에서 二十五億三千九百四十萬圓에 達하는 臨時軍事費特別會計豫算이 可決되고 또 經濟上對策으로서는 所謂財經三大方策其他가 着着實行되엇는데 外에는 皇軍將士가 忠勇義烈世界無比한 만흔戰果를 擧하고 內에서는 官民協力一致 銃後의 務를 强固히하야 時艱의 克服에 邁進中인것은 我帝國의 中外에 자랑거리이다.

此 非常時의 我經濟界는 戰時經濟로 移行함에當하야 一部에서는 多少其影響을 受한것이 잇스나 政府의周到한 施設計劃에依하야 重需工業의繁榮、農産物價의 强調等을 基調로하고 非常時中에도 好況을繼續할수잇섯다.

朝鮮에잇서서는 總督閣下를비롯하야 總督府諸官의 周到한 指導와 適切한 施策에 依하야 今次事變에 際會하야 一般에게 잘認識케하고 內鮮一如의 實을 擧키에 努力하야 [illegible] 國防獻金其他의 獻金은 勿論 銃後奉公의 赤誠을 發揮하기에 一致하고 特히 事變突發以來 [illegible] 經濟界는 農業方面에 在하야는 前年收穫狀況의 影響을 受하야 春부터 初夏에 亘하야 多少沈滯를 未免하엿스나 夏作收穫前後부터 其作況의 良好에 刺戟되엿고 更히 秋作物의 豐穰을 迎하야 活氣를 帶키에 至하얏다.

即 春以來의 氣候順調으로 麥作은 前年에 比하야 約四割의 增收이오 稻作은 第二回實收高에 依하면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三割六分 棉花陸地棉收穫高는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七割七分의 各增收를 示하고 養蠶도 春蠶秋蠶 通하야 前年과 大差업는 收繭이 豫想되엿다. 各農産物市勢는 相當히 高位에 잇섯음으로 農家經濟를 潤澤케한바 多大하얏다 [illegible] 水産方面도 一般으로 比較的 好況이엿고 [illegible]

統 計數字에 就하야 보면 昨年一月부터 十一月까지의 朝鮮貿易總額은 이미前年의 貿易總額을 超過하야 十億八千百十四萬圓에 達하고 또 一月부터 十月까지의 朝鮮에本店을 有한會社의 拂込資本金의 純增加高는 一億九千八百萬圓으로 이것도 前年의 一個年分을 凌駕하얏스며 또同期間의 朝鮮鐵道局線의 貨物輸送高는 七百二十三萬噸으로 前年同期의 輸送高를 超過한 狀況이엿다.

從하야 朝鮮의 金融界에잇서서도 此等各方面의 好況을 反映하야 全朝鮮手形交換所의 手形交換高는 一月부터 十月까지에 十五億四千八百萬圓에 達하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一割增加이오 또 昨年十月末의 全朝鮮銀行預金總額은 四億二千九百十七萬圓、同貸出金總額은 九億三千二十八萬圓을 算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은 四千八百七十三萬圓、約一割三分、貸出金은 一億六千九百七十萬圓、約二割二分의 增加이엿다 朝鮮銀行券의 發行高는 十一月末에 二億五千七百八十五萬圓에 達하고 前年同期에 比하야、六千五百十一萬圓約三割一分의 增加이엿다。如斯한 [illegible] 朝鮮의 金融界도 亦是相當한 活況을 保하고 越年할수잇섯음은 欣賀하는바이다.

光 輝잇는新年의 初頭에 經濟界의 前途에 對하야 所感의 一二를 말하고저한다 먼저事變豫算의 執行과 其影響如何는 經濟界의 重大關心事인데 昨年의 一般豫算의 膨脹에다가 事變豫算의 計上을보기에 至하얏는데 政府의 經濟政策과 政府豫算의 支拂遲延等으로 當初의豫想과 反對인 金融情勢를 呈하면서 越年하얏다 政府豫算의 支拂은 年度前半에잇서 支出이 [illegible] 比較的多額의 支拂을보기에 至할形勢가 必至이오 從하야 金融의 軟化는 勿論『인풀레』傾向의 出現은 本春에 不可避이라는 見解도 [illegible]

最近의 我國經濟界는 滿洲事變을 第一期로하고 所謂二·二六事件을 第二期로하야 [illegible] 戰時體制의 編成에 向하야 移行을 繼續하고 膨大한豫算의 實施、生産力擴充政策等에 對應하야 財界는活況을呈하고 工業界는非常한發展을하야 事業의新設擴張은 急增하고 生産資材의輸入은 急增되어 本年度貿易과如한 入超六億圓을 上半期만으로도 入超를 豫想하는 [illegible] 餘의巨額에達하고 物價는政府의 抑制政策에依하야 相當히 調整되엇다.

一 [illegible] 將來의 [illegible] 政府의 特別支援 [illegible] 株式企業은 [illegible] 金融資金 [illegible] 分散하는 [illegible] 寧히 大衆에 [illegible]

解도 相當하다 이것의 匡正對策은 當局者의가장 苦心研究하는바인것으로 너무『인풀레』非常을 期待하고 이에乘하고저 企劃하는 [illegible] 그러나 적어도本年中에는 昨年以上으로『인풀레』氣味傾向이 一般的으로 顯現될것은 避키難한일이라고 생각되는데 其結果에 對하야는 이미充分히考慮하고 [illegible] 別로이困難한事情은 나타나지안흘것으로 確信하나 적어도 本年의財界에잇서서 가장重要한 役割을演할 本問題의發作的經過는 一般財界發展의 [illegible]

長期抗戰을覺悟코 一層建設的努力

朝鮮商業銀行頭取 朴榮喆

이에 昭和十三年의 新春을迎하게되엇지만 昨年은 所謂財經三原則의 樹立을보고 時局에 對應한 諸施設을 [illegible] 하는同時에 [illegible] 我忠勇無雙한 將兵에 依하야 未曾有한 戰果를 收하야 國威를 [illegible] 聖戰의 [illegible] 新春을迎하는 吾等國民의 感激에不堪하는바이다 以下昨年中財界의 推移를回顧하야 所感을述하고 年頭辭로하고저한다.

[illegible] 七月에 勃發한 北支事變은 一擧擴大하야 支那事變으로 擴大하야 臨時議會에서는 事變豫算으로 二十五億圓의 巨額을 議決하는同時에 戰時諸統制立法의 制定을보고 資金調整、貿易管理、貿易統制、消費節約等의 諸施設이 行하야 [illegible]

[illegible] 長期戰에 突入하야 七月及九月의兩臨時議會에서는 事變豫算二十五億圓의 巨額을 議決하는同時에 戰時經濟統制立法의 制定을보고 [illegible]

二千六百二十四萬餘石으로서 未曾有의 豐作이되고 米價도强勢가 持續되엇스며 麥實收高도 記錄的의 大豐作으로서 前年에 比하야 四割一分增인 四百二十七萬餘石 棉花도 前年보다 一億斤以上의 增收인 約三億四千百萬斤으로되여 此等은 農村經濟에 不少한好影響을 與하고 또 鑛業界는 産金增加의 必要가 去益切實케되여 一億七千萬圓의巨額을投하야 五個年計畫七十五噸의 産金高를 達成코저하는 一大産金會社案이 議會에 提出되여 五個年計畫年産二百六十萬噸[illegible] 實現이 豫想되고 [illegible]

[illegible] 時局關係로 [illegible] 其他特殊鑛開發等 一層의躍進이約束되는反面 資金調整法에 依하야 輕工業이 一部抑制를 受하기되엿스나 鴨綠江、虛川江等의 大發電計劃은 不遠間大規模工業의出現이 豫想되며 또 現地調辦主義에 依하야 軍工業의 擴充建設等에 動하고 沿岸鰮業도 數年來稀有의 盛運도 速한 進步를 示하고잇고 또 加工業도 急速한 增加를 示하고 粘三百萬噸 油 [illegible] 千萬噸을 突破하는 好勢로서 此等은 半島貿易에 反映하야 將來의 朝鮮貿易十五億圓台가 期待되기에 至하얏다 이것을昭和

經濟國難克服 經濟的繁榮

朝鮮信託社長 谷多喜磨

民權自由의 思想과 自由主義의經濟思想에 培養된自由經濟의 發達과 自由貿易의 發展은資本主義經濟의 世界를 現出하고今日와 文化를 發展하얏다 그러나 物質이 豐富하다 自由貿易의 大旗下에 世界를 征服하야든 英國은 大英帝國主義을 形成하고 其實로 世界市場에 雄飛하얏다 各國도 自由貿易即國際的 自由主義經濟 體制로서나 實際로서나 滅亡에 陷하얏다 寒心的으로만 自由貿易時代가 繁榮을 수업다 國家的統制經濟時代의 來臨을 [illegible]

滿洲事變、支那事變을契機로서 冲天의 意氣는 昂上되엇다 그러나 英露等의 各國은 自國의 利益을 [illegible]

銀行預金	前明治 日淸戰爭 十六年末	日露戰爭 前明治 十六年末		昭和十二年六月末
	千圓	千圓		千圓
一般銀行預金	三二、一三	五五七、九三七		一〇、七一二、三三三
預金으로의 對年率		約四倍		約三倍
				二四百倍

英、佛、獨、露國民所得平均八割八步 同上事變에依하야日本의國民所得比率이近年二十一億圓이면은貯蓄 [illegible] 約百億 [illegible]

通코저하야 日本의正義의 經濟를抑壓코저한다 帝國日本의國難이 이에온一方支那事變으로 列國과 長期의 戰爭을하는것과 가다 或은 直接으로英國과 戰爭이될지모른다 何如間長期의 戰爭에 堪耐할 覺悟를가저야한다 獨逸伊太利의 好意도 經濟的으로는 만키를바리기가 至難할것이다 獨力長期의 戰爭을遂行하여야한할것이다 我皇軍의 向하는곳에 敵이업다 此方面의 念慮는 不要라하드래도 問題는 經濟戰에 잇다 我國의 經濟力如何、試하야 日露戰前과 今日의 貯蓄力을比較하야 戰費의 負擔力을보면 左表와갓다

英、佛、獨、露國富 平均四割八步
對總戰費의率

同上事變에依하야日本의國富一千二百億圓으로보고總戰費를算出하면五百七十六億			

支那事變의 戰費月五億이라면 年六十億 五年繼續되어도 三百億이된다 아직相當한 餘裕가 잇다고할것이다

그러나 公債의消化가伴할지를 걱정하는사람이잇는데 이것은一國內의일로서 一家內에 財産만 잇스면 父가가지던지 母가가지던지 또아들이가지던지 어쨋던지主人이 家族으로부터집取出할 方法만잇스면조타 經濟政策、公債政策을쓸하기만하면된다.

問題는참아리 國內에업는 財産을如何히할가에잇다 即國際收支의問題가되는 國內의財産이不足하야서는안된다 極히大凡히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物資의狀況을보면如左하다。此等의物資는 한번輸入되어도 製品으로서 輸出되는것이잇슴으로 此等을除하고 國內消費로서 純粹로代價를外國에支拂하여야만하는 額만을學하자 (單位千圓)

	昭和十年	昭和十一年	昭和十二年(六月迄)
棉花	一七一、三二八	三一五、七五三	三三〇、三二三
羊毛	一四四、五〇三	一二五、一二六	一三七、〇〇九
油類	一四四、〇九六	一六七、三九一	一一一、〇五〇
機械類、鐵類、石炭其他	二五一、六七八	二四三、一八九	二一六、三三六

이外에 機械類、石炭、木材等도잇스나 以上의 事實을 列擧한것만으로도 年五、六億圓은 外國에 求코잇다 今年의 輸入超過가 六億五、六千萬圓이라는 提調이잇는듯하나 어떤戰爭은 長期戰爭이되면 更히多額에 達할것이다 歐洲大戰의例로 보드래도如左한 數表가잇다

歐洲大戰當時兵器增加

	一九一四年	一九一八年
兵員	一〇〇、〇〇〇	一〇〇、〇〇〇
重砲	一、一〇〇	六、九〇〇
機關銃	[illegible]	[illegible]
탕크	一	三、〇〇〇
重砲	一〇〇	一〇〇
飛行機	一〇〇	一〇〇

自動車 九〇〇 六〇〇〇
이表에 依하야보드래도 戰爭中兵員은 그리增加치안코 兵器의消耗는 非常한增加이엇다 그리고 時의 重需品의 補充은 如左한것이엇다

每月補充飛行機 三〇%—五〇%
탕크 三〇%—四〇%
同 四%
小銃機關銃 大砲 六%
重機關銃 大砲六%
其他武器 四%—三三%

日本에는 當然히 如斯한 消耗가 잇다고 할것이다 大戰當時의 兵器消耗가 如何히 前表佛國의 例로보아 잘알것이다

正히 反省할때이다 更히 重需品과 輸入品과 그리고 國民生活安全에 向하야 國力을 發揮하여야한다 如斯하야 國家나 國民이나 苦難時가 到來할것이다 歐洲大戰時英國의 羊毛消費와 重의需要와의 比率을 表示하얏다

全消費對重需羊毛需要率
一九一三年 開戰二年四個月後 終末頃
一〇% 二〇% 一〇〇%

滿洲를가진 英國도 有한가는 그러나 日本은 滿洲支那를 一九一一年의 數倍 滿洲의 羊毛之 [illegible] 日本에서는 推知할것이다 其中에는 一般不足하 [illegible] 毛製品을 必然的으로 生活을 [illegible]

[illegible] 自由主義經濟時代의 功罪를 비리고 自由主義의 [illegible] 經濟統制時代가 [illegible] 國家의 經濟를 [illegible] 이제는 資本家나 事業家나 [illegible] 戰時經濟統制時代의 [illegible]

不動信念으로對處

漢城銀行頭取 林茂樹

昭和十二年은 我國에잇서서 實로 多事多難한해이엇다 後半、日支事變의 發生으로 我財政은 準戰時體制로부터 戰時經濟에移行하야 北支는 이미 一段落되엿고 江南도또한 南京陷落의 勝報를엇더다 如斯한 劃期的인一年이 我國의 經濟界에對하야 또한 劃期的인해인것도 또한 當然하다.

馬場財政으로부터 結城財政에 옴기면서 昭和十二年의 새해를 마젓는데 二十八億七千三百萬圓의 準戰時財政과함께 生産力의 擴充이 要求되엇다 年初物價의 騰貴는 激甚하야 이어서는 産業利潤을 增加케하고 生産을 一段 增加하엇스나 生産力은

劃期的으로 財政을 消化합수업고 이에加하야 輸入의 激增은 價格騰貴와함께 國際貸借惡化의 兆候를 보엿다 이리하야 爲替統制를 强化하야 爲替取組의 許可制를 實施할수바 게엇게되엇다 六月初近衛內閣出現으로 賀屋財政이되에따라 生産擴充에 基한 物資需給의 調節을 政策의 主眼으로하게되엇스나 事變發生으로 生産力擴充이 必要하야 이에要할 資金은 二十五億圓은 益益臨時資金調整法으로 그統制를 行하고 同時에 爲替統制强化가 益益不可缺하게되어 不要品、不急品의 輸入禁止와 制限을 行하게되엇다

以上諸政策下에잇서서 一時急騰을보인物價는 後半、世界物價의 低落影響을바더 어떤種類 特히 綿絲、生絲에 下落을보엿스나 一般으로는 大體에서 騰勢를持續하야 生産力增大와함께 工業利潤은 增加를繼續하고 事變中戰爭가 中心된 株式市場도 戰勝을反映하야 年末에는回復하엿스며 또農業收入도 大槪良好하얏다 朝鮮經濟는 前年의 一般的인 好況을 반드시 그 狀況에 依하여 그리 好轉하엿다 [illegible]

이사이에잇서서 朝鮮經濟는 前年度의 發展을 繼續하고 資源의 開發、內地資本의 流入이 旺盛하야 鑛工業生産額의 激增、貿易額의 增加로 나타낫다 戰時經濟에잇서서 鐵、石炭、金、特殊鑛의 自給確立과 增加가 極度로 要求되고잇는것은 말할것도업다 內地의 重工業發展의必要가 鐵의 自給策을 要求하고 朝鮮의 豐富한 鐵鑛資源의 開發이 急務인데 茂山鐵鑛開發도 그前途에 曙光이 보인다 特히 朝鮮의 重工業에 寄與하는 [illegible]

[illegible] 이 朝鮮은 寶庫이다 資源의 開發을 [illegible] 朝鮮은 [illegible] 重要한 役割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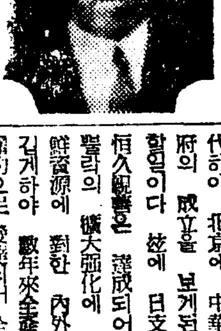
그리고 此等工業發展에 伴하야 朝鮮의 石炭需要는 逐年增加의 一途를밟고 [illegible] 鑛業界도 好況의 [illegible] 金으로 朝鮮의 産金은 [illegible] 朝鮮의 金融界 [illegible] 年度 [illegible] 作年 [illegible]

[illegible] 는 朝鮮 生産 [illegible] 金融 [illegible] 時局 [illegible]

그러나 我國은 未曾有의 時艱에 直面하고잇고 經濟的으로는 아직許多한困難을 克服하여야한다 內에잇서서는 戰費의調達과 生産力의擴充、消費의節約과 公債의消化와는 今後도 緊要問題이다 外에對하야서는 國際貸借의 均衡化、不急品의 輸入制限과 輸出의增加가 이것이오 그外에『인풀레』를 防止키爲한 物價騰貴抑制와 爲替의維持를 必要로한다 他面下半期의世界經濟界에는 物價騰落의 崩落이잇고 海外景氣의不況 [illegible] 下에서 [illegible] 國際收支의 [illegible] 政治的對立이 [illegible] 昭和十三年을 [illegible]

躍進産業經濟界

東一銀行會長 閔奎植



我國財界는 昨年初以來膨大한 豫算의 實施와 外國爲替管理强化로 國內物價는騰貴에 拍車를 加하고 産業界의活況이 顯著하야 資金의 需要가旺盛한데다가 近衛內閣이 成立하자 好評裡에 國內相互和 計劃經濟를 主體로한 國際收支 生産力擴充等의 革新政策을 標榜하고 非常時局에 邁進하엿다 그런데 米國景氣挫折 貿易의逆調는 金融界의 變動을豫想케하는때에 支那事變은 이미去益全面的으로 擴大되어 戰時經濟體制의 出現을 보기에 至하고 財政은 未曾有의 巨額에 達하엿슴에不拘코 金融은 極度의 動脈硬化를 招來하엿스며 公債消化難 增稅等은 不容忽視할 深刻케하엿다 이에잇서서 政府는 臨時資金調整法 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等 戰時經濟統制의 强化를 圖하고 金融界는 戰時政策遂行에 不伴하야 去益梗塞과 同時에 不活況을 呈하고잇다 時의 昨年은 約二千六百萬石의 大豐作을 보고 [illegible] 最近朝鮮의 經濟界는 旺盛한 金融과함께 各産業部門이 모두 生産設備의 擴充을 行하야 사뭇 [illegible]

[illegible] 是等各方面의 [illegible] 朝鮮에 [illegible]

方今 抗日絶滅의 國民政府에 代하야 北京에 中華民國臨時政府의 成立을 보게된것은 慶賀할일이다 玆에 日支의 새로운 和十一年에는 生産額二億三千萬圓에 達하야 昭和十一年에는 [illegible] 漁村經濟의 潤澤을 助長하야 昭和十一年에는 [illegible] 興運動開始以來 全鮮의 農村振興은 近年 [illegible] 工業은 家內工業에 [illegible] 이리하야 總生産額은 三割一分 千萬圓의 增加를 示하엿다 年의 工産總額은 昭和十年의 六億七百萬圓에 比하야 一億二 大規模工場의 [illegible] 滿洲國의 健全한 發展에 따라 躍進의 第一步를 내어드되게되엇 는 國防上 重要한 [illegible]

恒久繁榮으로 達成되어 大陸經濟鮮과 [illegible] 關係의 [illegible] 鮮資源의 擴大强化에 伴하야 朝鮮이 [illegible] 의 認識이 [illegible] 一新하엿다 그러나 아직 朝鮮産業은 內地의 發達에 比하면 아 鮮의 擴大를 爲하야 一層邁進하여야할줄로 생각한다.

朝

鮮에서는 特히 [illegible] 大陸의 [illegible] 朝鮮의 [illegible]

經

濟 [illegible] 從來 [illegible] 輸出 [illegible] 朝鮮의 將來 [illegible]

平康郡敎育會

平康警察署

京元線平康驛前 光成商會 主 金光郁

京元線平康驛前 肥料商 福松商店 主 秦世源

平康邑內 平康食堂

平康邑內 朝鮮料理 長春園 主 房昌根 藝妓 黃菊花 金玉香 高山玉

平康邑內 朝鮮料理 花月館 主 權明花 藝妓 鶴玉仙 金春月 玄玉珠

平康邑內 永豐屋 主 吉所爲 妓生 金綠葉 張錦花

平康邑內 貿易 穀物 平安精米所 直營㊥運送店

平康郡縣內面白龍里 龍岩藥水浦

平康邑內 平康印刷所 振替京城一二五九五二

平康邑內 平和製麵所 主 [illegible]

平康邑內 平康公設米穀市場 洪鋭裕

京元線平康驛前 穀物、三立物、食料品販賣 德興商會 主 金晟圭

京元線平康邑內 新炭商 朴鐵圭

平康邑內 綢緞、布木、和洋百貨 우리商會 主 李[illegible]

平康邑內 和信連鎖店 永信商會

平康郡南面 職員一同

京元線平康驛前 內鮮料理 平康旅館 主 [illegible]

京元線平康驛前 穀物布木 唯一商會 主 李[illegible]玉

平康邑內 元昌商會 主 金元錫

平康邑內 古物、皮物、麥油、麻布 大澤商會 主 [illegible]

平康消防組 崔善行

平康邑內 松月堂製菓店 主 [illegible]

平康邑內 米穀商 洪宗旼

平康邑內 米穀商 洪道鐵

穀物、貿易、米運送業 殖産商會 精米部 運送部

平康邑內 司法書士 全宅烈

平康邑內 平一商店 池鳳九

平康邑內 平和商店 崔[illegible]

平康邑內 [illegible] 淸[illegible]

平康自轉車商店主 [illegible]

平康邑內 鮮魚商 文[illegible]

平康邑內 魚物食料品商 朴生金

平康郡南面芝石里 [illegible] 朴重[illegible]

平康邑內 魚物商 大昌商店 李主[illegible]

平康邑內 丸八洗布所 朴文相

南面芝石里消防組 [illegible] 根

平康邑內 張春根商店

南面芝石里 回春醫院 金海榮

平康邑內 米穀商 趙炳烈

平康驛前 米穀商 朴萬成

金化鑛業所 古我合名會社 所長 奈良部大太郎

平康郡 [illegible] 廣昌醸造場 主 [illegible]

群仙 加藤彌一郞

咸鏡線群仙驛前 群仙釀造場 酒類製造 穀物貿易 海陸運送 委託 都明洙 徐廷觀

咸鏡線谷口驛前 金大煥

群仙 新浦丸吉商店 群仙支店

松華亭

群仙繁榮會

利原郡東面群仙 金昌珉

咸南群仙 金炳現

利原郡東面長湲里 姜漢燮

利原郡東面長湲里 李春泓

義城商店 主 李[illegible]集

明太肝油製造業 鰯油肥製造業 金澄杜

荷主運輸組 店主 金秉錫

群山和信連鎖店 金一演 金春屋

高牙只商店

長興鐵工所 主 金[illegible]永

咸鏡線群仙驛前 木炭雜穀商 和川商會

[illegible] 主 白[illegible]

金[illegible]商店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朝鮮日報芦屋販賣所 電話芦屋四三五三番

本庄村會議員 甲南終美會長 朴柱範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副會長 金明濟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副會長 車甲得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評議員 朴道淳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財政部 朴在[illegible] 古道具店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紹介部 金炯鄕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事業部 李相裕

芦屋警察署管內 甲南終美會 事業部 李尙煥

綢緞、布木、白米、味噌、醬油、酒、ゴム靴、其他日用品 安泰云 西宮市濱下町四四七 電話(西)四六三三番

古物商 朴鍾介

古物商 李能鎬

三惠堂漢藥研究所 主 朴大瓚

[illegible] 陸成俊

磯田旅館

南友聯合運送店 代表 金[illegible]斗

共盛商會 主 張[illegible]

東興商會 主 李心[illegible]

松山商店 主 朴英煥

池成甲商店

丸金鐵工所 主 金命[illegible]

端川商店 崔允[illegible]

秋星商店 辛宗南

回生堂藥房 黃[illegible]

御菓子商 朝日菓子店 閔夏榮

群仙漁業組合 安[illegible]

自轉車專門 愛輪社 [illegible]

利原郡東面長湲里 李[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醫院

池仁河商店

任昇帝商店

金晟洽商店

仙一理髮館 主 李丙云

李柱[illegible]商店

二和洋服店 主 徐學俊

金晟浩商店

金成洛飮食店

新興商店 主 鄭洙一

朴昌緖商店

金昌珏商店

永信堂藥房 孫永復

武庫郡本庄村深口 洪敬武

飯場業 崔熊伊

鄭基澤

武庫郡精道村三條安ノ山 李元吉

金洪俊

製繩業 金一千

元豐

元豐專賣局販賣所 金鎬明

咸南赴戰高原 鄭在周

赴戰高原郵便所長 淸水節

赴戰高原道安市 德興商店 李應燮

新興郡東上面 事務所職員一同

松興線元豐市 ⊙朝鮮運送取引店 主 金元河

咸興郡東上面 [illegible] 東明商店 主 朴明[illegible]

新興郡 [illegible] 無名氏

謹賀新年

羅津

羅津府會議員
辛鍾昇　申銀奉　申學澈　姜東明　金泰咸

布着漁業 貿易商 辛鍾昇商店 電話四四四八七番

羅津府尹 田口禎憙

羅津署長 鹽谷武夫

朝鮮郵船株式會社洛山荷客取扱店
新興丸洛山荷客取扱店
咸鏡北道富寧郡觀海面山津洞
富寧運輸合名會社
代表社員 金昌俊
支配人 金弘國
會計 金鍾澤

富寧郡觀海面
大湖金鑛事務所
觀海金鑛事務所

羅津府羅津洞 鰮油製造業 金大甲
同 崔明煥
同 金斗成

國際運輸株式會社羅津支店 支店長 中野醇

三木合資會社配下 金溶夏
三木合資會社配下 吳明珍

東元町總代 李庸敏
草島洞總代 鄭秉道
明湖洞總代 南致國
羅津洞總代 金鳳梧

成北羅津港 各國時計 貴金屬眼鏡 修繕販賣 三光堂時計店 金龍星

金剛通 大同醫院 醫師 金基 電話三六七番
泰安醫院 醫師 李泰根 電話六〇九番

昭和通 司法書士 李英郁 電話七一九番
金剛通 司法代書 趙弘國事務所 電話六四八番

新海洞 孫元浩

羅津府第一市場通 米穀雜穀 委託販賣 東明社 朴明根 電話五〇二番

羅津府旭町 李東植

羅津朝鮮人飮食店組合員一同 朝鮮料理 長春館 電話六六三番

琴平町 申九鉉
觀海町 高太極

羅津府草島洞 金龍雲鰮油工場

羅津府琴平町
金相鼎　金斗衡　金秉夏　金秉勳　金斗京

富寧郡三海面 鰮油製造業 車基龍
同 金圭赫
同 朴鶴鳳

豐海面協議會員 南斗萬
豐海面芳津 左承琳

羅津府 貿易商 合名會社 泰成商會 電話三一九番

羅津府合町 農軒堂乾材藥房 金禹鼎
羅津府元町 東濟堂乾材藥房 金東極

羅津洞 海洋學院 院長 金大甲
明湖洞 明義學院 院長 金基亨 敎員 金京天

羅津府明湖洞 有志 南泰燮 同 南致煥

慶興郡豐海面 私立豐海學校 校長 尹泳周 敎員 兪春松 同 張斗極

慶興郡豐海面事務所 面長 韓鳳源 職員一同

羅津府昭和通 一文字屋 姜[illegible] 電話五七一番

食料品 ミヤゲ物店 果物小賣 富士屋 元容[illegible] 電話四六九番

純ドライクリーニング 西洋洗濯 日の出洗布所

朝鮮日報社羅津支局 支局長 金哲 記者 林龍業 取次電話五三三番

末廣町 米穀貿易 長元商會 尹[illegible] 電話五八五番

羅津府第一市場 醬油味噌 酒類 德元商會
金銀細工 金銀部 松竹堂 主 韓炳[illegible] 電話五〇九番

末廣町 家具用木材 板硝子 カクブチ 進興商會 文[illegible]龍 電話六二一番

末廣町 綿布商 德生祥商店 主 陳文祥

豐海面芳津 金大甲第二漁場 朴淳鉉

羅津府草島洞 康允洙鰮油工場 李奭範鰮油工場

洛山漁場 鰮油製造業 朴義國 黃源澤

洛山港 黃泰元鰮油工場

羅津府元町 姜東洛

羅津洞 金貞善

羅津府倉町 北光商店 電話六一五番 金昌昊
土管瓦工業 倉屋商店 文基煥
錦城商店 電話六五九番

羅津府仲町 米穀雜貨 歐美洋行
高級洋服調製問屋 歐美洋行洋服部 姜庚燮 電話三四三番

港内運送船 第三大草丸 主 西村文雄

羅津府新町 第一市場通 酒類卸商 德元商店 電話四七二番
榮町三丁目 金正商店 電話三三六番

羅津府新町 姜聖鉉
羅津府朝天町 金聖鉉

琴平町 ミシン會社員 鄭周燮
草島洞 醬油製造業 金學燮
明湖洞 鰮油製造業 申永洙

朝鮮電氣株式會社羅津出張所 主任 崔興珍 電話五三三番

羅津府仲町 申銀弘 嚴載洙 牛島冷麵屋 電話七一〇番

大本山龍州寺 羅津佛敎布敎所 布敎師 林[illegible]

富寧郡觀海面洛山 大北商會 金仁善
高級洋服 洛山洋服店 尹白孫

羅津府末廣町 和洋百貨 正直商店 金德化

第一市場通 高級洋服 京城洋服店 沈鍾煥

第一市場通 各種印刷 諸紙問屋 三山堂印刷所 新興紙物商店 電話六二〇番

羅津府昭和通 各種ゴム製品卸商 羅津ゴム商會 洪[illegible]

江界

江界商事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弓昌宣

江界 平北自動車運輸株式會社

江界警察署

江界邑內 日本ペイント株式會社 金物商 吉川金物支店 電話一四七番 振替京城二六九五七番

江界 桂禮智病院 電話四〇番

江界 私立英實學校 電話一七三番

金承洙

江界釀造株式會社

江界邑

江界郡農會

江界壽町 百貨店 光鮮洋行 電話四四番

日本生命江界支所

江界木材株式會社

江界水力電氣會社 創立事務所

江界 中央醫院 醫學博士 金夏植 電話六七番

江界 綢緞布木商 共和商會 韓奉珀 電話一七二番

日鮮商事部 李桂龍 電話一七〇番

江界公立農林學校
江界公立普通學校
江界公立尋常高等小學校

江界壽町 北鮮印刷所 電話一〇四番

江界邑 平安公司 康錫九 長電話一五二番

江界邑 三和商會 姜炳柱 電話一二番

江界邑內 自働車問屋 金剛商會 李用三 電話一九番

江界邑內 李俊謙 電話三四番

江界邑內 榮興商店 金榮福

江界邑內 崔德星 電話一〇五番

平北江界邑西部洞 世昌고무工業社 江界支店

江口江界支店 田亨洛 電話一八番

綢緞布木商 朝日商會 裵希用

江界邑 江界齒科醫院

江界營林署 職員一同

江界金融組合

江界邑內 平安北道會議員 足立長吉

江界北門通 洋品店 우리商店 電話一六六番 私書函一六番

江界壽町 鄭續僑商店

平安北道立 江界醫院

金剛고무江界支店 고무製品卸 李鍾煥

金宗元

司法書士 李孝殷

江界 金莘鉉

江界 司法書士 金應龜

江界本町 洋服商 萬貨商會 中江支店（中江鎭）

西鮮合同電氣株式社 江界營業所

丸藤運送部

海陸物産 委託貿易商 永信昌 田種禾 江界邑 電話二七〇番

江界邑內 廣濟醫院 李[illegible]

平北江界邑西部洞一五〇番地 鐵鋼商 吳華植商店 吳華植

江界柳町 新興旅館 田興[illegible]

江界邑壽町 建築材料商 江界建材社 金泰順 電話一五四番

朝鮮石油株式會社平北代理店 國境商事株式會社 江界出張所 電話一四〇番

江界北門外 三養精米所 崔[illegible]

江界 三共社 電話一五一番

尹昌洙

江界本町 東亞印刷所 電話一三九番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江界支店

江界稅務署

江界 熙新商店 吳成[illegible]

江界南門外 信益精米所 電話五五番

江界邑 司法書士 金昌周

平北江界邑西部洞 朝鮮고무商會 朴承[illegible]

江界邑 康炳塤商店 電話一三番

平壤地方專賣局江界出張所 職員一同

江界 大正堂時計店

古邑

財團法人五山學校 五山高等普通學校 五山私立普通學校 電話三九番

古邑 金元銓

五山醫院 五山高等普通學校校醫 張泰龍 電話三六番

古邑 桂致三

京義線古邑驛前 カフエー 昭和會舘 女給 ミツコ ユリコ キクエ スズエ 電話二五番

朝鮮京義線古邑驛前 精白米 玄米 石炭 木材 セメント 肥料 及農具類 三合精米所 電話四五番

古邑醫院 醫師 金鳳濟 産婆 金德娘 電話一六番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新興商店 主 金逕銓 電話一八番 支店 定州邑內

古邑 金起湖

京義線古邑驛前 綢緞 白木布 米穀 其他 海陸物産 委託貿易部 모안상점 同信商會 主 金洛亨 電話二九番

京義線古邑驛前 李道欽商店 電話古邑二二番 支店 京義線定州邑內

京義線古邑驛前 大成館 妓生 李月仙 李春花 趙香紅 宋錦花 崔玉仙 宋明花 崔玉花

塢川學校

朝鮮京義線古邑驛前 玄米白米製造 委託販賣 信成精米所

京義線古邑驛前 藥種商 泰士藥房 主 崔泰士 電話取次二〇番

京義線古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代行營業所 電話七番

京義線古邑驛前 中央醫院 醫師 金相[illegible] 電話三〇番

京義線古邑驛前 海陸物産 古物木炭 委托貿易 三益商會 電話三四番

京義線古邑驛前 牛皮貿易 各種古物 金龍成商店 支店 定州南市 電話一二番

京義線古邑驛前 玄米白米 穀物貿易 委托販賣 定州商會 電話二七番

古德面 白東旭

京義線古邑驛前 時計 寶光堂時計店

京義線古邑驛前 第一自轉車店 主 金容植

古邑 金丁濟

京義線古邑驛前 光林商會 主 林啓泰

京義線古邑驛前 古邑自轉車店 主 洪鍾世

京義線古邑驛前 西鮮洋靴店 主 嚴九範

古邑 金浩俊 崔[illegible]

德彦面 光信商店 主 田光祚

興德洞 金孝濟

京義線古邑驛前 家具 門子 水車 硝子 金物洋漆 各種販賣 南昌木工場 主 文基燮

古邑 金秉燁

京義線古邑驛前 光瑞醫院 醫生 裵[illegible] 電話二五番 分院

京義線古邑驛前 第一理髮館 主 白[illegible] 電話一三番

京義線古邑驛前 玄米白米 穀物委托販賣 東星商會 電話三三番

京義線古邑驛前 泰興商店

京義線古邑驛前 泰永商會

古邑 金朝熙

京義線古邑驛前 共同火災保險株式會社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特約店 和信連鎖店 電話二〇番 私書函九號

京義線古邑驛前 朴天圭醫院 電話二八番 朴天圭 金在乙 金周[illegible] 金容勳 尹在淑

漣川

漣川面 仁華旅館 主 李千[illegible]

漣川繁榮會

漣川消防組

漣川公立普通學校

漣川農業實修學校

入江秀夫

豐盛興

松峴里 吳龜泳

城上里 朴堯欽

精米業 金榮植

漣川面栗寺里 李明來

印東洙

文峰里 具命書

城上里 黃潤秀

唐津郡順城面事務所

長湍

長湍高浪浦穀物商組合 組合長 金斗鉉 外組合員一同

長湍高浪浦市 長興釀造場

長湍郡長道面杜梅里 長興機業組合

長湍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長湍代行營業所

長湍郡 長道面職員一同

長湍郡內面 職員一同

長湍郡江上面 職員一同

京義線長湍驛前 穀物貿易商 尹台炳

長湍郡郡內面邑內里五六二 司法書士 泉龜之介

京義線長湍驛前 丸三運送店 店主 尹[illegible]重

長湍高浪浦 司法書士 梁慶洙

朝鮮長湍郡高浪浦市 尹鉉求百貨店

京義線長湍驛前 各種醸造用 專門製造 箭矢製造所 主 宋秉喆

京畿道長湍郡江上面九化里 三成釀造場 振替京城一七、五八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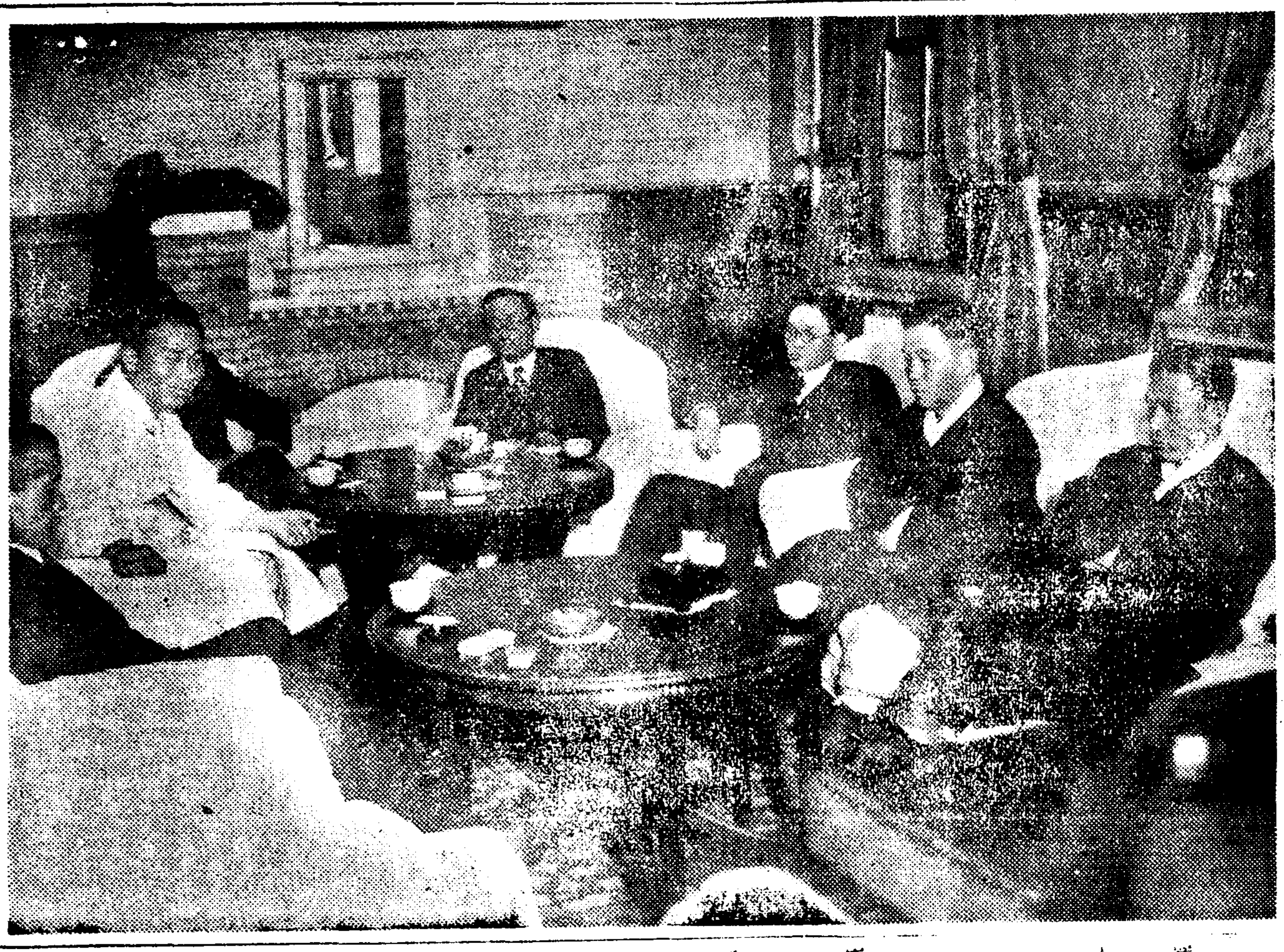
京義線長湍驛前 ㈡荷主運送組合 許永昌

長湍高浪浦 吳聖烈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四

朝鮮語技術問題座談會

出席者
金珖燮 李克魯 柳致眞 宋錫夏 趙潤濟 崔益翰 崔鉉培 (가나다順)
(本社側)—編輯局次長 咸尙勳 學藝部長 洪起文



咸尙勳 歲末이 되여 바쁘실텐데요 또 日氣도 조치못한데 여러분께서 이처럼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하고시픈 바는 朝鮮語를 어떠케하면 잘 쓰겟나하는 問題인데 그것도 標準語라든지 綴字라든지 그런 問題以外 外來語標音問題, 符號等 極히 實際的 問題에 局限한것입니다. 그럼 司會는 本社學藝部長 洪起文氏가 마타하시겟습니다. 조흔 意見을 만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文 요사이 言語研究에는 言語를 技術的方面으로 研究하는 새로운 傾向이 생긴것 갓습니다. 現下의 우리 朝鮮語로 보아서는 그것을 理論으로 研究하는것도 勿論 必要하겟지만은 그런 便으로 研究하는것이 더한層 實際와 急務가 아닌가하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여쭈어보고자하는것도 學理問題보담 技術問題요 技術問題中에서도 가장 淺近한 예가지입니다. 위선 그中의 하나로 書寫方法인데 흔히 죽 달아쓰는 사람도 잇고 따로따로 떼어쓰는 사람도 잇는데 어떤便이 더 조켓습니까. 萬一 떼어쓰는便이 조타면 어떠한 標準으로 떼어 쓸는지 卽 接續詞本位로 떼든지 單語本位로 떼든지 一定한 標準이 잇서야할것 아니겟습니까.

古時調
노프락 나즈락하며 멀기와 갓가기와
모지락 둥그락하며 길기와 자르기와
平生을 이러하엿스니 무삼 근심 잇스리
(安玟英)

書寫方法에對하야

宋錫夏 單語마다 떼는것이 조타고 생각합니다. 和文을 쓸때 죽 달아 쓰다가 군데군데 떼고 點을 찍는데 勿論 서툴러서 그러치만은 퍽 困難하게 될 때가 만트군요. 朝鮮語는 單語마다 떼어 쓰는 것이 조치 안습니까. 위선 보는 사람에게도 便하니까요.

柳致眞 讀者의 便으로 보아서는 말마다 떼어쓰는 것이 조흔데 그건 純粹한 朝鮮文의 境遇이요 漢文을 섞거 쓸때는 한 센텐스마다 떼는 것이 조치 안할까고 합니다. 點을 치는 것은 統一이 업서서 거북할 때가 만습니다.

李克魯 글세요. 그것도 그러케 簡單한 問題는 아닙니다. 單語本位로 떼어쓰는 것이 勿論 조호나 거기는 다시 어떠한 것을 한개의 單語로 보라 하는 問題가 생깁니다.

洪起文 내가 말한 單語란 個個의 品詞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먹으며』等을모두 한 單語라고 본것입니다. 그 語義의 適不適은 다음 問題로 하고서—.

崔鉉培 낫말낫말을 떼어 쓰는데는 여러분의 意見과 다름이 업스나 단지나는 『먹으며』 『먹으니』의 『으며』 『으니』는 한 語尾로서 그 全體를 한個의 낫말로 볼수잇스되 『사람이』는 『사람』과 『이』의 두낫말이 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習慣上부치어쓴다는데는 相關이 업스나 原則的으로는 떼써야 합니다.

洪起文 崔益翰氏도 말슴해 주시지요

崔益翰 實用上으로 『사람이』는 부치쓰는것이 조켓습니다. 그러고 漢文을 섞거쓰는 글도 和文과가티 訓讀音을 섞거 쓰지 안코 오직 音讀만쓰니까 純朝鮮文과가티 떼어 쓰더라도 조타고 봅니다.

金珖燮 『사람이』를 『사람』과 『이』로떼서 쓴다면 그건美觀上으로 조치못합니다. 또勿論理的으로 보아서도 그토에딸아서 다음말이 만히 決定되는데 다음말을 얼른 理解하는데도 오히려 재미업습니다

洪起文 萬若 單語마다 떼어쓴다면 『一千三百六十五』 라든지 『一二三四』 라든지는 各個의 말이 모두 한 單語인데 어떠케 써야 하겟습니까.

趙潤濟 아니 이 자리에서 말하는것이 外來語本位인지 朝鮮語本位인지 그걸 몬저 明白히 해 주십시요.

洪起文 朝鮮語를 本位로 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金珖燮 그런것은 한개의 槪念으로 보아서 부처 쓰는것이 조켓습니다.

李克魯 四位數까지 부처 쓰고 그다음은 떼어 쓰는것이 數의 槪念을 明確히하는데 조치안홀까요.

金珖燮 그러면 千까지만 부처 쓰고 萬以上은 떼자는 것입니까

李克魯 그러치요. 또 萬에서千萬까지 부처 쓰고—

金珖燮 그것은 簿記가튼데 數字만을 쓰는데는 記述에는 不必要하고 또 不便합니다.

宋錫夏 나도 그것은 必要하다고 생각지 안습니다.

趙潤濟 理論으로는 조하도 實用으로는 도리어 不便치만 안습니다.

洪起文 그러면 『정자나무』 라든지 『서양人사람』 이라든지 合成名詞는 어떠케 씀까요.

李克魯 두마디가 合해서 한 慣行語로 된 것은 부처 쓰고 또 따로 따로 떼어서도 無妨한 것은 떼어 쓰는 것이 조흘 줄 압니다.

洪起文 그러면 『一心協力』 『京鄕各邑』가튼 漢字語는 『一心』과 『協力』、『京鄕』과 『各邑』이 다 한 마듸 말로 되는데 어떠케 씀까요.

李克魯 實地問題로는 그런 것도 떼어 써야 합니다.

宋錫夏 그런데 『정자나무』와 가튼 말은 그대로 부처 써서 조치만은 『하이픈』을 너허야 할境遇가잇습니다.

趙潤濟 假令 假面劇에는 劇의 이름도 오광대 假面이름도 오광대 광대、俳優의 이름도 오광대로 오광대란 짝가튼말이 세 方面으로 달리쓰는데 나는 오광대아래다가 括弧를 치고 劇、假面、俳優를 區別하얏지만은 劇、假面아래다가 『하이픈』을 지르고 오광대란 말을부치어 쓰는 것이 더分明치 안홀까 고 생각합니다.

符號存廢의問題

洪起文 疑問符와 感歎符가 在來에 업섯는데 使用되고 잇는 形便인데 바람이나 하우가트데는 그것을分明히 하기 爲하야 必要하지만은 其他 존대、하게、해라에도 부칠 必要가 잇겟습니까.

崔益翰 語意가 이미 分明한데는 부칠必要가 조금도업습니다.

柳致眞 語感의 强弱을 나타내기 爲해서는 必要치 안할까요.

宋錫夏 그런 符號는 勿論 歐米語에서 輸入된 것이나 이미 一般이 使用하고잇고 또 讀者에게 어떠한 感情을表示키 爲하야는 必要합니다.

崔益翰 그러니까 두가지로 몰수잇는데 一般的으로는 쓰지 말고 特殊한 데만 쓰는 것은 無妨하지요.

宋錫夏 大體로 쓰지 안는것이 조흘것입니다. 日前 常任이가편지를 햇는데 全部 그런 符號를섯이여요. 쓰기는 바르켓습니다만. (一同笑)

洪起文 引用句는 『』,『』等의 符號로도 表示하고 一字를나려 써서도 表示하는데 그 어느便이 조흘까요.

金珖燮 『』가 普通 만트군요. 또보기에도 第一 낫구요.

崔益翰 橫書에는 『』가 조코 縱書에는 『』이 조흔데 아조 分明히 하기 爲하야는 「」보담 『』가 조치 안홀까합니다.

李克魯 그러치 안해도 「」는 「」과 混同되기 쉬우니까 그건 事實로 『』가 조흡니다.

崔益翰 引用句속에 또 引用句가 잇는境遇도 잇습니다. 그런때 원 引用은 『』을 쓰고 二重引用의 境遇에는 「」를 쓰는것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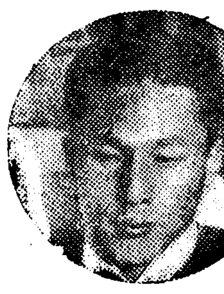
宋錫夏 和文冊을 보죽 冊名가트데는 『』를쓰고本文引用에는 「」를쓴것 갓습디다. 또本文引用도簡單한 때는 「」을쓰고 좀 長文일때 別行으로 한 字를 나려 쓰지안든

가합니다.

趙潤濟 아니 重要하고 不重要한 關係가 아닐까요. 卽 重要한 것은 한 字 나려 別行으로 쓰고 그러치 안한 것은 그대로 「 」를 처두고 말입니다.

洪起文 外國의人名과地名은 어떠케든지 따로 表示를 해야겟는데 그건어떠케 表示하면 조켓습니까

柳致眞 나는 傍點을 처보앗습



니다

洪起文 요사이 漢文에는 !……等의線으로 表示하고 잇습니다

宋錫夏 傍線은 冊名을쓸때 퍽보기실트군요

柳致眞 그러면 活字의 모냥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요

金珖燮 꼬직體로쓰면 될까요

趙潤濟 꼬직보담은 차라리 傍線이낫지 안켓습니까

李克魯 傍線을 그으려면 朝鮮文에서는 오른便보담 왼便에다가 그어야 할줄압니다 그건와 그런고한즉 오른편『ᅵ』가 부터잇서 그와 混同되기 쉽습니다

橫書와縱書의是非

洪起文 倫敦 紐育等 론돈 뉴욕으로 읽는 것은 어떠습니까.

李克魯 그런 것은 斷然업새야 합니다.

金珖燮 업새는 게 조습니다.

洪起文 모찌아이나 모도리等의 말은 漢字를 取하야 保合 또는 戾리고쓰는데 어런 例는 어떠습니까. 例단 市場에만이어야니요 딴 部門에도 和語 그대로 만히 들어 왓는데 그런 것을 和文式의 漢字로 表示해서 朝鮮의 漢字音으로 읽어 노흐면 도리어 不合理하지 안습니까.

趙潤濟 말 그대로 쓰는것이 조습니다.

洪起文 橫書에 對해서는 어떠케들 생각하십니까.

宋錫夏 글짜를 쪼개서 橫書하는것보담도 글짜그대로 橫書하는 것도 조습니다.

李克魯 理論으로 글짜를 모도더가지고 橫書하여야 하겟지만은 그것은 實用上 어렵습니다.

洪起文 그러나 印刷라든지 타이프라이터 等으로 보아서는 書橫의 將來가 大部分 글짜를 모도더가지고 하는데 잇슬줄압니다.

金珖燮 지금 그러지안하도 朝鮮語의 綴字問題가 서끄러운데 또 縱橫書의是非까지어러키어서는 斷斷더시끄러커만 하지안홀까요.

洪起文 아니 橫書를 하는데 따아서 綴字問題의 是非는 도모지 업서저 버립니다.

趙潤濟 縱書나 橫書나도 究竟生活의 關係입니다. 우리는 우리네 傳統대로 縱書하는것도조흘것갓습니다.

崔益翰 正音의 字樣을아조 變革한다면 몰라도 그러치 안코서는 橫書를 못합니다.

金珖燮 文字美觀上 재미업습니다.

趙潤濟 아까도 말햇지만은 橫書는 科學以外의 問題입니다. 橫書가便利는 하겟지만은 지금 우리네 生活로는 그대로 縱書하는 것이 可할듯합니다.

崔鉉培 그런데 橫書問題에 對해서 나는 따로 한말슴할것이 잇습니다. 아까 어느분은 理論으로 橫書를 主張하는것은 만히쓰면쓸수록 조흘일이라고 하섯지마는 橫書를 理論만으로 主張할것이 아니라 먼저 實驗부터라도 橫書欄을 두어서 實地로 橫書를 使用해나가스면 조켓습니다. (一同笑)

外來語標音問題

洪起文 外來語標音에 잇서서 K는ㅋ、P는ㅍ、T는ㅌ를 取하는데우리 音의『ㄱㅂㄷ』을 보통을『KPT』로 標音하는 것과比較해 보아서 矛盾이아닙니까

金珖燮 果然 가카、자차等의

音이 混同되어서 困難합니다

宋錫夏 左右間 어디로든지 一定하게써야만 할 것입니다

李克魯 그것은 全體的으로 決定하여야할 問題지 그러케斷片的으로 決定할 것은 못됩니다.

金珖燮 『ㄱㄷㅂ』은 『GDB』로 標音하는것이 조흘줄 압니다.

洪起文 英語의Z音을 사行音으로도 쓰고 자行音으로도 쓰는데 그 어느便이 그래도近理하겟습니까. 거기는 地方的 差異도 잇는듯 합니다만.

趙潤濟 자行音에 가깝지 안할까요.

李克魯 나는 사行音을 씀니다 내생각에는 역시 사行音에가까우니까요.

柳致眞 오히려 사行音과 近似하지요.

崔鉉培 音理로는 勿論이요 實用으로도 사行音을 取해쓰는것이 올홀줄 압니다.

洪起文 ㄹ音은 初聲에서 L音을 내고 終聲에서 R音을 내는데 外來語의 L과R音은어떠케 區分해야합니까.

李克魯 初聲의L을重聲히『ㄹ』로 表示하라가 問題입니다.

洪起文 아니 母音아래 R도ㄱ냐 L과 가티 ㄹ바침을해두라、『ㄹ』라고 쓰라 卽 흘몬이라고쓰랴 흐르몬이라고쓰랴가 問題되지 안습니까.

李克魯 그건 흘몬으로쓰는것이 조흘듯 합니다.

金珖燮 初聲의L은ㄹㄹ쌍으로쓰

는 것이 조흘듯 합니다.

李克魯 그러케까지 억지로 區別할것은 업슬줄 압니다.

洪起文 우리말에는 長短을 表示치 안습니다. 그래서 쇠다리(牛足)나 쇠다리(鐵橋)나를 쓰기는 마찬가지로 쓰고 잇습니다. 그런데 外來語에는

이 長音을 表示키 爲해서의 符號를 쓰는데 그것도 困難한 點이 잇습니다. 卽 音의 長短은 母音에나 잇는 것이니까 ㅣ를 지르고 다시 그아래다가 바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ㅣ르리』와 가티. 그런것은 어쨋스면 조켓습니까.

李克魯 그럴 必要가 잇슬까요. 어차피 그사람네 語音대로 내지 못 할바에야 長音을 꼭 表示할것도 업습니다.

趙潤濟 最大限度로 그語音을 가찹게내자니까 말이지요.

宋錫夏 그러치요.

李克魯 字典에는 몰라도 普通 記述에는 必要가업슬줄 압니다.

謹賀新年

平澤

振威郡玄德面雲井里 李康憲

振威郡梧城面安仲里 鄭奭鎭

道會議員 李敏烜

振威郡玄德面雲井里 李敏浩

平澤驛前 第一自轉車店 主 李文榮

332373 朝日館 妓生
表成權高表金韓
弄弄錦蓮仲香甌
月珠珠月仙花玉
韓金朴李李金鄭
美松桂花春錦椿
香鋼玉仙心仙姬

平澤驛前 麥粉砂糖 石油鑛油 綿類雜貨商 安興商店 電話四八番 振替口座京城二八三九九番

朝鮮料理 朝日館

平釜線平澤市場通 海陸物產 貿易及委託販賣業 海東商會

京釜線平澤驛前 大濟完乾材局 主 李大榮

京釜線平澤驛前 平澤洋靴店 振替口座京城七二〇三番

京釜線平澤驛前 綿絲布 廣信商會 主 俞泰根

京釜線平澤驛前 丸光商會 主 韓光泳

京釜線平澤驛前 布木商 申定植

京釜線平澤市場 綢緞綿布 穀物商 洪淳河商店 振興商會

京釜線平澤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都散賣商 興一商會

京釜線平澤驛前 陶磁器 金物 及雜貨 東日商店 主 李琇泳

京釜線平澤驛前 ㊀東一運輸組 代表者 金泰權 電話四六番

振威郡農會

振威郡平澤面平澤里 忠南屋 主 金玉吉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天安支店平澤出張所

振安自動車運輸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 平澤代行營業所 主任 李成烈

朝鮮麯子株式會社 平澤支店

平澤酒造株式會社

本籍平安南道孟山郡[illegible] 現住所京畿道振威郡平澤面通伏里 朴基春

平澤驛前 古物貿易商 水飴卸賣 金三達

平澤稅務署

京釜線平澤驛前 全州旅館

振威郡安仲市 布木雜貨 順興商店

振威郡安仲市 東亞醫藥社 主 尹炫九

安仲市場 穀物貿易 肥料販賣 安興商會

振威郡梧城面鶴峴里 金炯玉

振威郡浦升面道谷里 崔炳國

振威郡浦升面道谷里 孫震燁

振威郡彭城面松花里 張淳英

振威郡浦升面道谷里 崔炳純

彭城面安亭里 李興男

玄德面德睦里 玄德公普後援會長 孔季烈

振威郡玄德面雲井里 李國憲

振威郡古德面防築里 鄭鎭海

振威郡古德面宮里 崔宗和

振威郡古德面防築里 趙炳鎬

振威郡彭城面頭里 朱洛文

振威郡彭城面平宮里 尹泰亨

振威郡彭城面老瓦里 李漢奎

振威郡彭城 面職員一同

振威郡彭城面老瓦里 李圭植

振威郡彭城面老瓦里 鄭成教

芙蓉館 妓生 李景香 金杉仙 尹梅紅 張[illegible]

平澤驛前 和洋金物 建築材料 大工道具 漁網絲 日鮮金物店 支店 安仲市場

平澤 李成烈

京釜線平澤驛前 一也桂籠店 主 林秀鎬

平澤驛前(외과거리) 東亞醫院 醫師 崔容 電話五十七番

米穀 雜穀 肥料 農具 光興商會 主 洪[illegible]

京釜線平澤驛前 雜貨都散賣 平田商店 主 田文仲

京釜線平澤驛前 海陸物產 委託販賣 平澤商業組合

平澤驛前 安鍾喆

朝鮮料理 芙蓉館

京釜線平澤驛前 鮮一洋服店 主 許勳

平澤病院 엑스光線科 公醫 崔鍾完

李滿鶴商店

趙成河商店

京釜線平澤驛前 日光屋洋服店

京釜線平澤驛前 金銀細工 布木 肥料 裕成商店 主 李禹善 支店 安仲市場

京釜線平澤市場 和信自轉車店 主 李敏福

京釜線平澤驛前 穀物貿易 秀南精米所 主 李仁秀

京釜線平澤驛前 綢緞布木 各種紙物商 南一商會 主 方泳英

京釜線平澤驛前 藥種賣藥 醫療器具 化粧品 第一堂藥房 本店 安城、烏山

京釜線平澤驛前 陶磁器 諸金物 大昌商店 主 李[illegible]奎

京釜線平澤驛前 三光堂時計店 主 金瀷富

魚物 乾貨 平澤商店 李容煥

京釜線平澤驛前 鄭昌薰金物商店

京釜線平澤驛前 和洋雜貨 都賣商 元昌商店 主 崔昌烈

京釜線平澤驛前 雜貨都賣商 張子英

京釜線平澤驛前 時計眼鏡 光學堂 主 李德熙

京釜線平澤驛前 製綿打綿 安相鳳商店

京釜線平澤驛前 海產物 李明熙商店 支店 西井里

京釜線平澤驛前 各種果物 菓子 卸販賣 金昌培商店

平澤 司法書士 洪淳龍

京釜線平澤驛前 大成旅館

平澤驛前二二八 京織屋

振威郡平澤面新興里 文昌商店 主 文在南

平澤驛前 日用雜貨 平興商店 主 許馨亮

京釜線平澤驛前市場通 各種自轉車 優良部品 販賣及修繕 ガソリン コンロ 安城自轉車店 主 崔[illegible]

平澤農業倉庫長 緒方尙

京釜線平澤 中華料理 慶興館

郵便所長 石川順平

京釜線平澤驛前 中華料理 雙鴻館

平澤 洪炳烈

平澤驛前 醫生 柳彰河

平澤 鄭英謨

振威郡平澤面平澤里 松月屋 主 陣光三

振威郡青北面德佑里 李起秀

振威郡梧城面新里 米穀商 金思亨

梧城面安化里 鄭泰鎭

여러분의社交場 客室一新! 料理新鮮!! 和洋料理 朝鮮 安一館 京城、安仲

安仲商工組合 組合長 金在翼 理事 朴漢植 副理事 鄭時哲

振威郡安仲市 安仲酒造場

振威郡浦升面 內基釀造場 主 李周憲

조선 [illegible] 그래서 다가[illegible]도 어느음식[illegible] 나다고 [illegible] 어느음식은 맛이 업다는둥 다가든음식을만드러도 어느음식은 몹풍이 [illegible] 어느음식은 몹풍이업다는둥 여러가지로 달르지안습니까。

그러면 음식중에도 제일 훌륭하고 맛나는 음식은 누가 먹엇을까요? 그야 호천지하게부귀를 누리든 공경대가(公卿大家)에서 제일 잘해 먹엇을것입니다。만일그보담도 더 조흔 음식 예날 상감의 수라상! 팔만드러도 그상에는 산해진미에 만반진수가 느러젓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경대가의 모든 음식도 궁중과다를이업는데 일반민가에 꼴고로 퍼지지를 못하얏든것입니다。더구나수라상에 차리는음식도 무엇을 어예케루만드러서 어떠케 밧드러 어떠케 잡숫고 어떠케 물리시다는것은 일반으로 잘알지못하는것이엿습니다。

안주방•밧주방에 음식마다차비

★ 차리고드리고잡수시는법 ★

수라상이라면 예날 상감께서 잡숫든 특별한상이올시다 인만큼 거기에는 음식만 보통 음식과 다를뿐아니라 기명이라든지 상을차리는법이라든지 상을 드리는법이라든지 상을잡숫는법이라든지 상을 물리는법이 모두 우리네 일반의 생활양식과는 다르만큼 먼저 이러한 의식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는것도 재미잇슬듯하기에 대강아는대로 몃가지 먼저 려어보겟습니다。

첫재 궁중에는 주방이란것이잇고 그주방에 매여서 음식을 만드는사람들을 주방나인이라고합니다。그리고 주방에는 외주방과 내주방이잇서서 외주방은 상감마마께서 잡수시는 음식만을 만드는데이고 내주방은 대비마마시라든지 중전마마시라든지 공주 옹주께서들잡수시는 음식을 만드는데입니다。

이러케 음식을 만든뒤에는 상을차립니다。상에는또한 박갓반상과 안반상이라는것이잇는데 박갓반상이란것은 상감마마께서 잡수시는 상이고 안반상이라는것은 쉽게말하면 중전마마께서 잡수시는상입니다。

그러면 이 박갓반상과안반상은 어떠케 다르냐하면 물론 그상에차리는 음식도 잡수시는분의 식성에따라조희하시는것과 조희 하시지안는음식에 따라서 다소간 [illegible]틀리지마는 첫재 기명에잇서서 다가튼 은그릇이라도 박갓반상은 기명뚜케에 꼭지가업고 안반상에는 꼭지가잇는것이 틀립니다。그리고 그런음식을 차리는데이밥은 어떠케생겻느냐하면 [illegible] 나주(羅州)반인 밥은 동은 [illegible] 면통그런 큰반에 [illegible] 리고 소반[illegible] 려지면서 옥판으로 [illegible] 러차고 거기에 아(亞)자문 [illegible]의니 [illegible]희(囍)자무늬니 한것 유색이것인데 이러한 수라상은 반드시 [illegible]상을 차립니다。하나는 원상이라고해서 보통 잡수시는 조석음식을 차리는것이고 하나는 곁상이라고해서 보통 잡수시는음식이외에따로히 잡수시고하시는음식이라든지 내시척신의집에서 바치는 별다른음식을 차려밧드리는것입니다。

이러케 주방에서 수라상을 차려노흐면 지밀나인과 복처나인들이 나와서 차려노흔 상을 엄숙히 겻사를하는데 지밀나인이라는것은 상감을 가까이모시는 나인이고 복처나인이란는것은 중전마마나 대비마마께서유모나 몸종을 복처[illegible]에서 데리시고 오신나인들입니다。그리고 수라상에차리는 음식은 대개 그런데경이 틀린도록 노괴달는것인데 이지밀나인과 복처나인들이 겻사를해보아서 아모런 실수나허실이업스면비로소 상감마마께와 중전마마께 엿줍니다。그래서 잡수시겟다면 상을밧드는데 이것은 지밀나인이나 복처나인이 밧드는것입니다。먼저 보자(褓)를 [illegible]시면 나인이 회건(요새말로 나프킨)을 밧드러 치시고 나인이 상에서 그릇뚜껑을 열면 손수 수저를 드서서 잡수시는데 멀리 노힌 음식을 잡수시려하시면 나인들이 저까락을 들고 여메 뫼섯다가 그음식을 집어서 밧드기도하는것입니다 이러케해서 다잡수면 숭늉[illegible]소 상을 물리시면 그물린 상은 대개 나인들이 논하 먹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랏상에 차리는 음식은 대체 무슨음식을 어떠케만드는가를 적어보겟습니다。그런데 첫재 밥은 어느때나 흰밥과 팟밥 두그릇을 차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잡수시고 시픈대로 잡수시게하려는것입니다。오직 수라ㅅ상뿐이 아니라 공경대가에서도 대가이나 명가이니 하는 이름은 대개는 이와 비슷한 법으로 먹엇습니다。좌우 음식을 먹는 법에는 엄격파 치하의 어한 구분이 업섯든 모양입니다。

물론 아모리 공경대가라고하더라도 대궐안에서 한것이 그러케 기명이라든 수저라든지 음식가음이라든 조흘수는 업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담 조금 못한 것이어니 생각하면 별로 틀림것은 업는 노릇입니다 (사진 위는 옥으로 맨든 술잔, 아래는 은으로 맨든 병)

수랏상에오르는 찬수몃가지

전복초

전복을 물에 불린 뒤 가장살이를 도리어 내고 얇게 저미고 푹 물으도록 삶어서는 조흔 진간장을 치고 비치 까마케 다시 한번 끄립니다。그다음에쇠고기를 곱게 다저서 양념해 너코 파마늘을 곱게 다저서 조금 너코 설탕을 치고 해서 간을 마침니다。

홍합초

홍합을 푹 무르게 삶아 가지고 진간장에 끄립니다。그다음 전복초와가티 고기를양념해서 너코 파마늘을 곱게 다저 너코 설탕을 처서 마춥니다。

관전자

생치(生雉)를 털을 뜻고 내장을 끄내뒤 물에 정히 씻어서 살짝데처 가지고 나붓나붓하고 조금조금하게 모냥잇시떠냅니다。그러는 한편으로 고기를 곱게 다저서 양념을 한뒤물을 조금 처서 복가가지고는 생치저며 낸 조각을 냄비에 족펴노코 그 고기 복가 낸국물을처서 수까락으로 꼭꼭 눌러 가면서 지저 냄니다。그 다음 오이、표고、해삼、전복、배등속을 생치와 가티 썰어서 양념하야 놋습니다。그리고 생치삶은 물에 간장、설탕、초를처서 간을 마치어 가지고는 고속에다가 모두 넛습니다。그우에실백자를 떠우고 또 그국물을더 맛나게 하기 위하야 육즙(肉汁)도 조치는 것이 조습니다

느리미

조흔 도라지를 알맛게삶어서 쓴물이 빠지도록 물을 자조자조 갈아서 한이틀ㅅ동안 우려내 가지고는 송송발려서 굵지도 안코 가늘지도 안케 기리 한치닷푼되게 썹니다。다시연한 고기를 그대중으로 썰어서는 가진 양념하야 살짝 복고 양을 불려서 그여시고기만큼썰고 고기와함께 양념하야 삶습니다。그뿐외에도 등골을 달걀에 부치고 전복도 푹 물리어 도라지만 하게 썹니다。또 한가지 더 움파의 누른 이쁜 살짝 데처서 다른것의 기리나마 찬가지로 잘릅니다。그래서는도라지、고기、양、등골、전복、움파들을 사이사이로 가는대꼬창이에 꾀는데 그기리도 한치닷분쯤 되게 합니다。먹을때는 물론 초장을 타노하서 거기찍어 먹게되는것입니다。

족편

가랑족 두개를 가저다가 뼈를 발려가지고 솔직 데처낸뒤 쩡고기바마리와 한데 삶어서 곱게 다지어 가지고는 뭉근한불에 조립니다。조금 떠서 대접에담으면 곳 구더 버리도록되기까지 조리어야 합니다。그래서는 그릇에 퍼가지고 간장을 조금 처서 간을 마친뒤 널따란그릇에 얄팍하게 담습니다。미리 달걀황채와 실백자가루를 준비해 두고 송이버섯도 채처 두엇다가 고초ㅅ가루와함께 그 세가지를 골고루 뿌리어서 구친뒤 반듯반듯하게 썹니다。

가리구이

소가리를 한치당씩 잘라서 가로 잘게 의고 기리로 고기가 떨어지지 안토록 서너번의어서 물에 한삼십분동안 담아 두엇다가 핏물이 울어 낸 뒤 고기가 떨어지지 안토록 꾼게 끄내서 정한 세베행주에 싸서 꼭 물을 짜냅니다。그래서는양념을 하는데도 먼저 배를 강판에다가 갈아서 가리안피게바르뒤 마늘파를 곱게곱게 다지고 진간장과보통장을 반반씩탄데다가 참기름、깨소곰、후추ㅅ가루 설탕과아울러 파마늘다진것을 섯거서는 가리안피그로바르는것입니다。고기리를 섯수에 방작 굿습니다。

구절판

첫재 연한 고기를 가늘게실가리 썰어서 양념하야 복고、둘재 미나리를 정히 씻어서한치만큼씩 잘러서 기름에 복가서 가진 양념을 하고 셋재표고를 채처서 양념하야 복고 넷재 쇠양을 검은 것은 벳기어 내고 하얀 것만 가늘게 썰어서 양념하야 복고 다섯재와 여섯재 달걀을 흰자 누른자 갈러 가지고 부처서 재치고 일곱재숙주를 아메우 때서 데처 서는 가진 양념을 하고 여덟재 무나물을 가늘게 썰고 양념하야 복고 아홉재 청엽을 가늘게 실가리 썰어서 가진 양념하야 복고 열재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야 중보시기의 아가리만큼씩 조금조금하게 부처서 갓을 동그라케 모냥잇게 다듬습니다。그러고는 중간에 한구녁 사방벵 돌려서 아홉구녁을 동그라케 판구절판 찬합에다가 맨가온데구녁에는 밀전병을 담고 사방 아홉구녁에는 그이외 아홉가지를 따로따로 담아 노흐면 그 아홉가지를 밀전병에 싸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게 됩니다。

잉어숙회

잉어를 지느러미를 다치지말고 비눌을 긁거서 내장을다글거내버리고 물에다가 참기름파소곰을타서 잉어 왼 몸둥이에발릅니다。그래서는 기름 한접시를 담아서 경그레에 노코 솟에다가 쩌내어 초고치장에 찍어 먹습니다。

숭어찜

숭어를 내장을 꺼내서 정히 씻어서 바에 조개 가지고는밀ㅅ가루를 무치고 달걀을 씌이어 부칩니다。그리고는 고기를 가진 양념을 하야 냄비에 담고 그우에 숭어 부친것을 노흔뒤 표고한개를 세쪽식 비고 석이버섯을 회하야실고초와 한케 뿌리어서는 물을부어시고 간을마치어 끄립니다。

생치만두

생치 한마리를 털을 다 뜻고、내장을발러버리고 정히 씨서서 무한개와가티 푹 무르게 삶어서는 생치를 뼈를 다 바르고 무와한데 주물러서 가진 양념을 하야 대추만큼식 단단히 뭉처 모냥새 잇게 맨듭니다。그래서는 실백자를 무서너개식 박고 녹두녹말ㅅ가루를만히 씨워서는 고기장국을 맛잇게 끄리다가 너허서 더 끄려가지고 국물과함께 합에 담고 계란채와표고채를 약간 뿌리고 실백도 조곰씩 떠웁니다。

조란유란

대초를 쩌 가지고 체에 걸러서는 백청과한데 반죽을 하여서 대초모냥으로 맨들어서는 실백가루를 무처어 놋는 것이 조란이요 밤을 푹 무르게 삶어서 껍질을 벗기어 가지고는 방맹이로 찌어서 체에 걸러서 계피ㅅ가루와 백청을 처서 반죽을 해서 밤모냥으로 맨드니 이것이 유란이란것입니다。

두텁떡

팟을 게피하야 쩌서 어레미로 걸러 가지고 게피ㅅ가루와 설탕을 너허 가지고 소테다가 불을 뭉근하게 때어 가며 복가서 팟비치 게피ㅅ가루ㅅ빗처럼 되도록 복가서 고운채로 침니다。그다음 귤병을 곱게 다지고 대초를 가늘게 채치는한편으로는 찹쌀ㅅ가루를 끌물에 설탕처서 반죽을 질게 하야 가지고는 속에는 귤병다진것을 너코 경단처럼동글게 맨들어서 복근팟가루를 씨움니다 그래서는 시루에 팟가루를뿌려가며 케케이 노하서 보통떡처럼찝니다。

대초조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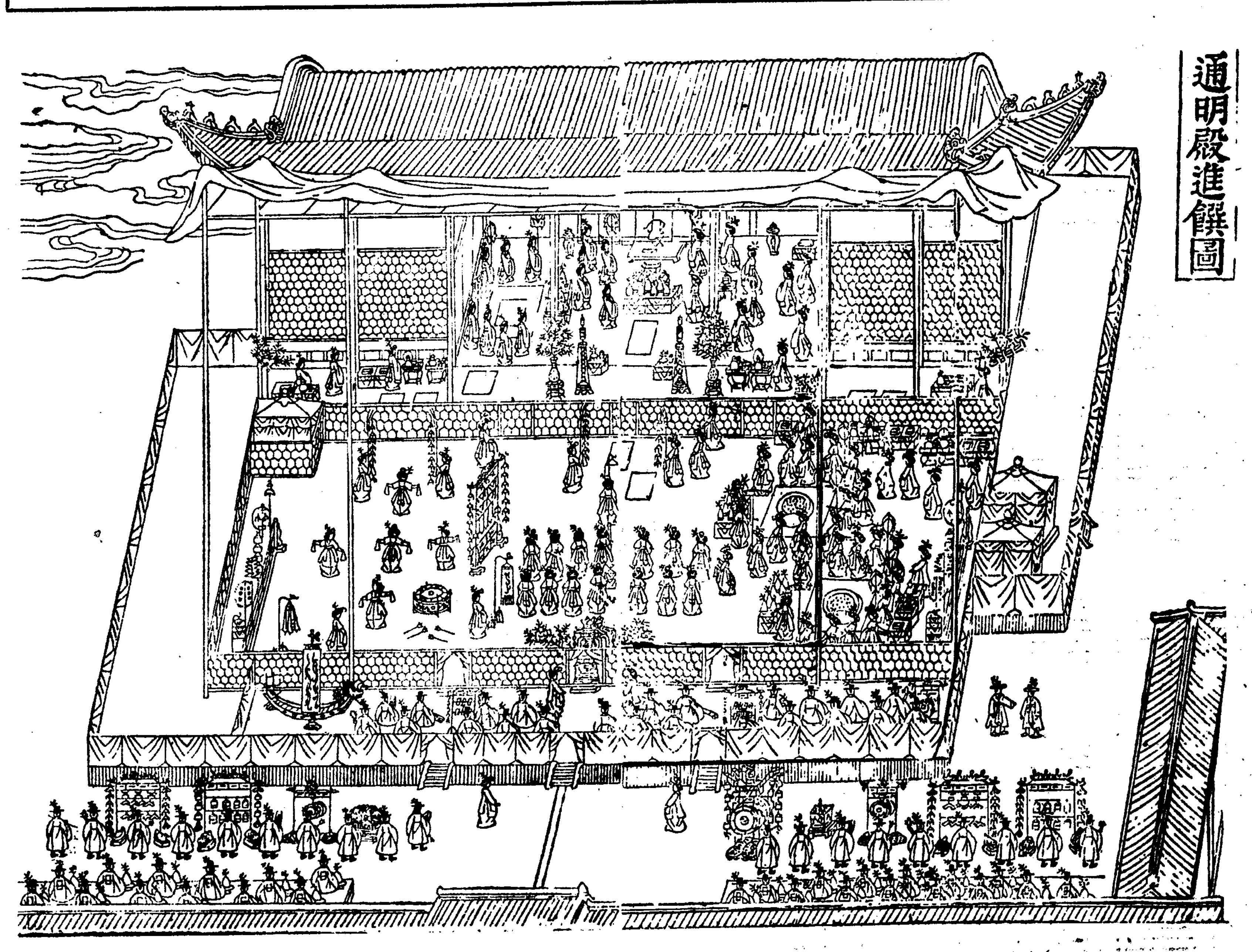
대초를 씨를 빼어 다지고찹쌀ㅅ가루를 대초다진 것보담조금 만케석거서 끌른 물에 녹신하게 반죽하야서 골무만큼씩 이쁘게 비저는데 속에꿀팟을넛습니다。그래서는 참기름을 끄리다가 너허서 지저내어 꿀이나 설탕을바름니다。

재증병

흰떡을 처서 가래를 맨들지 말고 시루에 다시 너허서더웁게 두어 가지고 그걸로골무만큼씩 비저서는 꿀팟으로 소를 너코 녹두녹말ㅅ가루를 거죽에 발러서 솔니프로 케를 노하서 송편가티 찝니다。

명태조치

명태를 정히 씻어서 지느러미를 자르고 내장을 발르고 살에 하얀버레가 배히어 잇는것을 다 빼아 버리고 토막을친니다。그래서는 고운 고초장을 물에 풀고 꾸미를 썰어 너코 무를 나붓나붓하게 썰어 너코 간을 마치어 동태토막과 함께 허어 끄립니다。



通明殿進饌圖

이그림은 지금부터 륙십이년전 정축년 조대비전하 칠순진찬때 통명전에서 열린 진찬도입니다。

궁중의 큰잔치인만큼 온갓음류와 무악을 젭히고 내외종신들이 모혀 바로 잔치가 한창 벌러진 그림입니다。웃간 중앙이 어좌이고 향하야 외편이 왕비의 시연하시는 좌석입니다。그리고 중간깐 울흔편이 전하의 시연하시는 좌석이며 그미치 왕세자의 시연하시는 좌석입니다。그다음 중간에서부터 외편으로 나오면서 온갓춤을 추는데입니다。아레간이 두줄로 느러안저 온갓 풍류를하는 악장들의 좌석이고 그바갓술이 원편으로부터 종친의빈 척신의 차례로 좌석이 정해저 잇습니다。그리고 잔치가 버러지기전에 대비께 문안드리시는 배위가잇는데 왕후배위는 왕후 시연하시는 좌석미치고 전하배위는 전하시연하시는 좌석에서 아프로 나와 대비어좌 바로 정면입니다。그리고 왕세자 배위는 전하배위의 울흔편쪽으로서 대비어좌의 정면을 약간 비켜난데입니다。

그리고 시연하시는좌석마당에는 시위니 부채니 일산이니하는것이 버려저서 풍류와 함께 잔치가 버러지면 그광경이야말로 상운서일이 떠도는것입니다。그림을 보시면 춤추는 모양과 풍류하는 모양이 다보히는데 머리에 꼽은것은 어사화입니다。그리고 우에서 설명한 배위와 시연위는 자리가 깔려잇는데입니다。

謹賀新年

安城

城南電氣株式會社長 安城酒造株式會社長 株式會社三金社長 安城金融組合長 朴弼秉

安城郡廳 安城警察署 安城道立醫院

東光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容觀 專務取締役 李南秀

社長 朴弼秉 專務取締役及支配人 睦頊相 常務取締役 朴容復

不二產業株式會社長 安城邑會議員 朴容寅

合資會社 大東百貨店 社長 鄭殷薰

京畿道安城郡安城面東里五七四番地 振安自動車運輸株式會社 社長 市山直衛 副社長 朴弼秉 專務 森賢吉 常務 尹在喆

朝鮮料理 太平館 京畿道安城邑內 主 姜必福 電話一〇八番 藝妓 金錦紅 林春紅 全明心 宋彩鳳 金錦玉 宋惠心 李玉珠 朴美蓉 朴花仙 柳月波 崔明花 張錦花

株式會社 東一銀行安城支店 支配人 徐廷翊 支配人代理 崔學魯

和洋料理 カフェーキング 女給 照子 貞子 洋子 春子 君子 タミ子 澄子 花子 ミドリ 京子

安城第二金融組合理事 山根滿夫 安城金融組合理事 東田隆次郎

安城郡孔道面 果樹業 中央農園 主 閔泳完

京畿道道會議員 京畿運送株式會社長 安城邑會議員 睦頊相

金魯默

安城商工貯蓄組合長 安城邑邑議員 朴嵩秉

安城庭球俱樂部

活動寫眞常設館 愛園劇場 電話二九番

高等料理 同樂園 電話四〇番

安城邑事務所

朴容復

株式會社 安城商會

安城鍮器製造株式會社

安城郡安城邑 鄭悳奎 電話三二番

綢緞布木 李有成商店

京畿線安城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取引店 京畿運送株式會社 電話五八番 振替京城一三〇〇九

城南電燈式會社

大東醫院 院長 李鍾震 電話三五番

穀物貿易 肥料販賣 布木部 合成商會 主 金錫浩 電話二六番

京畿道安城郵便所長 關谷正

牛皮貿易商 片福同

太平館 金錦紅

安城郡孔道面郵便所 所長 禹敬浩

綿絲布木 肥料セメント ゴム靴 日用雜貨 大元商店 安城郡孔道面龍頭市 主 崔元鎬

安城郡孔道面熊橋里 李周榮

京畿道安城郡孔道 孔道產興株式會社 社長 金鍾祿

朝鮮京畿道安城郡孔道 和洋雜貨 各種穀物 及自轉車 日鮮生產品都散賣 鮮一商會 主 文龍錫

安城郡孔道面萬井里 李謙在

安城郡孔道市場 OK寫眞館 主 朴殷均

安城郡孔道面萬井里 李洪奎

安城郡元谷面龍耳里 金鎭泰

安城郡孔道面馬井里 林在秀

安城郡陽城面 奉禮燮

安城郡孔道市場 金壽童

安城郡元谷面盤諸里 張錫信

安城郡孔道面乾川里 鄭昌薰

安城郡孔道市場 崔基龍

安城郡孔道面熊橋里 崔鎭國

安城郡元谷面盤諸里 李義翼

安城郡孔道市場 穀物商 張錫僖

安城郡孔道面熊橋里 池弘植

安城郡孔道面新頭里 申壽鉉

安城郡孔道市場 京畿道安城郡孔道面龍頭里 大元自轉車店 主 白振成

安城郡孔道面龍頭里 李順興

安城郡孔道面萬井里 李仁珪

安城郡孔道面龍頭里 崔東熙

安城郡孔道面萬井里 面協議員 南廷瑞

安城郡孔道市場 穀物商 金正洙

安城郡孔道市場 李萬祚

安城郡孔道面珍沙里 朴海哲

孔道面佛堂里 朴佐鎬

安城郡孔道面熊橋里 金世昌

安城郡孔道市 柳來鳳

安城郡孔道市場 金鎭旭

安城郡孔道面熊橋里 車相玉

安城郡孔道面 豐農農場 李敎在

青山

青山 青一酒造合資會社

青山 元貞喜

青山 朝鮮料理 明月館 主 尹鳳瓚

青城面職員一同

青山面職員一同

朝鮮料理 青山 洗心館

青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青山 李演鍾

青山 朴勝萬

青山 元容赫

青城 全瑞煥

忠北青山市場 青信商店 主 安白學

忠北永同驛前青山市場 洪順化商店

青山 裵蘭秀商店

青山 明信商店 主 陳在春

青山驛食堂 金基喆

舍人

平元線舍人場驛前 大成燒酒釀造場 合川酒造組合長 順川郡學校評議員 舍人面協議會員 慈山水組評議員 舍人金組評議員 盧禎植 (振京一五八八三番)

朝鮮日報社舍人支局 支局長 盧仁淳 振替京城一〇二二六番 寫眞班記者 金相郁 支局員 羅明夏

平元線舍人場驛前 ◎朝鮮運送 株式會社代行營業所 支配人 金俊燮

穀物貿易 委託販賣 金山商會 主 金禎夏

舍人市 德山醫院 公醫 秦尙秋

精米、籾摺 肥料、叺 永豐精米所 主 金振玉

朝鮮料理 獸肉販賣 中華料理 委託販賣多數 平樂館 主 玄龍珠

舍人面 面長 李寬奎

舍人場 驛長 平岩義三

平南順川郡舍人市 高級自轉車販賣 修繕及附屬品販賣 金成自轉車商會 主 金[illegible]成

流行型紳士服 地方注文歡迎 技術本位調製 兄弟洋服店 金麗煥

舍人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女俳優繁榮記

지는꽃과피는꽃
花園日誌
이곳에도봄가을

❶

朝鮮에 映畵와演劇이 도입오지가 얼마안된다고는하나 그래도 벌서 數十年의歷史를 가지고잇스니 여기에 女俳優이야기가 업을수업다 荒蕪地에자라나는 일홈업는꽃들가운데는 아름다운꽃치 피여보지도못하고 시드러버리이가만흐며 劇中에는 꽃치되엿다 하더라도傳統이야른 그땅에 탐스러운꽃치되지는못하엿다。

先進國의 그것을 살펴볼때 女俳優이야기는 까십과戀愛事件等 — 그들의出演하는 劇과映畵의 이야기처럼明朗한것이 通例가되여잇스나 이곳의事情은 그와反對로 悲劇的인듯한것이 가지게한다 事實그들의 公私를 通한 生活속에는 明朗한그림자는 찾출길업고 도로혀悲劇으로 一貫되엿다는것을말하지안흘수업다。

눈나리는 겨울밤에 늙은호박을 삶어먹으면서 그호박이 자라나던 봄이야기를하는것과 찌는듯더운여름에 차듸찬 어름을 만작거리며 어름조차 백이지못하겟다고 쨍ー쨍꺼여저버리던 치운겨울의 傳說을 되푸리하는것은 『센지멘탈리즘』의 야릇한맛이라고 하나 朝鮮의 歷代女俳優들이 거러온 자취를 떠저보랴는 여기에는 짠맛도 단맛도 찾을수업다。

이야기의 始初는 지금으로부터 十五六年前 옛날로도라간다。하늘은 隕石이란것을 땅에 떠러트리나 이것은 決코 奇蹟이 아니다 그와가티 朝鮮이란 荒蕪地에 劇이 드러오고 映畵가드러와서 女俳優(?)란자이생겨난것도 奇蹟은아니다 新文化가 드러오자 거기에 劇文化도따라들어왓다 그것은 土月會란 劇團體가 東京留學生들中心으로 組織된것이 演劇첫藥이엿다。그리하야 土月會의初期에는 女役을 男子가맛터보도록 되엿스나 그뒤에 李月華란 女俳優를엇게되엿다 李月華가 劇界에처음으로나올때의 이야기는여러가지가 잇스나 그것은벌서 世人이알고잇는일이므로 여기는더쓰지안코 이야기의方向을돌려 月華의 出發을 알어보기로하자。李月華라는 少女가 劇에나올뜻하다는 소문은 그때의서울天地에 센세이숀날한일이엿섯다。그리하야 여러사람들이 이少女의집을 차자드며勸誘하게 되엿는데 그때의土月會일을 보고잇던 李基世氏가 친구의紹介로 月華少女의家庭을 訪問하게되엿다。으스름달밤인데 그때積善洞月華少女의 집에는 少女와그의偏母가 살고잇섯스므로그어머니의 承諾을맛고 少女를 對面하게되엿다。차침한방안 불로 히미한데 어머니와 少女마주편에 李基世氏와 그의 친구두사람이안젓다 웬일인지 少女는外面을 하고잇스므로 요새말로는『사진』을 자세히볼道理가 업섯다 요새 가든면처녀들이 茶房엘 마음대로出入하거니와 그때젊은 모쁘든 男子와는 얼골을 마조치지 안흐랴던때이므로試驗삼아 꿀려나가자고 입을열엇더니 意外에도 두말업시 同意하엿다 그래서 그때젊은 長安一流의 中國料理집 엘 간다고 長谷川町食道園으로 갓는데 방안에드러안저 불을켜보니 얼골이도모지 女俳優는 커녕남의집안잣지갈도 할것갓지안해서一行은 意外에감탄하엿다。그래서 女俳優가 되어달라는말도못하고 나왓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少女는 李月華가아니라 李月華의동무로서 이도 女俳優가되고시퍼하는 女子엿다고한다。실상、李月華는 李基世氏보다먼저 자저간 民衆劇團 尹白南氏에게 入團을 承諾해버리엿다고한다。이로서 李月華는 民衆劇團에 처음으로 데뷰하엿다。月華가 맨처음으로 出演한것은 尹白南氏作인『天罰』의脚本『출주는女子』이엿다。그뒤에土月會가 本格的으로 지금의黃金座자리에 잇던 光武臺란劇場을 가지고 興行할때李月華는 여기의 花形이엿고 朝鮮의 花形이엿섯다。그뒤에 그는 獨立하겟다는뜻으로 五洋映畵劇이란것을組織하야 가지고 上海等地로 巡業을 하다가 그도뜻대로 되지안코 그뒤 許秀龍이란이와戀愛의 봉오리를門司에 定하고 잇다가 지금으로 부터 四年前 三十歲를 一期로 世上을 떠나고말엇다。

×

李月華와 거이때를 가티하야 卜惠淑이 劇界에나타낫다。지금으로 부터 十四年前 그가 열아홉살적에十月會『치성드리는밤』이란첫 舞臺를 밟게되엿다。그때부터 李基世、趙大鎬氏等이 中心되여 잇는 藝術協會를 背負해서 여러劇團으로도라다니며 活動하다가 지금으로부터 六年前 그가스물여덟살적에『籠中鳥』라는映畵에 出演하고 그뒤부터는 映畵로 轉向하야 여러가지에 出演하다가 빼ー빼나스의 매당으로 그날의生活과 老來의 辦備를 憐念이업스며昨年여름中央舞臺가創立되자 여기에서 다시舞臺에 올라보앗스나뜻에 맛지 안엇던지 그도오치부지아무成果를못어덧다

×

그다음으로劇界의 女俳優로서 한때이야기꺼리가되던이는 李애리스엿다 그는故鄕開城에서 修業을잇는지말로자라낫스나 그의外叔이요그當時人氣노픈劇俳優 金顯麟의 紹介로、劇壇에첫舞臺를 밟엇다 그가처음으로 舞臺를 밟기는 그當時興行劇界의 巨頭이던 金小浪의 新派座엿섯다 少女役으로出世한 그는 착착나이가 들어감에따라 人氣는 작고 노파가고 그無재고도는여러가지話題는 끈일사이가업섯다

그리하야 그가스물세살적에 빅터ー의專屬歌手로 레코ー드界에 投足하자 여기에서도 센세이숀을 이르켯다。그러다가 市內의 어느돈잇는집 아들과 사랑이매저지고 그사랑으로 말미아마 飮毒을 하고 그리고곰이하야 지금은 李애리스이름이 여러사람들의 머리서 사라지랴고 하고잇슬때그는 麻浦에다가 사랑의복음자리를 定하고 商業하는夫君을 도우며 딸하나 아들하나를엇고 몸편한 家婦人이되엿다。

李애리스와 한가지로同時代부가노픈人氣를가진女俳優는 李景雪孃이엿섯다그도어러서부터新星座에서 자라낫다。그때時에 한참人氣가 노파가고잇던 喜劇의申不出君과 名콤비로 한때는劇界를 風靡하얏다。그의 力演이요 出世舞臺는『鬼哭』이라는 劇을劇成社에서公演할때엿섯다。그러던것이 지금으로부터 四年前 이도 여러가지의 曲折을거처 二十四歲를 마즈막으로世上을 떠나고말엇다

李景雪孃과 同時代로 人氣를끌던 女俳優中에 劇團이잇스니그는 平壤에서 學校에 다닐때부터劇에 興味를 가지고잇다가 마침내劇에 나오기되하야 十七歲때에 學校를 그

❷

만두어 버리엿다 그로 첫舞臺는 赤星聚星座에서밟게되엿스니 이때는 차라리聚星座의 黃金時代를 지난적이엿섯다 瓔花金孫에서 公演을하는데 처음으로 舞臺에서기시작하야 十年동안 레코ー드의歌手로女俳優로 劇團이란 劇團에는 거지반그의발자취를 남기어 노핫섯다 그가 昨年七月靑春座의舞臺로부터 떠난뒤 지금은 이도한빠ー에서 장사치로 그날그날을보내면서 지나간옛일을 머리속에서 反芻하고잇다。

그다음에 姜石齊孃과 姜石燕孃兄弟가잇스니 그들은十月會의末期 朝鮮劇場舞臺를 어릴때밟고 그뒤로 姜石齊만은 太陽劇場外 여러劇團에서 十年동안人氣를끌다가 昨年까지는 豪華船劇團에 머물러잇섯스며 姜石燕孃은 곳歌手로 轉向하야레코ー드界의 人氣가 劇의姜石燕보다 노펏섯다 사랑을爲하야 藝術을爲하야 飮毒을해서 한동안世上의話題거리가되더니 지금은 姜石齊孃과함께 茶房미모자의매담으로 착실한장사군이되여잇다。

이야기는 現代로 現代로도라와서 우리들의눈아프로옴겨온다。

지금의劇界는 三分四裂하야 이가운데서 몃몃의有爲한 俳優들을 가지고잇슬뿐이아니라 그數에잇서서는 업청나게만타 人氣가높흔이는中央舞臺의 南宮仙 金華船의池京順 人生劇場의 韓銀珍孃을들수잇다 池孃은 일즉豪華船에서 히로ー로 잇다가近間에는病으로 劇界를떠나기쉽것다하며 南宮仙은 일죽 梨花女高를 마치고劇界에 나오뒤靑春座에서脫退하야 中央舞臺의 人氣者로착실한前進을보이고잇다。

韓銀珍孃은 일즉이 靑春座에서 자라나서 그곳에서한사람의 演技者가되엿스나自己의 藝術的進就를 爲하야 中央舞臺로 그리고 또今番人生劇場에 새로되자그리로옴겨와서努力하고잇스니그의압날은 아모도 알사람이업는未知數일것이므로 다만 그의情熱과忍耐性 如何가 決定지워줄것이다

그밧게 靑春座에서 人生劇場으로옴겨온 金仙草가잇스니 그는劇界에 나선지오래되엿스며 레코ー드界에서도한참때는 일홈을날리더이다 그가家庭에 드러가서도劇을버리지안코 꾸준히 차우고잇는것은 劇界를爲하야미듬직한일이며 마즈막으로지금까지 靑春座에서 悲劇의一人者로 有名하던 車紅女孃또한 病드러누엇다니 우리는 그의 病快이 하로밧비回復되여서 다시 舞臺에서거 필날을 기다리고 끗을막자

朝鮮의 映畵女俳優는 대개가 演劇과 混同되여잇스니이것도 朝鮮의特殊事의 하나라고할수잇다 한사람의女俳優를 이야기할때 그가映畵界의사람인지 演劇界의사람인지 分揀키어려운수가만타 그러나 지나간것은 그의 活動을 보고이야기하며닥쳐올것은 現在의 그의態度를 가지고 分類하는것이다

朝鮮映畵界의 女俳優로서第一먼저손꼽아야할 사람은金靜淑일것이다。그는 映畵의初期時代에잇서서 가장만히活動하얏슬뿐아니라 人氣도노팟다。長恨夢 며등이를때 風雲兒等을 백히뭐에그의자취는 映畵界에서 부터사라저버리고말엇다 지금은어듸서 무엇을하고지나는지아는니가업스며 그와因緣이기픈 羅雲奎氏의 죽엄을압앗스면 오직 슬퍼하겟스랴

金靜淑과 거이 때를 가치하야 申一仙이 登場하엿스니 그것도 벌서 지금으로부터 十年前일이라 아리랑에서 羅雲奎와 共演한것을비롯하야 그의人氣는 한동안 世上을 뒤흔들엇섯다。그러다가 全羅道의靑年富豪와 家庭을 이루고 映畵界를 떠낫스나 어떤아이까지나코도 映畵에 鄕愁는 어이할수업서 다시新版노라의話題를 만들며 아리랑三篇에出演한다음 잠간동안 일홈도업는 巡回劇團에 몸을던저 괴에로의 쓰라림을맛본다음 늦긴바잇섯던지 그러치안흐면 밀려드는 生活苦에 지첫던지 그는 再昨年겨울부터 妓生이되여버리엿다。그다음에 申一仙의 뒤를이어 羅雲奎프로덕숀에서『잘잇거라』『玉女』等에서새로히 나타난 히로ー는 全玉孃이엿섯다。

그는 羅雲奎가 獨立프로덕숀의 失敗를當하자 레코ー드界에 나아가서 人氣를노펏스며 지금은 이또한劇界와映畵界와 레코ー드界에人氣노픈劇俳優姜弘植君과사랑家庭을이루고잇다。그뒤에金蓮實이 나타낫스나 이는映畵에서 劇으로 劇에서 映畵로 그리고 다른意味에서話題의 主人公이엿섯다。數만흔 사랑의 복음자리에서 자리로 재바르게 옴겨다니다가 再昨年겨울 米國에서 도라온 李某라는靑年과 結婚하고 茶房『樂浪』의 女王으로 君臨하엿스나一年이 채못된 昨年十二月이또한 야릇한 스캔달끝말미아마 離婚을하고 茶房매담도 집어치운뒤 지금한창話題에 오르내리고 잇스니칼멘朝鮮版의 그뒤가 어더케될지 注目된다。

『江건너마을』과『人生航路』에서 人氣를엇자 本業인 妓生을 그만두고 映畵界로 나오는냥 싶던 玄舜子는 그뒤 스리스타ー라는빼ー에서 女給노릇을하고 잇스니 쓰라린人生航路라고나할까。

朝鮮映畵界의 先驅者이던羅雲奎氏가世上을 떠난뒤그의 消息은 알길이 업스나世上에서는 玄芳蘭의 일홈을 잇지는 안엇다 夫君羅雲奎氏가世上을 떠난뒤 生活苦는 그로하야금 어떠한

❸

길을 걷게할지 모르나 우리는映畵界의先驅者가 남겨두고간 그들을 映畵界에 나오게하야 압날의 燦爛한成果를 엇도록 해주고싶다。

申一仙이 사라진뒤에 그와對等한 人氣와 演技를가진이로서 文藝峰이잇다。그는 文秀一이라는 興行劇界의 老將의딸로 어렷때부터이方面에 잔뼈가 굴것다。보람이 잇서서 『나그네』의成功으로말미아마 現在朝鮮映畵界의 女王이 되여잇스니 아직도엇더한 前進이잇슬지 다음作品이 나오기前에는 말할수업스나 그의藝術的態度가 眞摯한것을보아 밧듯이 빗나는압날이잇스리라 밋는다

이밧게『五夢女』의 盧載信과『純情海峽』의 金映玉『沈淸傳』의金素英等 아직出發만을해노코 잇는여러女俳優中 그들의이야기는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될것이라고생각한다

盧載信은 그뒤一年이지낫스나 아모데도 出演할 機會가업서서 지금은무엇을하는지 팬의궁금증을 자아낸다 아마 착실한안해로서착한어머니로서 그는 家事에沒頭하고잇는모양이니 다음에 機會가오거든 朝鮮의映畵를 爲하야 다시 일어나서 일해줄것을 기다리자!

金映玉孃은 劇硏에서 일을보다가 『純情海峽』을主演하고映畵에나올機會를기다리며지금은中央舞臺에서 人生劇場으로劇에專心하고잇다。그는元來劇人이엿고 그의演技가 劇에뿌리밧은만큼 아프로로 이方面에서 活動하는것이 그를爲하야 올흘것이아닌가생각한다。

金映玉孃의 이야기가 낫스니 말하거니와 金孃과함께『純情海峽』에 出演한 禮美香이잇다

明治製菓의 티ー룸에서朴基采氏에게 發見되여 純情海峽에 出演할 機會를 엇게되엿다

本來 黃金座의 舞臺를밟은일이잇던 禮孃은 演技나얼골에 잇서서 不足한 點이업섯다 그리하야 處女出演에서 花形女優라는 評을듯게되엿다 美香이 明治에잇슬때의 이야기이지만 每日빼지안코오는 茶客에게

『당신은 茶먹는돈으로 묘廟와 소고기를사다가 찌게라도 만들어먹지 무슨必要로 이다지쓴茶를 날마다마시고게십니까』

하고 一場訓戒를한일이잇다 茶를파는 職責을가진 女子로서는 職業上할말이못되나그가얼마나 天眞스러웟다는것은 이로서알수잇다

그러면 美香은 그뒤失戀의쓰린맛을 참지못하야 飮毒을하고 一時는 生命을救해수업게 되엿다더니 지금은뽀아미라는 빠ー의女給으로 로

마즈막으로 極히最近의事實이지만『沈淸傳』의 主演者로서 金素英이잇다

이는『沈淸傳』에서 소흔演技를보이고 앞날이 가장囑望되는 사람으로서 沈着한性味가 그의前途를 도웁고잇다。

元來 靑春座의 멤버로昨年中央舞臺의 創立과同時에그곳을 脫退하야 中央舞臺에서 일을보게되엿스나『沈淸傳』의 主役者로 選拔되여서 映畵에 발을옴겨노흔것이다

압날의 金素英이 어떠한發展을할것인지?이는 映畵界의 한가지課題로 남겨두자!

×

여기까지 써왓는데 이繁榮記에 나온 女俳優들은演劇이나 映畵의나라에서 通用하는말로하면 花形이라거나 또는『二枚目』이라는이름뿐이다 數十年가가운 歷史를通하야여기에 쓰인사람들의 周圍에는 이사람들의數의 멧갑절되는 정말無數한그림자들이 浮沈하얏다。

처음出發할때는 내남없이제各各 覺悟와決心이업시잇섯슬것이며 花形을꿈꾸엇슬것이다 그러나 無數히浮沈되고잇던 그들은 그나마아모런成果도엇지못하고 永遠히 사라지고말엇스니 지금은不過하가운데잇다하더라도 過去에 조고만한 成果를엇고 일홈을날리든사람들에게 比하면 얼마나悲慘하냐그러나 이것은 四析에바한것이 아니요 成功과失敗의岐路에는 늘努力이라는 路

❹

標가 세워저잇다는것을이저서는 안된다。

한사람의 큰俳優는 하날에서 떠러지는것이 아니다이는언제던지 여러속에서 차저내고 여기서 자라나는것이다그러니 여기에는 演劇과映畵의곳스타ー에쓰여잇는『其他多數組』를 紹介하라는것이다

이가운데서 장차엇더한名俳優가 생겨날지 그것은여기서 壯談할수업스나 벌서부터 압날의劇界와 映畵界의女王이될 素質을 가진사람이잇는것만은 事實이다 李白姬孃은 이多數組가운데서는너무나 有名한 아니라벌서 한사람의 演技者로承認하야도 조흘사람이다 서울서자라서 京城女高를맛치고 여러가지 經歷을가진이다。그가 女學校時代에는庭球選手로 한참동안 學生들의 話題에 오르던사람이며會社의 타이피스트로 잇다가 劇界에나왓는데 처음으로나오기는 演劇協會創立公演때『구두쇠』의 舞臺엿섯다 今年에二十三歲ー軟한音聲과 호리호리한 몸집에조곰神經質인데를 살리면 그는 반듯이 큰演技者가 될것이다。지금 中央舞臺에서는 中堅에 갓가운存在다。

그다음 池草夢이란이가잇다 池孃은今年二十二歲의 처녀로서 열여덟살에 平壤正義女高를맛치고 豪華船에드러와서 지금은人生劇場에잇다 그의故鄕은 寧邊이며 人生劇場의 宋彪氏의 說에依하면 그의特徵과適役은『消極的인貞婦型』이라고한다。우수운소리가는다 이한말가온데 池孃의 全部를 理解할수잇는것이다 今年안에반듯이 主役으로 올라가고야말素質을 가젓다하니 明日의劇界를爲하야 미듬즉한일이다

東方暗이란이가잇다 일홈도그럴듯하거니와 演技도相當하다。어듸나마찬가지겟지만대개 多數組속에 잇스니가일홈이멋상이가 만흔것이다 東癸봄이라도 봄春의古字를쓴데는 風流가잇다 나히는스물 三年前京城女高를나와서 곳劇界에 投足하엿는데適役은 賢母良妻主義者라고하니 이도 人生劇場文藝部친구들의說이다

처녀役잘하기로有名한 南宮蓮孃이잇다 이는 十八歲昨年봄舞臺에 나왓는데 中央舞臺에서 人生劇場으로 옴겨온이다

꼿으로 여기에 天才를 하나 紹介하기로하자 쏘ー리레놀을 모르는 사람은업스나 嚴美花라는 少女를 아느니는 드물것이다

昨年봄에 東洋劇場의 靑春座에 發見되여서 七歲의小兒로 能히 舞臺에 올너서훌륭한 演技를 보이고 主演한것까지 잇스므로 이關界의 한가지 異彩가 안날수업다

(사진은 오른편으로부터 왼쪽으로玄舜子 李景雪 金靜淑 李애리스 玄芳蘭 盧載信 中央은南宮仙)

謹賀新年

丹城

晋州邑本町 許治九

山淸郡丹城面江樓里 趙在璣
山淸郡新安面 職員一同
山淸郡丹城面江樓里 趙在廈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權雲鉉
晋州邑錦町 正陽堂乾材藥舖
山淸郡丹城面虎里 鄭道時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河侃
京城府嘉會洞 鄭鍾和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沈在賢
晋州郡金谷面檢岩里 李成洛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在沂
山淸郡丹城面虎里 鄭益時
山淸郡山淸面諸斯軒藥房 主 權在轍
晋州郡大坪面大坪里 鄭元永
山淸郡生比良面 職員一同
山淸郡生比良面道田里 權載允
山淸郡新等面丹溪里 金仁淳
丹城金融組合德山支所 副理事 裵敬希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鏞圭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柳海珪
山淸郡丹城面官亭里 禹錫疇
晋州邑水晶町 許萬績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大燮
山淸郡丹城面堂山里 閔台性
山淸郡丹城面鍾岩店 主 李基洪
山淸郡新安面下丁釀造場 李亨洛
山淸郡丹城面倉村里 李漢龍
晋州邑西鳳町大德藥房 主 鄭榮錫
山淸郡矢川面新川里 鄭泰根
山淸郡矢川面新川釀造場 主 河漢植
山淸郡矢川面□里 李光洙
山淸郡丹城面代書事務所 李議尙 丞碩
山淸郡新安面新安里 李庸圭
山淸郡新安面新安釀造場 主 權泰國
山淸郡生比良面道田里 李相洛
山淸郡新安面長竹里 李□奎
山淸郡丹城面放牧里 朴聖得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河謹達
山淸郡丹城面放牧里 李琦洙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李□祚
山淸郡生比良面道田里 朴瀅鍾
山淸郡生比良面道田里 沈相臣
山淸郡新安面□□里 李秀雨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洛輝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善明
山淸郡三壯面 職員一同
山淸郡矢川面內公里 許在碩
山淸郡德山市場釀造場 主 鄭昞基
山淸郡矢川面 職員一同

山淸郡德山市場各種雜貨商店 主 金鍾鳳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志洛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李會壽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權泰根
山淸郡丹城面官亭里 權再興
山淸郡丹城面官亭里 趙瀅來
山淸郡新等面丹溪里 丹溪機業所 主 權寧皓
晋州邑榮町 李文述商店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佑燮
山淸郡丹城面默谷釀造場 主 李受永
山淸郡丹城面倉村里 孫□道
山淸郡丹城面紫陽里 金湖南年圖一同
山淸郡丹城面倉村里 李忠鎬
山淸郡丹城面倉村里 白南佑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成奇文
山淸郡矢川面中山釀造場 主 崔尙敏
山淸郡丹城面紫陽里 金宗鉉
山淸郡丹城面南沙里 釀造場主 鄭夏永
晋州邑水晶町 水晶湯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沈在萬

山淸郡丹城面紫陽里 許彰昊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炳碩
山淸郡三壯面釀造場 主 金基路
山淸郡矢川面內大浦釀造場 主 鄭□宰
山淸郡矢川面東堂里 崔相洪
山淸郡矢川面新川 □□學校 金三守
山淸郡矢川面內公里 李永三
山淸郡新安面安峰里 文復東
山淸郡新安面新安里 李珪洙
山淸郡新安面下□里 朴榮岸
山淸郡新安面文台里 朴熙寬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李道濟
山淸郡新安面新基里 李昌雨
山淸郡新安面新基里 李柱應
山淸郡新安面新基里 金重基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河仁洛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炳殷
山淸郡丹城面白雲里 權敬五
山淸郡新安面安峰里 文洙徹
山淸郡新安面安峰里 權載熹
山淸郡新安面新安里 李銘洙
山淸郡丹城面倉村里 金判譽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朴□洙
山淸郡丹城面倉村釀造場 主 李炳源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權永鉉
山淸郡丹城面南沙里 鄭昌和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河致復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址洙

安岳

安岳邑 李始馥
安岳郡大遠面 金農場
安岳大遠面月岩里 康永岩
安岳邑 天光堂藥房
黃海道安岳邑 醫師 宋榮璨
安岳邑 運興百貨店
安岳邑 安岳公立高普期成會
安岳郡 龍順面 職員一同

安岳面 職員一同 電話六番
安岳邑 弘濟醫院 柳志赫
安岳邑 好生堂醫院 尹元曦
安岳邑 岡田謙作
安岳邑 日新商店
安岳邑內 藝妓組合一同 電話三五番

安岳邑 醫師 車應斗 電話一二番
安岳郡 大遠面職員一同
安岳邑內 新興館 柳錫夏
安岳邑 安農商會 崔秉俊
安岳邑內 安岳司法書士一同
安岳郡安岳面碑石里 金融業 五星社 代表社員 金在淵
黃海道安岳邑 カメヤ洋服店 主 金昌雲
安岳邑 金應石
安岳邑 崔大淳
安岳邑 新安材木商會 電話五一番
安岳邑 沈忠求 電話六一番
安岳邑 朝鐵自働車部 電話一七番
安岳邑 大成館 電話二五番
安岳邑 明月館
安岳邑 金應亮 電話一九番
安岳邑 三成釀酒合名會社 電話三二番
安岳邑 安岳釀酒合名會社 電話五五番
安岳邑 尹相熙
安岳邑 正立章照
朝鮮黃海道安岳邑 織物雜貨 楊山商會 長電話一二〇番
安岳邑 金同亮
安岳邑 德山商會 洪成道
安岳邑 シンガー會社 柳□□
安岳邑 金炳允
安岳邑 盧文祥

安岳邑 協同商會
安岳邑 仁泰藥房 鄭仁泰
安岳邑 益成精米所
安岳邑 金秉寬
安岳邑 和順商店 電話四四番
安岳邑 金應坤
安岳邑 精米製粉 安岳製粉所
安岳邑 昭和洋靴店
安岳邑 元昌商店

長溪

長溪和信運輸店 主 李銓燮
長水郡長水面長水里 道會議員 河瓘斌
長水郡溪內面長溪里 柳鍾絢
長水郡溪內面長溪市 龍成釀造場 主 崔基泳
長溪共信精米所 主 姜洙萬
長水郡溪內面長溪市 公醫 金勳植
長水郡溪內面長溪里 金在璟
長水郡溪內面長溪里 金在允
長水郡溪內面長溪里 宋正國
長水郡溪內面長溪里 李滿燮
長水郡溪內面長溪里 料理屋 芳春菴
長水郡溪內面明德里 朴京淑
長水郡溪內面明德里 鑛業 朴龍夏
長水郡溪內面明德里 李奎鍾
長水郡溪內面三峰里 徐丙玹
長水郡溪南面事務所 職員一同
長水郡溪北面事務所 職員一同
道營社於田里事業所 職員一同
溪北面東華酒造場 主 李容朝
長水郡溪南面華陽里 柳水淳
溪南面□□酒造場 主 金都烈

謹賀新年

清津

安全自動車商會 張雲松 本店 港町 電話二四二四 支店 本町 電話二一〇二

高級呉服 布木 毛織 人絹 其他 青松商店 主 黃青松 店員一同 電話二三三三番 電略(〇コ)又は(コ)

清津府浦項洞 德濟醫院 醫師 李周泳 醫師 李揆源 電話二九六四番 德濟醫院水南分院

清津府浦項洞 高級仕立 ミナミ洋服店 電話二四九三番

清津府浦項洞 朝鮮料理 元祖 明月館 電話二七九五番

清津府浦項洞 司法書士 金河振 電話二九二二番

清德普通學校 職員一同

清津府浦項洞九四番地 三重寫眞館 三重理髮館 主 金重煥

清津府港町八 丸見百貨店 電話三七〇 三〇七九番

清津府明治町 安重奎商店

清津府浦項洞 至誠醫院 院長 李種完 職員一同

清津府浦項洞八八 一成堂藥房 李容懋

清津府浦項洞二三七 土木建築請負業 辛守億

辛良極

楊春先木材所 本店 朝鮮咸北線新站驛前 支店 清津府浦項洞二四〇ノ一〇八 電話長二一八六 作業所 [illegible]

清津 崔雲鶴商店 電話長二七一六番

清津府新岩洞 金基德商店 事務所 京城日本生命ビル 電話(二)三六二八番 製材所 茂山驛江岸構內 電話二一七番

清津 雜穀 鑛物 貿易 北鮮貿易社 主 金鍊炯

清津府浦項洞 米穀、雜穀、海產物、肥料 貿易商 富源商會 電話二六五七

清津府浦項洞 池昌一 電話二七八一番

裵貞基 電話二九六九番

清津府新岩洞 海產物商 張樂天

清津府廳

清津府新岩洞 府會議員 趙弼顯

清津府浦項洞 藥種商 東亞藥房 精米業 東亞精米所 主 池河龍 電話二四一三番

清津府浦項洞 雜貨請負業 朴瀅鎭

西村酒造場特約店 酒類、食料、雜貨 清津購買組合 清津府浦項洞八八

清津府 浦項洞醫院 醫師 郭恩聖 產婆 郭聖哲 電話二八二一

清津府浦項洞 土木運輸 海陸物產 移出商 合資會社 大營商會 代表者 玄洪成閔 谷仁學 徐吉慶 電話二六三三

清津府浦項洞 土木 建築 金光組 金庚鍾

清津券番 電話二〇八五番

朝鮮日報社清津支局 清津府浦項洞二四〇(電話二四九三)

清津府浦項洞 海產業 金益久

清津府浦項洞二四二 빠ー오리엔탈

清津府仁谷洞 府會議員 張錫鳳

清津 黃俊國

朝鮮咸北清津府 肥料 油肥製造業 フイツユミール製造業 海產物委託業 雜穀貿易業 辛鍾郁商店 電話長二九五八番 電略(セイシンセウイク)

清津府新岩洞 巾着漁業 定置網 鰮油肥製造 崔雲善商店 電話二〇七〇番

朝鮮清津府新岩洞八五 機船巾着網漁業 機船底曳網漁業 油肥製造業 金成和 電話二八六二番

私書函清津局四十二號 銅、眞鍮、アルミニウム、古鐵、空罐 叺、麻袋、牛骨、ウエス、其他古物 貿易商 陸軍及諸官廳 會社、銀行、工事場 御用 裕豐商店 主 趙大行 清津府新岩洞九〇番地 電話長二四八九番

明川郡上古面黃津洞 機船巾着網 及定置網漁業 油肥製造業 李元龍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特約店 清津府浦項洞六九 和洋百貨 及文房具 運動具 李瑞慶商會 電話二九一五番

清津府浦項洞 京一洋服店

清津府浦項洞 明治時計店 電話二九七三番

清津府浦項洞二四二番地 銀座會館 電話二九五〇番

營業品目 和洋家具 各種椅子 室內裝飾 官公署用具 朝鮮衣欌 清津府新岩洞 各官公署御用達 三信家具店 主 丁海泳 電話三〇三番

清津府浦項洞 マルサ醬油 マルサ味噌 釀造元 佐佐木醬油店 電長二二〇九番

裵組

清津府新岩洞 東一旅館 電話二五〇八番

清津府新岩洞 東一商會

玉豐彬

東海水產工業株式會社

清津府浦項洞 道會議員 張德相

清津府新岩洞 姜台璜商店

清津府新岩洞 米穀商 黃三善

清津府新岩洞 雄基丸事務所

清津府浦項洞 金凋鎬

清津國際運輸 船內組

清津浦項洞 山重金物店 李重實

清津國際會社埠頭組長 鄭東俊

朝鮮料理 元祖 北一館

朝鮮清津驛前 米穀貿易 精米業 三成精米所 電長二九七二番

清津 新岩洞醫院 電二八九一番

清津第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崔在勳 電話二八七四番

梁弼龍

清津府浦項洞八八番地 唯一理髮館 主 尹忠坤

金在洙商店 電話三二〇一番

清津城浦項洞 崔鍾浩

㊑運搬部 海陸物產 精米業 張東奎 清津府浦項洞二四二ノ二 電話取次二四九三番

清津府浦項洞 中央堂洋服店

清津府浦項洞 米穀部 運搬部 北一社 張斗變 張斗鳳

朝鮮咸北清津府浦項洞二四二 音樂教授 金光義 科目ヴアイオリン、ピアノオルガン、聲樂其他

清津府 海星學校 電話二三九五

史七鉉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清津支部 職員一同

清津府新岩洞 食料品、雜貨 全春景商店 電話二八五二番

清津府新岩洞 東亞醬油釀造場 電話三〇一七番

北鮮齒科醫院 清津新岩洞入口

尹時圭

清津府浦項洞 富士自轉車 各完成車 明心商會

清津府浦項洞 府會議員 元一中

清津府六番地 古物貿易 箕城商店 宋用禎 電略(ソウ)ヌハ(ヨウ)

清津驛前本町通り 德興自轉車店

清津府新岩洞 中島洋服店 電話三〇二一番

清津府本町四番地 姜道先 電話四三一番

清津驛前通 和洋家具製造販賣 三光家具店 電話二二三二番 振替京城二六四六九番

清津府新岩洞 醫學士 梁大卿

清津府浦項洞九〇 三成醫院 院長 朴圭浩

清津府新岩洞入口 廣信自轉車店 主 張順和

清津府彌生町六 シンガーミシン會社 安承泰 電話三〇四五番

清津府浦項洞 金方商店

文龍輪

清津府浦項洞 林敬錫

清津府新岩洞 三信商會 李昌世

清津公立商業補習學校

黃鍾國

朝鮮清津府浦項洞九一 雜貨 貿易商 三和藥房 電話二八五四番 振替京城二四一七二番

牙山

湯井 南廷九 仙掌 徐仁源 新昌 元之勳 新昌 吳榮善

道高 李錫圭 仙掌 蔡禧錫 靈仁 任東奎 仙掌 黃甲秀 仙掌 鄭完喜

仁州 金齊鉉 仙掌 崔完永 仁州 金聖學 仙掌 崔俊永 仁州 池錫範

屯浦 孔斗烈 陰峯 尹智源 屯浦 金[illegible]均 屯浦 金鍾大 湯井 李晚永 鹽崎 李俊泳 松岳 李揆亨

靈仁 李相薰 新昌 李東熙 松岳 李伯善 排芳 李敏雄 陰峯 李聖煥

浦崎 金正煥 浦崎 尹忠植 湯井 李鍾助 浦崎 韓成源 湯井 李元榮 松岳 姜晚植

湯井 李奎鐸 浦崎 尹鍾九 溫泉 金明植 仁州 洪憲善 溫泉 金奉龍 仁州 韓實鉉

新昌 吳賢根 仙掌 李泰雨 靈仁 金麟濟 靈仁 鄭憲植 仁州 吳世昌 屯浦 林益善

屯浦 尹璟善 屯浦 尹致炳 屯浦 林在和 排芳 姜泰元 新昌 鄭世泳 排芳 元容稷

牙山郡內公立學校長團

牙山郡廳

新昌驛前 新昌釀造場 主 朴聖煥

道高面職員一同 面長 李萬鍾

溫陽溫泉 朝鮮料理 太西館 主 金今培 電話三七番

湯井面職員一同 面長 林圭明

陰峰面職員一同 面長 金容珪

松岳面職員一同 面長 李用璿

仁州面職員一同 面長 曺龍煥

仙掌面職員一同 面長 咸炯元

靈仁面職員一同 面長 朴東冕

排芳面職員一同 面長 趙炳周

新昌面職員一同 面長 姜瑋熙

鹽崎面職員一同 面長 成均鎬

屯浦面職員一同 面長 成弘基

溫陽面職員一同 面長 尹政善

溫陽面溫泉里 溫泉釀造場 電話一〇番

湯井面權谷里 崔順七

仙掌金融組合長 徐廷昱

道高溫泉 溫泉旅館

牙山郡 道高水利組合

屯浦 東濟醫院 公醫 崔敬東

長在釀造場 主 李康福

溫陽溫泉 朝鮮料理 泰平館 電話三三番

溫陽溫泉 溫湯醫院 電話六六番

南鮮電氣會社 溫陽出張所

忠南仙掌港 曺秉俊

虎山釀造場 主 李[illegible]宰

溫陽溫泉 新昌商會

牙山郡屯浦市 穀物貿易 三共社

京南線仙掌驛前 成道慶商店

仙掌港 仙掌金融組合

牙山郡仁州面眞檢里 仁濟醫院

仁州面眞檢里 日新釀造場 主 朱致國

仙掌面君德里 仙掌金鑛

朝鮮京南線仙掌驛前 升田權作商店

溫陽面溫泉里 溫泉精米所 主 趙南俊 電話百五番

溫陽釀造場 金龜壽

溫陽水利組合

牙山郡屯浦市 英文街物自動車部

溫陽溫泉 大皇商會 李漢洼

松岳面釀造場 李用勳

溫陽溫泉 東一商會

溫陽溫泉 明信堂時計店

溫陽溫泉 李順德 元得運

金榮武

仙掌驛前 吳春澤

牙山郡道高面梅田里 南相奎

溫陽溫泉 大蒼商會

朝鮮海洋社 蒼龍浦代理店

忠南牙山郡屯浦市 東一商店

忠南牙山郡屯浦市 洋品百貨 和信連鎖店

靈仁 許鐵 仁州 吳玄默 屯浦 李眩稙 松岳 金鼎濟 屯浦 李在元

淮陽

淮陽郡邑內里 江原道會議員 劉載厚

蘭谷面職員一同

蘭谷種牛生產組合職員一同

江原道淮陽郡蘭谷面 蘭蕙俱樂部

蘭谷 機械農場

淮陽郡蘭谷市內 穀物貿易商 高鍾圭

淮陽蘭谷 淵故會

淮陽郡蘭谷 朴完淑

淮陽郡蘭谷市 朱秀萬

淮陽郡蘭谷市 穀物商 李萬俊

淮陽郡蘭谷市 司法書士 金銀鎬

淮陽郡蘭谷市 李花春

淮陽郡蘭谷市 雜貨商 朴千一

淮陽郡蘭谷市 李啓運

淮陽郡蘭谷市 絹紬布木商 鄭用善

淮陽郡蘭谷市 濟世醫院 趙河元

淮陽郡蘭谷市 絹紬布木商 同和永

江原道淮陽郡邑內里 絹紬布木 日用品 和洋雜貨 東昌商會 主 金炯泰

淮陽郡蘭谷市 元興商店 金應淑

永山

義州水山市 中央洋服店

義州郡古寧朔面 面長 金應鈺

平北義州郡水山市 林承演

朝鮮平北義州郡水山市 絹紬布木 東西雜貨 酒類販賣 新盛商店

義州郡古寧朔面 金成琪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五

地方有志들에게 물어본 産業發展·敎育普及·生活改善에 대한 方案

緊急한 義務敎育
民衆의 負擔過重念慮는 杞憂
大邱新明女學校 李圭元氏談

每年四月에 各學校校門을 두다리는 兒童의 數를 보면 初等學校만하더라도 定員의 二倍或은 三倍以上되며 中等學校는 五六倍가되여 世界어느나라에도 볼수업는 奇異한 現象을 일우고잇서 여러가지 惡影響을 釀出하는 境遇가 不少하야 이問題를 解決하지안코는 우리社會에 다른問題에 손댈餘地가 업슬만큼되여잇다。

로서 實施할수잇스니 現在우리가 實施하기쉬운 方策의 하나인줄안다 一朝一夕에 數十萬圓을 要하는 中等學校機關을 增設하기는어려우나 [illegible] 施行하면 우선救急策이될러이다 그리고 어것은 極히적은問題이나 現在各學校와 在籍生徒數를보면 中等學校에는 大槪 一學校에 五○名이 定員으로되어잇서 敎育의 理想으로보면 現在도 其數가 만타고 생각되나 現下와 가리 入學難에 辛苦하는 兒童生徒本位로한다면 每學級에 十數名식더 收用할수잇슬것이며 따라서 全部를 通하야 合해보면 不少한 數字를 들니게되니 此點亦是 考慮할

倍하는것이 만히나기를 바라는바 먼저自己地方에잇는 私設學術講習會等 私設敎育機關을 後援하야 完全한 學校가되도록할 이조흔것이다 그뿐아니라 現在全朝鮮內 中等敎育機關의 數를보면 內地一縣에잇는 機關數보다도 적은 寒心한便이니 우리公私立을 勿論하고 敎育機關이 增設되도록 우리의 誠意

會的刺戟 或은 篤志家自身의 永續的事業이되여야할터이다 사람은 누구나 自己慾心이잇서 事業慾이잇고 榮譽心이잇서 巨金을 喜捨함에는 個人의 功名心 或은 名譽心을 保存할수잇서야 될줄안다 그런意味에서 國家에서 此點을 洞察하야 私學增設勸獎을하여 주엇스면십다 假令 誰人이 一學校新設을 爲하야 三十萬圓을 내면 國家에서 二十萬圓을 補助하야 私學增設을 獎勵하며 따라서 國家에서 積極的으로 指導監督하면 國家에서 要求하는 完全한 敎育을 할수잇슬터이니 이것은 一石二鳥의 效果를 어더 國家의 目的을 短時日에 達成할 敎育刷新의 誠意

國庫補助의 增額
農山漁村의 負擔輕減策으로
平壤府會議員 李基燦氏談

敎育普及策을 講究함에 當하여 우선 急한問題는 初等敎育問題일것이며 우리平壤에서는 今年度에 新設하려는 普通學校의 起債認可가 昨年十二月中旬頃에야 許可되엿스므로 自然히今年에 넘어오게되며 解氷期時로 新設校舍의 建築工事에 着手하는外에 十三年分、新設校도잇고 學級增加도잇스므로 今年中에 入學을 志望하는兒童은 全部收容할수잇

처어 반드시 國庫補助는 大幅로 增大식혀야할것이라는것을 再言하는바이다

그리고 中等學校問題에 對해서는 崇實中學과 崇義女學校의 兩校가 公立高普로新設되여 各校에서 二學級式百名을 新募하게되엿스므로 男子高普는 平南道內에 三校、女子高普가 兩校로 되여 他道에 類例가업는 現狀이 展開되는同時에 收容率도 增大

[illegible]

崇中崇義의 健全한更生을
光成高普校長 池鎔殷氏談

新年을 마지하면서 내地方의 敎育普及策을 어야기 하라하나 特히 내立場으로 만흔말슴을도 될것도 업스나 切實히 생각되는 몃가지를 드러보면 다음과 갓다

첫재는우리平壤에서 崇實中學과 崇義女學校가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普通學校를 多數新設하야 初等敎育의 [illegible]

(大邱支局取扱)

鄕校와 寺院의 總財力을 集中
平壤韓根祖氏談

從來의 初等敎育에 對해서는 當局에서 [illegible] 財源難을 이야기 하고 [illegible]

그러면 [illegible]

그것은 私設講習所敎育助成策 [illegible]

敎育普及策은?

優先 실음게 이問題를 緩和하는方策으로 現在 全朝鮮 各初等學校나 中等學校를 通하야 複式으로 敎授함이 應急策이안일가한다 어에對하야 最近의實例를들면 全羅南北道에서 閉校된 數個學校生徒 數千名을 隣接學校에 轉校식혀 複式으로敎授하야 그生徒全部를 救하엿스며 同樣으로 該地某中等學校生徒도 亦是隔校敎授함을 보와서 現在入學難에 對한 救急策으로 全朝鮮公私立學校 全部가 現在定員의 倍를募集하야 複式으로 敎授하면 最少限度로 現在와갓흔 高率的入學難을 多少緩和할수잇슬줄안다 이方策을 採用함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업는것은 아니나 全然不可能한 일은 안일것이니 多少難點을 打開하고 나가면 넉넉히 實施하야 解決할수잇슬줄밋는다 初等學校와가티 中等學校에서도 複式을 採用할수잇스니 現在內地 여러都市에잇는 私立中等學校에서도 實施하고잇는바와가티 午前部或은 午後部로 分하던지 晝間部와 夜間部로分하야 敎授하면亦是 現在全朝鮮中等諸學校에 在籍하고잇는 生徒定員의 倍를收用할수잇스며 經費도 同樣一校增設하야 敎授함보다도 半分으로

社會敎育에注力
學校를大衆에게公開
全州鄭海岡氏談

朝鮮學齡兒童의就學統計에 依하면 全學齡兒童의二割內外에 不過하여 現在의朝鮮初等敎育設備로서는 家庭의貧困其他關係로 本是부터就學不志望兒童을除한 就學志望兒童도收容되는것이 겨우七割乃至八割에지나지못하는 現狀에 잇는것이다。

우리朝鮮에서 文盲退治를부르짓고 啓蒙事業中心의 書堂으로 新式敎育制度를採用한 것도 어며오래엿스나 諸般事情으로 義務敎育制實施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前途遼遠한 只今에잇서서 私立敎育機關의 出現을獎勵하며 따라서指導助長하야 民間機關의

成育에努力하여야될것은 朝鮮敎育에關心을 가진者로서 自他누구나 認定하는바일것이다。그러나 우리朝鮮과如히 學校機關이不足한곳에서學校敎育만으로서文盲退治의目的을達成코저함은 到底히無理한일이라고生覺한다。어現狀에잇서서는 社會敎育施設의擴充으로서 敎育普及을 圖謀할것이며 文一步나아가 學校敎育의短點을 社會敎育으로써 補充하여야될것이다。

即 現在의學校施設을 擴張開放하야 講習、講演會等施設로써 職業指導와 一般社會의知識을 向上시켜야 圖書館及巡廻文庫의事業과 公衆體育의獎勵로써 不純한娛

家庭의缺陷으로써 不幸한處地에잇는者에게 敎育的救濟乃至矯正의 手段을 策할도 社會敎育으로써 達成할수잇스리라고 생각하는바이다。

敎育이普遍된 歐米先進諸國에서는 學校敎育이 漸次社會敎育化하야 從來學校敎育이라면 一定한場所、一定한年限、一定한生徒에게 一定한學科를 敎授하는 同時에 一定한 方針下에 訓育시켜 온것을 骨子로하엿스나 現今에 와서는 一定한 場所以外에 그位置를 巡廻移動하는 巡廻學校라는것이 생

信과 巡廻文은出張講演等의 方法으로 學校敎授를 하게되여잇는것은現狀이다 以上과如한 方法으로 先進諸國에서는 國民에게 一定한 學業技術의 習得熟練에 便宜를 주어 如何히學校와 實際社會가 密接한 關係에서 聯絡活動하여 社會敎育의方面에努力하고잇슴을 察知할수잇다 다시도리켜 우리從來의 學校敎育을본다면 그機關이 적을뿐아니라 學童全體의 學風이 甚히形式的模倣的이여서 少數量除하면卒

業後다시 新知識을엇고저研究할 意圖를 가진者는 極히적고 學校卒業後上級學校進就者는그 目的때문에 할수업시 어느程度의 讀書研究를 하지만 그餘外의 大部分은 壯年期에 至하면文學까지라도 忘却하는者가 不少하다 今日과 如히 思想問題가 複雜한時代에 [illegible]

亦是敎育의重要性을 自覺지 못하고잇스니 이러한倒錯된現象은 [illegible] 보지못할바이다 저英米二國은勿論 獨逸에서도 大體로 敎育에對한資用은 다른行政費에對하야獨立된地位를가지고잇스며 敎育의專門的[illegible] 由로운天地에서그本務를完成할수잇는制度가 確立되엿다 如斯히하여서야 敎育도한獨立及과獨立이며 참으로敎育의普及發達을 圖할것이다 이點에對하야 諸氏의관心과理解와同情을 바라는바이다。

(全州支局取扱)

私學을 助長하라
書堂의 普及을
海州 吳世暐氏談

文盲打破와 敎育普及이라는現下 [illegible] 이다

貧寒한紙面의 制限을 버더 單刀直入으로 우리地方敎育普及에 對하야 目下切實한問題를 하나둘드러보기로하자 普通學校擴充에對하여서는 總督府方針에 依하야 着着 進行될으로昨春에는 二校新設과 旣設校學級增加로 入學志願兒童의 約八割五步를 入學케하엿스나 未久에 志願者만은 全部를 收容케될時期가 올것이다 어것이 우리地方의 表面的普及狀況이다 그內容을 檢討해본다면 所謂私設講習所로 初等敎育을 實施하는것이 二十餘個所에 五千餘名의 兒童을 收容하고잇다 大槪

初等敎育擴充費로
鄕校財產을轉用
基金千萬圓에年收五十萬圓
大邱府會議員 裵鼎基氏談

初等敎育擴充의必要는 이제多言을不要하거니와 初等敎育은 義務敎育制가 實施되여야할 것도 또한緊急한바이다 國民의 智識程度의高低가 即國家의 興隆衰退와 全혀正比例하나니 敎育이普及되지못한社會에 政治가 힘을지아니할까닭이어다 無智에서 產業振興을 바라기어려우며 無智에서 經濟의發達을 期할수 업스며 無智에서 釀成되는 犯罪는 얼마나되는지 智識普及을해서 生活은 退嬰일것이다 칭것되여도 保守穩度이지 進步는업다 그럼으로 朝鮮의 現狀은 敎育普及이 第一急務로하여야겟다 昭和十年에 完成된 一面一校로서 政治의第一義로된 推定學齡兒童 二百七十六萬人으로 一割就學兒童七十六萬人에對한 割五六分에 不過하 現狀이다 가

今當局에서 擴充計劃을 세워서 十個年後에는 現在의倍인 百五十萬名을 就學케하야 志願者全員收容을 目標하엿으니 十年後의計畫이 學齡兒童의五割僅少하니 十年後의計畫이 實施될것을 志願者收容의目標라니 十年後에는 人口增加되는것이 十年後의向學熱 經濟力 文化程度가 今日의 豫測과 마저서 志願者就學이라도 解消되지못할것이다 이計畫을 遂行함에 巨大한經費의 財源을 求하여야 함은勿論인데 補助와增稅等여러가지에 對한 具體方法이 依例히잇슬터인즉 鄕校財產一千萬圓과 此에對한 年收入五十萬圓의 大金은 其全額又는 大部分을 어떠도되어 文敎普及에 運用하면 貧弱한 財源에 助力이될 鄕校本意에마지리라고밋는다

(寫眞은 裵鼎基氏)(大邱支局取扱)

會것으로밋는다 그리고 新設校가 設置된다해도 府民의負擔이 도 그리힘들지안코서도 充分하다고미드나 平南道內의 地方狀態로는 아직寒心한點이만흐며 新設校가 許可된대도 地方民의 負擔過重을 免키어려워 實로困難한 境遇에 當面을 翔國에서 發見할수 잇슬것으로 밋는다 今年부터는 總督府當局의 敎育擴充普及計畫과 拍子를마초아 時日이 多少걸릴지는 몰라도 學校國庫係의 起債는 許可할方針이라니 學校新設關係가 好調를 보일것이므로 豫想되나 우리는이때에 當局에 要求하고絕叫하고십흔것은 地方民의負擔을 되도록 적게 輕減하고할수잇는데까지 國庫補助를 大幅으로 增加하라는것이다

現下의 朝鮮農山漁村의 狀態로보아 아모리當局의 敎育擴充을 向하여 運行코저하나 貧寒한 주머니에서 日額의 負擔을할 錢이 쏘다질수는업다는것이 若觀火의 事實이어나할 가한다 日本內地는 富力이 朝鮮에比할바아니며 義務敎育實施의 歷史로 完全한敎育을 하고잇 음에不拘하고 國庫補助는 年復年增加하고잇는데 貧寒한朝鮮人의 負擔狀態와 現下의實情에비 ?여기에 眞實한意味의 普及策을 講究함이

豫想되는데 (寫眞은 李基燦氏)(平壤支局取扱)

私學을 助長하라
釜山 金在俊氏談

核心이 엇지아니한가한다 그갓 부된사람이나 兒童自體가 얼마나 普通學校를 擁護할것이겟느냐 그러나 不得已講習所로 가지아니할수업는 形便이 慨歎한事實임에야 엇지할道理가 잇슬것인가 그러면 唯一한 對策으로 兒童의 負擔을 輕減하는것이다 即換言하면 普通學校도私設講習會에 드는것만한 程度의 負擔만되면 現實講習所 兒童으로 適齡者는 누구라도 普通學校로 몰려들것은 更論할必要가 업을것이다 그러나 學校經營에는 有限한 財源의 範圍內에서 하게되여잇는 現實에잇서서는 到底히 不可能한

[illegible] 學校나 一二所 書堂等도 가장 慎重히 內容을 檢討하여 相當한 補助를 해가지고 正規正則의 學校에 準하여야 될것이다 [illegible]

(平壤支局取扱)

謹賀新年

潭陽

潭陽郡廳 各種產業團體
潭陽警察署 職員一同
潭陽本町一丁目 潭陽醫院
潭陽郡南面 無等金鑛 主 韓奉錫 韓圭興
潭陽驛前 鄭鈺然精米所 電話三三番
潭陽郡學校 職員一同
大田面事務所 職員一同
潭陽面 職員一同
潭陽面長 鄭湧寅
潭陽郡金城面鶴洞里 鞠芳鎬
朝鮮名產竹細工品製造元 竹簾、扇子其他 潭陽竹物商會 主 朴巡奉
潭陽郡金城面 職員一同
武貞面長 曺正駿
大德面長 金昌浩

株式會社湖南銀行潭陽支店
潭陽榮町 精米·其他貿易·竹產物·委託運送業 三南昌商會 主 韓大連 電話五六番
龍面事務所 職員一同
全南光州線長山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長山代行營業所 代表者 辛桓
潭陽邑內 鞠淇鉉
全南潭陽邑內 藥種貿易 賣藥製造 販賣業 鮮元堂藥房 姜膏藥本舖 主 姜成文
潭陽面南山里 鞠彥鎭
大峙郵便所 所長 末田一郎
大田面大峙里 金亨仲

潭陽郡水北面羅山里 田中秀
水北面事務所 職員一同
潭陽郡鳳山面 職員一同
古西面長 高光奭
潭陽邑內 金仁箕
朝鮮金剛全南潭陽榮町 金物器具 池營淳商店 電話(交八)番
全南潭陽邑榮町 平壤고무商會 金光燮
潭陽郵便所長 松田方仲
潭州金融組合理事 朴璟杓
潭陽農業倉庫長 齋藤甚一
潭陽邑內 公醫 林廣天

潭陽本町三丁目 三山堂藥局 潭陽支店
布木 穀類 李勝雨商店
朝鮮全南潭陽 潭陽商會
全南潭陽本町 各國時計 貴金屬及修理一式 精工堂時計店 主 朴敏坤
潭陽產業組合
月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大田面大峙里 米山政八
南面長 鄭雲承
潭陽榮町 大同ゴム商會
大田面屏風里 申鳳夏

新上

定平官公署團
春柳水利組合
北鮮精米所
大衆醫院 醫師 姜濬卓
定平郡歸林面 水產業 韓丙熙
文林 水利組合
新上釀酒所
新上郵便所
新上 穀物商組合

定平郡新上面 松興簡易學校維持稧
新上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定平郡歸林面 面協議員 朴泰玉
定平郡歸林面 韓致燁
定平郡歸林面 鰮油工場 李公烈
定平郡歸林面 閔陽律
金津醫院 醫師 洪壽峰 文載体
北鮮養鷄研究農場 韓格贊
牧渡 牧渡고무商會 白金得
明信精米所 主 李章憲 外務 權壽千
金成商會 主 沈在天 外務 李源榮
廣生堂藥房 鄭寶五
濟衆醫院 醫師 徐戊德
晩興商店 沈周澤
安樂堂藥房 安碩中
濟衆堂藥房 金九鳳

大昌精米所 朴宗烈
咸鏡線以新上買入所 姜錫泫
穀物檢查所 新上出張所職員一同
定平郡 新上面職員一同
朝鮮運送株式會社 新上代行營業所
定平郡歸林面 張斗鴻
定平郡 長原面職員一同
平和醫院
新上里金融組合 理事 金榮祜
咸鏡線新上驛前 韓光植精米所
定平郡 歸林面職員一同
定平郡文山面 面協議員 韓炳憲
新上里金融組合 副理事 崔泰璉
新上 熊川健治郎
永興郡仁興面旺上里 醫生 韓□東
新上和信連鎖店 李喆夏
司法書士 鄭億石
牧渡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郵便所長 李滿榮
朴羲陽
業億 端川北斗日面大新里 和信洋品店 朴右鎭
共興株式會社大新營業所 主任 方昌周
端川北斗日面大新里 大新商會
端川北斗日面大新里 雜貨 洋品 趙正燮
咸鏡線業億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業億代行營業所

中篇小說

女人命令【11】

李善熙 作 崔根培 畵

別離 (五)

큰마누라가 안으로 들락 날락하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안데에서 무슨 찬을가지고 나오는모양인데 어더가지고 나오는지 은근히 훔처가지고 나오는지 그것알수업거니와 어쨋든 사발이며 양재기에다 무엇을담아서 들고나온다。

그는 웃목에 안즌 두사람의 눈치를 슬금 슬금 보면서 가지고온것을 상에다 채려놋는다

『어서 진지를 잡수시우 오죽 시장하시까。나제 점심도 안잡숫구』

『여보 영감 어는새 즘기는왜 줌우? 안에선 지금 밥버서 부지깽이까정 뛰는데。오늘저녁고사를 잡수시노라고 시루 열를을 드려배이고 쪄내는데 불땔사람도업고 물도 더길어와야겟고 이리구 안젓스면 어찌우? 나도 어서들어가봐야겟지만』

『소리는 웨이리 초조하게집러? 깜짝놀랏네。물은 무슨물을 또가저오래? 오늘 예번가저왓는지 얼기나하고그랫。새벽부터설도 아직까정 목숨이 부터잇슨그래。그리구두 작년섯달명일에 세찬을 못어디구 보선한켜레를 자의 내노앗구만。그러게 사람에두 천층 만층 구만층이 잇다드니 그말이 옳하요』

『앗차 이젓쑨 대문아며 팔로를 떠린드렵。고사人님이뎌서사탈을 기하니까』

마누라가 잠간나갓다가 또안으론 안드러가고 다시 드러와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나도 인젠 사십이넘어 오십쯤에 들지만 내평생에 이서방님가튼진 어른은 첨봣서요 서울오실때마다 우릴주고가시는 돈으로 려편집에 드셧스면 아주상지상으루 잘잡숫고편히 게실걸 해필우리집에 오서서 이고생을하신다니까요 작년여름에두 우리영감이 죽을병에 들어서 꼭죽게된것을 이서방님이 살려습죠 돈을 수태 쓰신건 말할구두 글세 손수 영감입에 미음을 떠넛는다 생선을 구어 가시를 발러서 집어너허준다 무슨주사를 놋는다 약을흔두지게나 가저왓서。젠장』

『글세 암만가저와서도 모자라는걸 어찌하우。백지게란도가저오라면 가저와지 별수가잇손』

『인제는 허리가 아퍼서 더못가저와。사람이 살구야 물일이진』

『에구 인젠 엄자두 귀신이다됏수。그끼짓것깃구 저러케 운신을 못하는걸보니 삼년넘기가 힘들겟수。작년부터 더바스러저서 저모양이진』

『이건 누길악담을하나。나살때끼지만 살어봐』

영감 마누라가 한참동안 옥시각신하드니 영감은 할수업시 이러나 안으로 드러갓다

그러케 밥부다고 영감을 담배한대 못피게 휘모라 드려쫏고 자기는 되려 느러저안젓다

『에구 어퍼진김에 쉬여간다고 나도 좀안젓다가야지 오늘은첫새벽부터 꼬박섯드니 장단지의 힘줄이 땡땡키여서 죽을지경이구먼。그만해도 나일먹어서 이지경이지』

『무슨일이 밤에또잇나요? 어서 좀쉬서요』

『그런데 그송능이 다식어서어드뎃서요。내안에 들어가 잠간 드려가지고 나옥게 천천히좀잡수서요』

『하ㅣ 이리지말구 여기 좀어러케 안저겝시오』

『그럼 못이이는체하고 조곰만 더안젓다 드러갈가。뭔마님이도 선자리에서 괄괄하시게。마님성미가 어찌해상은지 그눈총을마저 당장꺼구러질것가튼데 그래쓴다 이러케 병구완을 해줫지요

우리가튼 사람이 당장꺼구러진다면 누가본체나하겟서요 더구나 이런행낭채란도 집주인은 제집용마루 미레서 사람죽는게 실타고 숨떠러지는 사람을 업고나가라고 야단하는 세상인데요

재작년 우리롱범이가 죽을때 이악이롱하면 귀신도 곡을하고 산천초목도 설어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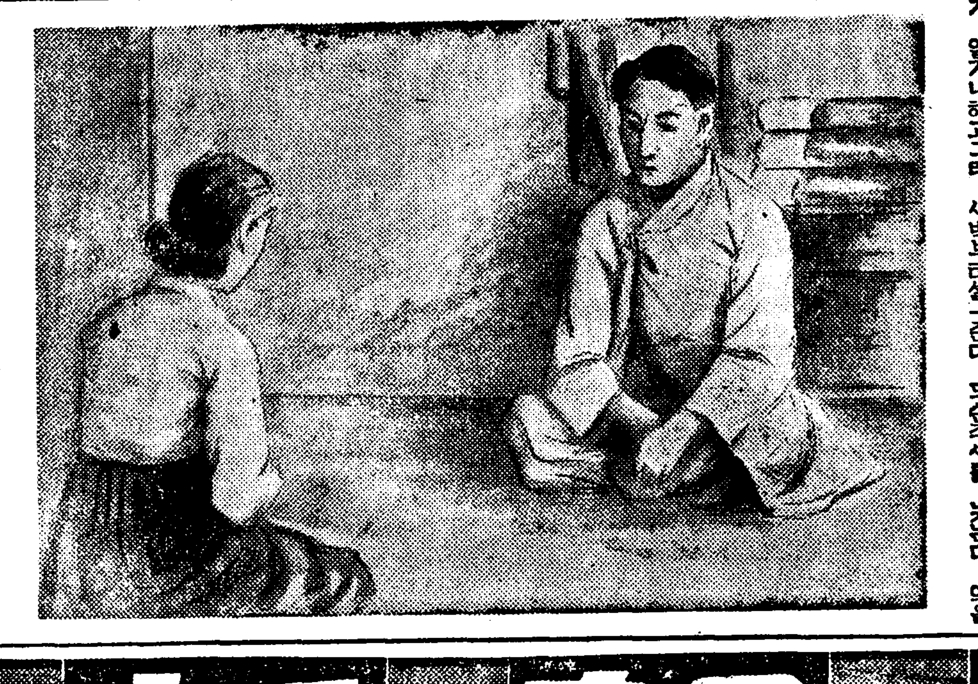
그게 재작년바로 주석날밤이얘요 한일년동안이나 시름시름 알타가 죽기한달전쯤해서 제혼저 어디가 진찰을해보니 폐병이란게라구요。젊은애병이니 그저낫겟지하고 잇섯는데 점점병이 심상치안케되여가니 저아버지와 내가 아모리애를 쓴들무슨소용이잇서야지。

그리다가 바로 주석날밤엔아주 일이글러가는군요。그런데안에서는 송편들을 빗두라고 야단인데 내가빠지면되겟서요 그때도 마님께 자식놈이 죽게되스니 나가보겟단말을 못하고그냥 그일을하려니 배오장이어떠케됏겟서요。

그것도 숨기고시퍼 숨긴게아니라 바른대로 말하면 필경행낭치란두 자기집에거 죽는것을 실허할것가태서 그랫지요

어듸 송편을 빗자니 손이떨려서버출수가잇서야죠 그래 두어개빗다가 슬그머니 나와보니 벌서 아이란이 떠러젓서요

그는 말을하다말고 목이미여진다。



謹賀新年

北京

平漢線石家莊新開街 金森商店 金允國

北京驛前西河沿 振聲飯店 電話南局（三一八四、二七〇四七）

北京市王府大街四六號 東亞自動車商會 經營主 金孝丁 電話東局（五一二四〇）

京漢線石家莊仲山街 朝鮮旅館 惠英旅館 主 朱英

北支平漢鐵道石家莊驛前 國境公司 代表者 金大鉉 金得水 嚴仕學

北京前門外香廠萬明路 東方ホテル 車應璧 電話南局（二六〇五、二二三七／二九九六、四〇〇四）

北京前門外西河沿 交通旅館 崔明道 電話南局一六八五

石家莊屠殺場

石家莊新開路北陞街一八 洪淳文 朴殷赫

北京西城前車胡同一號 趙一愚

北京東城蘇州胡同九十二 時計 眼鏡 明治 ラヂオ レコード 中島時計店 主 李圭禹 電東二三九六

北京崇內延壽菴七 崔元峻

北京東城八寶胡同十二號 文昌根

宋百憲 東總布胡同十九號 電話東局二七九七番

崇臺興隆胡同六號 朝鮮料理富士館 韓永俊

前門外韓家潭二五號 御料理 銀河 電話南局三〇二

北京前門外東河沿三十四號 朴瑞燁 電話南分局三五四號

北京崇內大街三九 カフェー銀座 電東四五七五

石家莊新開街 時計眼鏡 蓄音器 販賣修理 朝日時計店 主 鄭運泳 本店 [illegible] 本町

石家莊新開街三八 樂善醫院 院長 李麟奎

北京崇文門內八寶胡同三號 大昌號 崔用大

石家莊北陞街二號 任玄洙

奉天館 黃元憲

黃繼奉 奉天十間房第二區 電話二ノ二七九五番

平漢線石家莊寺後街靑家胡同十三號 京城旅館 金奎烈

長辛店 日本人相互會 評議員 崔容權

河北省平漢線石家莊新開路中泰里八號 崔公權 愛樂館

前門外韓家潭六十一號 金洪燁

金迺範

朝鮮城內 同和當 主 崔善鏞

永信洋行 黃東叟 北京東城官帽胡同八號 電話東局三七三二號

朝鮮城內 壽山醫院 朴德華 吳成秀

朝鮮平北龍川郡東下面 平漢線石家莊 白敬秀

北京前門外白帽胡同四十號 松竹館 電南二一八四番

長辛店大街 京漢商店 主 許炳崙

石家莊新開路三十一號 大連公司 主任 全成太

北京前門百順胡同三三 尹相五

孫成鐵

北京前門外萬佛寺灣十一號 韓銀河 電話（南局一六九四）

朝鮮平北義州邑西部洞一九八 李用球

長辛店大街 日ノ丸運輸組 主 朴成金

長辛店大街 日の丸運輸組 主 朴成燦

瑞興

瑞興邑 許洹

瑞興邑 金光善

瑞興邑 李昌翼

瑞興邑 濟衆醫院 醫師 安泰熙

陵里 李椿植

三共釀造場

瑞興郡廳

陵里 司法書士 李建福

學校評議員 李成魯

都賣商 主 洪宗承

朴淑子

東賓樓

日本赤十字社 金炳善

瑞興 煙草耕作組合

瑞興稅務署

道議員 鄭熙淳

司法書士 尹武炳

陵里 瑞興釀造合資會社

瑞興面事務所

金永栽自轉車店

三省醫院 醫師 金聖根

八雲商店

朴李奎

上栗面簡易學校 玉秉塔

栗里面 [illegible] 暎均

陵里 公醫 金永福

陵里 李澄植

司法書士 金晚榮

瑞昌商會 金鍾鉉

友仁堂藥房

安岳商店 金昌京

瑞興邑 議員 李光翼

揷橋

禮山郡揷橋面 面長 權重一 外職員一同

京南線揷橋驛前 忠南精米所揷橋支店 主任 趙石鳳

禮山郡鳳山面大支里 申宗均 申羽鉉

禮山郡德山面[illegible]里 張奎煥

禮山郡古德面大川市 宋致憲商店

禮山郡古德面大川市 德豊精米所 李哲周

禮山郡鳳山面沙石里 李禎馥

禮山郡鳳山面沙石里 李仁馥

禮山郡古德面 面長 權炳瓚 外職員一同

禮山郡古德面大川市 金成洋服店 主 元文昌

京南線揷橋驛前 鮮一精米所 主 黃文漢

京南線揷橋驛前 平和洋服店 張玉振

禮山郡古德面上里 金容祜

禮山郡古德面大川市 和成精米所 姜海鵬

禮山郡 禮山敎育會

京南線揷橋驛前 三和商會 三和運送部

禮山郡揷橋面城里 李仲鉉

京南線揷橋驛前 三和農場

禮山郡揷橋面冰里 金玟圭

禮山郡古德面九萬里 崔翼文

京南線揷橋驛前 禮山釀造株式會社 揷橋分工場

禮山郡古德面大川市 古德郵便所長

禮山郡揷橋面松山里 韓永淳

京南線揷橋驛前 釵鍾堂時計店 主 卞鍾禹

京南線揷橋驛前 穀物商 張炳允 張應哲

京南線揷橋驛前 揷橋郵便所長

禮山郡德山面 德山溫泉

禮山郡古德面九萬里 高完興

禮山郡德山面邑內里 三豐商會

禮山郡揷橋面城里 金永旭

京南線揷橋驛前 靑陽商店 安鍾夏

京南線揷橋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揷橋取引店

禮山郡鳳山面古垈里 朴商弼

京南線揷橋市場 花山旅館 文印鉉

禮山郡古德面上里 崔俊植

禮山郡古德面上里 李鍾秀

禮山郡德山面 職員一同

禮山郡古德面大川市 古德醫院

京南線揷橋驛前 和信連鎖店 主 李先馥

禮山郡揷橋面水村里 金昌秀

禮山郡揷橋面里 李泳甲

京南線揷橋市場 新興旅館 鄭弘模

京南線揷橋市場 禮昌旅館 李光淳

京南線揷橋驛前 大東商店

禮山郡古德面川里 李甲成

禮山郡古德面大川里 高鍾燮

京南線揷橋驛前 禮興木工所 主 洪寅杓

禮山郡鳳山面下里 朴性禹

京南線揷橋驛前 穀物商 三信商會

禮山郡古德面上里 金聖泰

禮山郡鳳山面大支里 金鳳來

古德金組合 理事 津田三郎

古德金組合 揷橋支所 職員一同

京南線揷橋驛前 南一精米所

京南線揷橋驛前 九浦農場

京南線揷橋驛前 禮山農場

京南線揷橋市場 明月館

四平街

滿洲旅行中 靑坡 李應鎬 本籍 黃海道遂安馬山

滿洲國四平街 穀物貿易 泰昌商會 電話六三、五三、五七番 大正街第一、第二工場 慶安街第一、第二工場

滿洲國四平街北三條通 穀物貿易 滿鮮公司 電話長三一番

滿洲國四平街市 合資會社 信益商會 代表者 金亨龍

滿洲國四平街 合資會社 開信商會 代表社員 金昌源

四平街 廣信號

四平街 海星商店 金學圭

四平街祝町 水根洋行 電話長八二番

四平街 穀物商 合資會社 東和商會 代表社員 蔣東淑

四平街北四條通 姜學探 尹白水

滿洲國四平街 合資會社 半島商會 代表者 申昌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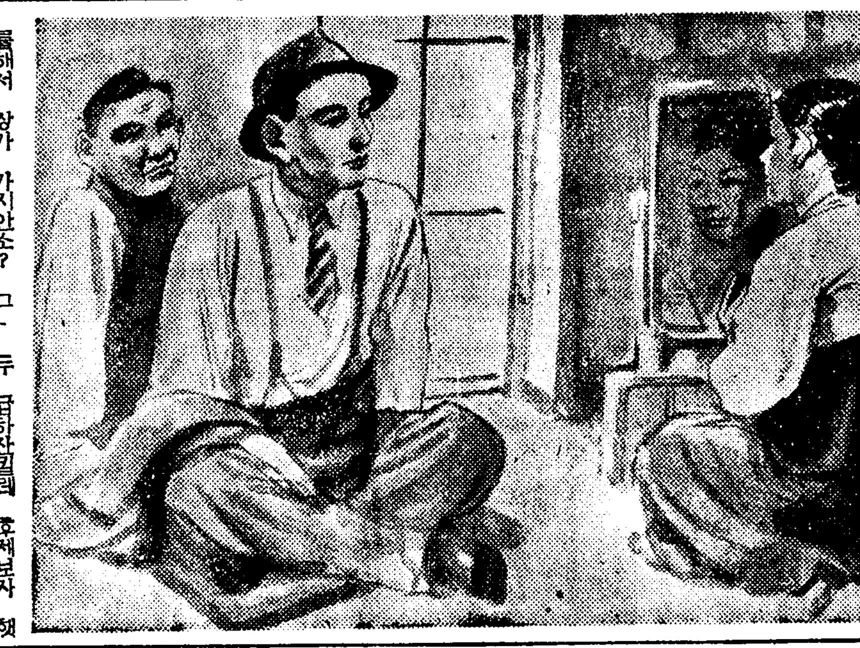
四平街北町 內科小兒科 共濟醫院 電話五二〇番

滿洲國西豐縣立高級小學校醫 洪仁杓

長篇小說 濁流 【80】
蔡萬植作 鄭玄雄畫

杏花의辯 (3)

『기생이 연애가 다 무어랴? 하는년두 계집년, 기생년하구 연애한다구 미치 팽비는 놈팽이두 계집놈이제』
행화는 의젓하게 처억처억 바더넹긴다.
형보는 그만해두고 이번에는 태수가 나서서 말을 시한다.
『어째서 그렇나?… 이거 내가되려 좌라구 서울루올라가서 한겻얼고 자살을 하게된가부다? 응? 나는 그때두 입때 행화하구 연애를하는니라하구서 조하했지』
『글세 고주사나 내만 두구서 하는말이아니라. 기생이 무슨 연애를하오? 예? 못놈들이 다르는 몸둥이지…ㅅㅅ이야○○이 시글시글해서 한좌이석어들어가지…. 그런 몸둥이를 가지구 무슨 연애를하오?』
『나는 그때두 행화한테 연애한걸?』
『말두마소. 고주사만해두 나하고 살을섞고 지내면서 달리 초봉이라카는 색시하구, 연애롤해서 장가 가지안소? 그걸 내가 아숙하는게아니라 그것만바두 기생하구는 연애가 안된다는걸 알수잇지안소?』
『그래두 나는보니까……』
다시 형보가 말을 바더가지고 나선다.
『……기생들두 버젓하게 연애만하더라』
『그건 연애가? 활냥이 오입한것이고 기생이 오입 바든것이지…. 오입걸게하는걸보고서 연애라하니 철부지소리 아니오? 장주사』
『저게 끄은히 냅더러 철부지래요! 허허 그거참…. 그러나저러나 이사람아 글세, 기생두 다가른 사람이래서 연애를 해먹게 파련이구, 그래서 더러 연애를 하기루하구 하는데, 자네는 어찌그리 연애하는 기생이라면 비상축인가?』
『연애들하면 다 사람될하나? 채! 요번에 저아메서는 개두 연애들한는데?』
행화도 필경 진정을 누덕삽어 하고잇다.
태수는 형보와 어울려 한참이나 웃다가, 비인 담배곽을집어보고는 돈을 끄내면서 밖갓을 끼웃끼웃 내어다본다.
『와?』
『담배……』
『아무두 업는데……. 비총 피우소』
행화는 제 경대설합에서 담배곽을 끄내다가준다.
『요전에 계집아이 하나 데려온다는건 어떠케했나? 아직안데려왓나?』
태수는 실쭉함이 아얼는지라 오록 생각이나서 물어본것이다.
『계집애? 웬계집애?』
하고 처음듯는 형보가 뭇는다.
『우리 딸 데려올라했더니 아직 어려서 조끔 더 자라게 두엇소』
『딸? 인제 어린것이 딸이라니?』
『하아! 내나이 한갑아니오?』
『기생의한갑?』
『뉘한갑이거나 인제는 딸이나 길러야 늙발에 밥을 몰어다가 멕여살리지?』
『아서라. 그래 남의 계집애자식을 몃돈 주구서 사다가는 등골을 뽑어먹을려구?…』
『등골뽑은 와?……. 제두조쿠 나두 조치』
『대체 몃돈이나 주구서 사오기루햇나?』
『하앗다 장주사는 돈ㅅ돈 크게 쓰나부지?…』
백원짜리를쿤돈에 정했소. 정했다가 저두 마단다하고, 나두 금하잔길래 후제보자 햇소. 속이 시원하오?』
양서방네딸 명님이의 이애기다. 그러나 태수고 형보고, 그들은 명님이를도 몰으고 또코가 어데보른 계집아인지 알래도 업는것이다.
『집을 도배를 하나?……』
태수가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방바닥에노힌 앙복구고리를 집어들고 이러선다
『……좀 가보아야겟군』
『어데데?』
『그전 큰샘거리……. 자네두가치가세. 오늘가서 집을 얇어두엇다가 도배 꿋나거든 집짝 떠질머지구 가서잇게』
형보는 두루매기를 내려입으면서 속으로는 어찌하면 이러케일이 구켜이맛게 마저떠러지느나고 조아한다.
『식모는 벌서 집하구 한거번에 구해서 집을 맷겨두엇는데 인제 살림을 디련노차면 식모만 미들수가업스니까 자네가 기왕 와서잇슬테고하니 미리 오란말이지』
『원 그러타면 몰으거니와…』
『행화두 미리서 집아리겟 가세그려?……. 아무래두 또 맛나서 저녁이나 먹어야할테니까……』
어러커해서 셋은 집을 둘러보려가고 그와 거의 가튼시각에서 조금 더러커 초봉이도 계봉이와가티 그집에를 가거되엿섯다.



謹賀新年

豊川 吳斗弘
豊海面事務所職員一同
豊川 西海醫院 醫師 韓泰辰
豊川金融組合職員一同
豊川 三省醫院 公醫 白禮三
石灘釀造場 主 朴奎複
豊川 合名會社 豊川釀造場
泉洞面事務所職員一同
豊川和信連鎖店
眞風面事務所職員一同
豊川 鄭尚鉉
豊川 任允在
松禾郡 雲遊面事務所 職員一同
豊川 高亨均
石灘 養正醫院 醫師 吳德杓
豊川 司法書士 金泰敬
石灘 林虎農園一同
白馬 楊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京義線白馬驛前 濟生醫院

光化學院 李東春 金三煥
義州郡古舘面事務所 獨孤爛 金志貞 朴春盛 朴羅說 白文元 石昌儒 韓載三 獨孤濂 金址坧 李明珍
京義線白馬驛前 漢洋醫院
京義線白馬驛前 金三達
白馬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古邑水利組合 職員一同
楊光水利組合 金尙沃
和義金融組合 組合長 趙尙鉉
義州郡古津面 張益河
義州郡威遠面事務所 職員一同
復興學校 校長 趙東湜
光山學院 院長 崔承俊
京義線白馬驛前 木材商 崔熙卿
無名氏
楊光水利組合 金貞燮
楊光面協議會員 金宗龍
義州郡古城面龍山洞 白元辰
京義線白馬驛前 白馬精米所 義州郡威遠面四下洞 朱正洛

雄基中華商會
北鮮雄基港本町 文化洋服店 電話三五五番
雄基本町 株式會社 東富商會 電話三〇五番
羅津府新安洞 水産業 孫元浩
朝鮮雄基本町 綢緞布木商 吉盛東
雄基本町 バーオリエントカフェ 文奉元
雄基港 兪鎭萬
雄基邑白鶴洞 水産業 金時權
雄基邑雄尙洞 水産業 安敬舜
慶興郡蘆西面西浦項 水産業 安東國
雄基港本町一九九ノ五 濟生醫院 醫師 金榮培 電話二四〇番
慶興郡慶興面古城洞 金致雲
雄基 同仁醫院 金鍾夏 電話三五五番
雄基港 大一商會 電話三八番

咸北雄基 德興商店
雄基港市場通 金元商店 元槙常 電話三三三番
雄基本町 鄭鳳宇 電話二〇四番
雄基本町 貿易商 吉雄洋行 電話三七七番
雄基上本町 劉達富 電話一二七番
雄基港西町 兄弟鐵工所 崔麟孫 電話三五二番
合資會社 協日商會 代表社員 全泳鎭 電話一二三番
咸北雄基港榮町 △洪一商店 電話四番
咸北雄基本町 和信連鎖店 電話一二三番
雄基邑
雄基邑雄基洞七三 國際富興組
雄基港 貿易商 天宮商會 朴麗俊 電話三三〇番
朝鮮咸北雄基港本町通り 荘、興、洋品店
雄基港本町 雄基グリル 電話二四〇番
雄基邑內 雄一食堂
雄基本町 ゴム靴製品 洪龍浩商店 電話五一番 支店羅津
朝鮮雄基本町 綢緞布木商 愼記號 電話二六四番 私書函二〇番

雄基本町 安詰淳 電話一三八番
咸北雄基港中松坂 朝鮮冷麵屋 電話一五三番
雄基上本町 東昌旅館 運送店 主 韓道一 電話一六〇番
咸北雄基本町 現代洋靴店 朴寬彬
雄基邑內 朝鮮料理 朝鮮館
雄基港榮町 丸元商會 代表者 元致厚 電話二一五番
雄基上松坂 雄基衛生社 魏獻學
咸北雄尙驛前 三聖農園 宋元奎
雄基邑雄尙洞 水産業 金鳳延
慶興郡蘆西面白岩洞 水産業 禹鍾順
慶興郡蘆西面白岩洞 水産業 金炳哲
咸北雄基港本町 貿易商 三省社 電話長四六番 私書函一一號
雄基本町 中央醫院 徐相振
咸北雄基港本町 陶磁器金物類洋品雜貨 金益洋行 電話三〇五番
雄基港 私立 雄一學院
雄基 司法書士 金文協事務所
雄基本町 金振熙
雄基榮町 食料雜貨 金斗五商店
雄基榮町 米穀酒類 富春商店 電話二二九番
雄基港市場 德永商會

雄基日之出町 東富印刷所 金泰鉉 電話一二九番
雄基港 春川商店 崔興順
雄基港 平安商店 崔弘範
雄基港 三輪商店
張明均
咸北雄基港 東泉商會 電話三三番
咸北雄基港西町二百十番地 中華料理 德日樓 電話四一一番
雄基邑上本町四二九番地 御料理 朝日旅館 電話三六五番
雄基本町 雜貨貿易 愛敬商會
咸北雄基港上本町 改良製車 諸般鐵工 會雄車房
咸北雄基中松坂 唐草材貿易商 長桑乾材藥房 主 田亨穆
慶興郡蘆西面龍山洞 義興商店
雄基上本町 正五旅館 電話四四七番
雄基下松坂 食料雜貨 木炭 都賣 滿春商店 李集榮
雄基邑內 平壤樓

慶興郡 合成商會
慶興郡 協信商會
慶興郡慶興面古城洞 金萬烈
慶興郡慶興面古城洞 吳元國
咸北四會驛前 金盛精米所 金大浣 李相玩
慶興郡慶興面古城洞 古城精米所 吳炳國
慶興郡 大營農場
慶興郡慶興面古城洞 協同商會
慶興郡慶興面古城洞 金昌製菓所 金昌華
雄基上本町 水産業 李東彬 電話三三番
雄基港 時計 蓄音器 レコード 吉會堂時計店 文日成
雄基上松坂 米穀木炭 委託販賣 德信旅館 安秉烈
雄基本町 製菓 食料 雄基菓子店 朴明燮
雄基市場 一興商店 卓元源

咸北灰岩 大同醫院 醫師 李洪得
咸北灰岩本町 灰岩醫院 醫師 崔容羽
乘合 高級 貸切 貨物 慶興自動車部 灰岩タクシー
咸北阿吾地驛前 既成衣類 和洋白貨商 各種帽子 大同商會 洋服部
咸北灰岩 平原食堂 蘇龍範
咸北灰岩 灰岩精米所 朴興俊
朝鮮咸北灰岩洞驛前 綢緞百貨商 德盛永商店
咸北灰岩 米雜穀 食料品 諸雜貨 部 散賣 三益商會 電略サンエキ
咸北灰岩 東亞旅館 主 崔燦波
咸北灰岩 德興食堂 方鳳碩
咸北灰岩本町 共益木材商會 嚴明 李信重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指定 阿吾地鑛業所灰岩洞配給所 金光珠

松汀里市場 光星商會 主 朴榮柱
松汀里本町 牛皮貿易商 趙長玉
松汀里 米穀 木炭 石油 李成奉商店 電話一二番 電略(リ)(セ)
松汀里驛前 三天商會 主 洪淳珍
松汀里本町 東光洋服店
松汀里 通豐號
松汀里本町 南松製菓所 主 張正權
松汀里 全南商會
松汀里本町 果物商 金福洙
東谷面 裵基根
松汀邑 松汀勞働組合
松汀里驛前 三和精米所 主 金宗鎬
松汀里市場通 德勞商會 主 徐相洙
松汀里本町 松汀電氣商會 主 朴任守 電話一〇一番
全南松汀邑本町 精米 貿易 雜穀 大昌精米所 電話一二三番
松汀里本町 雙合盛鑄物工場 主 李成芳
松汀邑 金鳳園
松汀邑 張安燮
松汀里本町 許東烋商店
松汀里市場通 梁永日商店
全南松汀里 米穀 肥料 石油 共信商會 電話一一八番 電略キヌヘキヨ
松汀里本町 三星堂時計店 主 裵基英
松汀里驛前 光盛商會 主 柳秉用
松汀里市場通 大同ゴム商會 主 朴成洙
松汀里本町 大成洋服店 主 金周三
松汀里本町 ナショナルランプ代理店 東亞電氣商會 電話一二二番
松汀金融組合 職員一同
光山郡松汀里 崔東鎭
松汀邑事務所 職員一同
松汀里驛前 勞働組合運搬部

松汀里本町 滋信理髮館
松汀里本町 吳鐵伊鐵工所 主 吳鐵伊
平洞面 宋泳述
松汀里本町 極光電氣商會 主 朴在宣
松汀里本町 吉鳳洙商店
松汀里本町 松汀理髮館 主 金判玉
松汀里本町 月星堂時計店
松汀里本町 鳳凰洋靴店 主 朴仁圭
松汀里市場通 白石藥房
松汀里市場通 韓現周商店
松汀里 鄭純朝
松汀里本町 李琴烈商店
松汀里本町 果子商 李萬吉商店
松汀里 黃河永自轉車店
松汀里本町 金贊吉
松汀里驛前 潭陽館 主 洪學均
松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剛線杏亭驛前 永遠硫化鑛山
金化郡金城面芳里一七一 濟東醫院 醫師 金東遠 藥劑師 朴世綱
金城驛前 佐藤巧
金城驛前 金專俱樂部
金城金融組合 職員一同
金城驛前 和信連鎖店 全炳學
金城 大塚健之助
金城驛前 穀物貿易 嚴柱穆
金城警察署
金城驛職員一同
金城驛前 李鍾敎商店
金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金城 小城原兵作
金城驛前 綢緞布木 廣昌商店
金城 梅木利男

錦州東門外十字街 金泉館 朴鳳燮 電話二〇五三番
錦州東門外十字街 白米商 平安公司 電話二〇三五番
錦州皇寺路 白米商 三有公司 電話三〇五一番
錦州大馬路二丁目 海産物 開信公司 電二四七二番
錦州國錦州市大馬路 丸一貿易社 電話二九四五番
錦州東門外 大阪屋クリーニング 金寬
錦州 大一貿易公司 電話二七五六番
錦州大馬路 料理屋 明月館 電話二三六六番
錦州東門外十字街
錦州東門外十字街
錦州大馬路二丁目 半島旅館 電話二〇八五番
錦州驛前 平和紹介所 電話二二三一番
錦州東門外 金海樓 電話二三二九番
錦州城內西大街 ゴム靴雜貨卸商 錦泰公司 電話二〇四九番
錦州東門外 平壤麵屋 電話二四一四番
錦州皇寺路 錦州醫院 鄭玉淳 電二九一三番
錦州大馬路三丁目 錦州タクシー 金東炳 電話二〇一五